2014. 2. 7(금) 제 1 회의

제 3 분과

여성교육과 일자리 창출

귀농유형별 여성의 농촌적응 유연성에 관한 연구
: 청도군 사례를 중심으로

성 지 혜(대구여성가족재단)

1. 문제제기

“농촌에 정착하기까진 아내의 고생이 더 컸어요. 어설픈 재래식 부엌살림에, 추운 겨울 따뜻한 물을 받지 못해 목욕도 어려웠어요. 아내는 말을 나눌 또래가 없어 우울증에 시달리기도 했습니다…… 농촌 중소도시 아파트에는 농민도 곧잘 입주하지만 우리가 이 아파트에 살게 된 데는 다른 이유가 있습니다. 재작년 뇌출혈로 쓰러진 어머니를 수발하기 위해서죠. 어머니를 모시기에는 아파트가 수월합니다. 저가 장남인데 서울에서 계속 살았으면 거동을 못하는 어머니를 어떻게 모셨을지 상상하기 어렵습니다.”[1]

인터뷰의 내용은 이미 10년 가까운 시간이 흘러 지금은 재래식 부엌살림도 사라지고, 추운 겨울 따뜻한 물로 목욕하는 것이 당연한 일상이다. 그러나 귀농가족 내 여성의 삶은 여전히 고달픈 것이 현실이다. 말을 나눌 또래가 없어 우울증에 시달리는가 하면, 시부모의 수발과 병간호로 활동에 제약을 받고 있기 때문이다. 성 중립적으로 보이는 귀농이라는 하나의 현상도 여성의 경험은 남성과 다르게 구성되고 있기 때문이다. 귀농이 남성에게 농업에 대한 적응이 관건이라면, 여성에게는 농촌사회와 가족의 변화에 대한 적응이 우선되기 때문이다.

귀농은 산업화 이후부터 꾸준히 있어 왔으나 본격적인 귀농은 1990년대부터 시작되었다. 1990년대 귀농이 외환위기 이후 경제적 문제해결로 등 떠밀린 귀농이었다면, 2000년대 이후의 귀농은 일시적인 현상이 아니라 베이비부머 세대의 주도적 참여와 미래 농산업에 대한 긍정적인 젊은 세대가 참여한다는 점에서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귀농으로 이어지고 있다(김백수·이정화, 2013). 이제 귀농은 농촌을 되살리기 위한 대안으로 정부의 다양한 지원책 아래 적극적으로 요구되고 있다.

귀농의 준비절차[2]는 7단계로 구분되며 귀농결심, 가족합의, 작목선택, 영농기술, 정착지 물색, 주택 및 농지구입, 영농계획 수립이다. 귀농의 결심은 귀농을 희망하는 개인이며, 가족합의의 대상은 귀농으로 삶의 터전을 농촌으로 옮길 가족구성원이 해당된다. 여기서 가족합의를 이끌어낼 주체는 대체로 남성이며, 가족합의의 대상은 여성이다. 가족합

1) 「주간조선」, 2004년12월16일자, ‘인간답게 살고 싶다, 귀농이 젊어진다’, http://www.krei.re.kr(검색일자:2011.8.14)
2) 귀농귀촌종합센터, 귀농길라잡이, http://www.returnfarm.com, (검색일자:2014.1.28.)

의에 대해 귀농가이드는 '농촌으로 내려가고자 할때 선뜻 응할 가족은 많지 않으므로 일단 가족들과 충분히 의논한 후 합의'를 고려해야 함을 명시하고 있다. 귀농은 직업의 차원이 아닌 가족구성원 전체 삶의 전환으로 본다면 가족귀농을 선호하는 한국사회에서 귀농가족의 농촌적응에 여성의 역할이 상당하다 할 수 있다.

그러나 정부에서 추진하는 귀농정책은 농업창업에 집중하여 실습·교육·체험이 대부분을 차지하며, 귀농교육 역시 이러한 농업창업관련 영농교육에 집중되어 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농가인구 중 여성이 51.1%(2012년)이며, 농업 주종사자 중 여성이 53.0%임을 중요시하여 여성농업인육성을 위한 정책과제를 실행하고 있다.[3] 귀농과 관련된 사업은 '농촌지역개발 리더 및 후계인력 육성'으로 '귀농 및 결혼이민여성 등 농어촌 신규 유입 인력을 농촌에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멘토링 서비스 지원을 강화'하기 위한 추진목표에는 '정착 단계별 정보 제공과 전문 여성농업인 멘토 육성'을 두고 있다. 근래 들어 귀농인과 지역민간의 화합프로그램을 보급하고 관련 교육을 실시하는 등 농촌이해와 농촌적응에 관심을 기울이고 있지만 여전히 부족한 현실이다.

귀농가구주의 성별은 2012년의 경우 총 11,220가구 중 여성이 3,445명으로 30.7%였으며, 남성은 7,775명으로 69.3%를 차지했다. 이는 2011년 여성 29.9%와 남성 70.1%에 비해 귀농가구주의 여성비율이 0.8%늘어난 수치이다. 귀농여성1인가구도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다. 전입가구원수별 귀농가구수를 살펴보면 귀농남성은 53.2%인데 비해 귀농여성은 67.8%로 나타나 여성1인기구 비율이 높았다. 이에 대한 세밀한 정책적 접근이 요구된다.

이 연구는 기존의 귀농연구나 정책에서 충분히 고려되지 않았던 귀농한 가족 내 기혼여성의 귀농경험에 관심을 갖고 이들의 농촌적응 형태를 살펴보고자 한다. 여성은 정부가 추진하는 가족귀농의 핵심이면서도 남성과는 매우 다른 환경에서 제각기 다른 형태로 귀농을 수행하고 있다. 귀농여성에 대한 해석은 농촌영농 활성화라는 개발과 발전중심의 접근으로는 불가하며 귀농 전반에 대한 새로운 패러다임의 변화를 요구하고 있다.

여성에게 귀농은 도시에서 농촌으로 이동하는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귀농 후에도 여전히 가족 내 귀농이 진행 중인 역설적인 현상의 중심에 있다. 이러한 역설적인 현상과 함께 가족이데올로기와 농촌사회의 가부장성 속에서 갈등과 타협을 반복하면서 귀농을 거부하기도 한다. 연구자는 귀농경험과 귀농과정에서 획일적이고 보편적인 남성중심적 입장에서 벗어나 새롭게 여성주의적 젠더관점을 부여함으로써 귀농여성이 가진 문제의식에 천착하고 귀농과 농촌적응의 기본이라 할 수 있는 각종 교육이 여성과 가족의 농촌적응에 어떠한 의미가 있으며 관계형성으로 이어지고 있는지 찾아보고자 한다.

3) 농림축산식품부, 정책홍보, http://www.mafra.go.kr. (검색일자:2014.1.28.)

2. 여성의 귀농과 귀농유형

1) 농업과 여성노동의 변화

1962년에 시작된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은 한국의 산업화를 본격적으로 진행시켰다. 경제성장의 효율성과 경제적 직접 효과의 추구에 따라 정책적·사회경제적 지원이 도시에 위치한 기업에 집중되고 농촌에 대한 투자가 제한되어 농업과 농촌은 상대적으로 낙후 속에 도시지역과 공업 간의 발전격차를 심화시켰다(윤근섭, 1993).

산업화 추기에는 도시의 늘어난 인력수요로 인해 농촌의 극빈 영세농을 중심으로 세대유출을 가져왔다. 이후 1970년대부터는 공업화의 추진과 함께 농촌의 젊은층을 중심으로 단신유출이 주를 이루었다(전운성, 1997). 이농현상의 경제적 원인으로는 도시민에 대한 농민의 상대소득 저하, 도시에서의 취업기회 증가였다. 경제외적 요인으로는 '사람은 서울로 보내고 말은 제주도로 보낸다'라는 도시지향적인 가치관과 농촌의 교육기회 부족, 복지시설 낙후, 농업 중노동으로부터의 회피가 지적됐다(김형용, 1989). 농촌의 가난과 교육기회의 부족으로 인해 청·장년층의 이농뿐 아니라 더욱 어린 딸·아들도 농촌을 벗어나기 시작했는데, 대부분의 아들은 진학으로, 대부분의 딸은 취업이 그 이유였다(성지혜, 2010). 가부장적 성격이 강한 농촌사회에서 아들에 대한 높은 교육열과 도시산업의 활성화로 자녀의 이농이 크게 늘어나면서 영농후계자의 확보가 어렵게 되었으며 농업노동력의 질적 저하를 야기시켰다. 젊은이들이 썰물처럼 빠져나간 농촌은 거대한 농인촌을 방불케 했다(조관일, 2000).

1980년대 이후 우리 경제가 개방화정책을 적극 추진하는 가운데 이미 경재엮을 잃어버린 농업분야에서도 개방화의 불가피한 상황이 전개되었다. 개방화·수입자유화로 상징되는 1980년대 중반 이후와 1990년대는 한국농촌에 상반된 영향을 미쳤다. 하나는 주로 1980년대 후반에 나타난 것으로 농산물 가격폭락, 농가부채 누적, 농촌가족의 해체, 광범위한 소작제 확산 등 농촌사회의 피폐화라 할 수 있다. 농촌에서 '아이의 울음소리가 들리지 않는다'라는 말이 나올 만큼 농촌은 노령화되고 장가를 가지 못해 전전긍긍하던 농촌청년이 결혼과 부채 문제로 자살하는 등의 소동이 벌어진 때도 이때이다.

다른 하나는 농업 구조조정에 관한 것이다. 1970년대 말까지 농업정책은 절대빈곤과 식량부족을 극복하기 위해 토지생산성 위주의 '증산농정'을 계속해왔다. 농업정책의 주안점도 구조개선이나 경쟁력 강화보다는 농산물, 그 중에서도 '주곡증산'을 위한 쌀 다수확 신품종의 개발 및 보급에 의한 녹색혁명과 이중곡물가격제에 의한 가격지지 등에 있었고, 이를 보완하는 수준에서 농어민 소득증대사업과 농어촌개발사업 등이 추진되었다(조관일, 2000). 계속되는 누적된 적자, 냉해, 수입농산물에 대한 가격파동 등으로 농촌경제는 침체되고 농가 부채증가로 '증산농정'은 한계에 부딪혔다. 그로인해 물가안정을 위한 개방농업정책론에 맞서 1990년대 후반부터 보호농업정책론 등이 대두되었다(김병택, 2002). 그러나 2000년대 들어 세계 자유무육주의체제의 확산은 농업분야에서도 피할 수 없는 현실이 되었다. 시장경제에 적극적이지 못하고 일관되지 않은 농업정

책과 농업경영능력의 함양 부족은 농업을 더욱 비관적으로 만들었다(조일호, 2003).

농촌인구의 감소와 농업견제의 위축은 농가 노동력의 노령화와 여성화로 이어졌으며 농업노동의 역할구조에도 변화를 가져왔다. 여전히 남편은 바깥일을, 부인은 집안일을 한다는 전통적인 성역할 규범이 남아 있었으나 농사에 있어서는 여성의 참여가 적극적으로 거론되었다(김주숙, 1994). 이 시기 농촌여성들은 농업생산자로서의 역할을 포함하여 종래부터 해오던 가사담당자로서의 역할과 농업생산에 참여하고 기타 경제행위를 하는 경제활동자로서의 역할 그리고 지역사회 활동을 하는 시민인 여성의 역할이 강조되기 시작하였다. 특히 새마을운동은 농촌여성의 지역개발사업의 적극참여로 농촌여성의 일에 대한 영역을 확장시키는 결과를 낳았다(이순미, 2006).

농촌여성은 중요한 노동력을 가진 농업생산자로서의 자리를 굳혔으며 한국적 소농형태[4]는 여성의 농업참여를 필연적으로 수반하는 상황으로 전개되었다. 그런데 농촌의 노동력 부족이 농업의 기계화라는 방향으로 전행되는 농업 발전과정에서 유독 여성만이 기술적 측면에서 소외되는 현상이 나타나 농촌여성이 이중삼중의 질곡으로 빠지는 결과가 초래되었다. 이것은 농가가 개별적 생산단위이며 농가의 주요 노동력이 부부노동력임에도 불구하고 농촌여성으로 하여금 자신의 정체감을 주부이거나 농사보조자로 인식하게 만들었다(김주숙, 1994). 다시 말해 이농현상 및 농업의 구조적 특성상 여성인력이 농업생산에 적극적으로 요구되고 있으면서도 여성은 가사역할을 전담해야 한다는 전통적 가치관에서 벗어나지 못한 상태로 농촌여성들에게 이중적 역할책임이 부여되었던 것이다. 농촌여성은 가사담당자로서의 아내와 농업 경제활동자로서의 아내라는 두 가지 역할을 동시에 수행하고 있으면서도 가족 내 지위는 도시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았던 것이다(오인숙, 1989). 이는 농촌사회의 여전한 가부장성과 농업생산관계에서 여성의 낮은 지위와 연결되고 있으며, 역할의 공유보다는 오히려 성별역할분담이 고착화되고 이 때문에 농촌의 성 불평등구조는 여전히 여성문제의 핵심으로 남을 수밖에 없다(김홍주, 2007).

2) 농촌가족의 변화

가족은 개인이 접하는 최초의 사회이고 기본적 단위이며 여성의 삶을 이해하는 데 중요한 요소이다. 한국가족은 외형적인 측면에서는 핵가족화되고 있으나 가족 내 잔존해 있는 가부장성 전통은 서구의 핵가족이론으로는 충분히 설명될 수 없는 한국적 상황에 놓여있다. 사실상 한국가족의 경우 서구적인 의미의 핵가족화라고 보기는 어렵고, 가족의식이나 가족관계의 측면에서는 여전히 부계혈통 중심의 대가족적 요소를 지니고 있다는 것이 가족학자들의 공통적인 지적이다(이재경, 2003).

최근의 급속한 가족변화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가족과 가족이 아닌 것의 경계가 분명

4) 농촌진흥청(http://www.rda.go.kr, 검색일자:2011.9.21)은 2011년 농촌지도사업의 비전과 목표로 '강소농'을 제시하였다. 강소농은 작지만 강항 농업 즉 강한 소농형태를 말한다. 작은 영농규모를 가지고 있는 한국농업의 한계를 창의적인 아이디어에 기반하여 소농의 약점을 강점으로 탈바꿈시키려는 실천 프로젝트이다. 여기서 소농은 개인과 가족단위에서 출발한다. 그렇다면 강소농 실천의 성공전략에는 가족구성원인 여성의 역할이 강조될 수밖에 없다.

하고 가족에 대한 기대와 규범으로부터 자유롭지 않기 때문에 가족의 구속력은 서구사회보다 높지만, 가족원의 민주적인 소통방식과 친밀성은 충분히 확보되어 있지 않은 것이 사실이다(김혜영, 2006). 즉 한국가족은 구조적으로 소가족화되어 있으나 가족의식이나 가족관계의 측면에서는 전통적 요소와 근대적 요소가 혼재되어 있다고 할 수 있다.

농촌가족 형태의 변화는 농촌사회의 중요한 변화이자 농가경제의 성격과 농업경영 상태의 변화를 촉구하는 가장 중요한 요인이다(김형용, 1989). 전통적인 농촌사회는 동일한 경험을 바탕으로 형성되어 공동체적 성격이 강하고, 가족을 단위로 하는 동족관계의 집성촌 형태를 띠고 있다(김기홍, 2006). 집성촌 형태의 농촌가족은 도시가족에 비해 친족 관계망이나 지역사회 관계망에 훨씬 더 직접적인 영향을 받으며 긴밀히 상호작용한다. 현대에는 전통적 요소가 많이 사라지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농촌마을은 여전히 친족단위로 구성되어 있으며 농촌가족의 인간관계는 지연적인 또는 혈연적인 요인에 의해 결정된다고 볼 수 있다(최재율, 1995). 그러므로 농촌가족은 위기에 대해 가족이라는 집합적 단위를 매개로 하여 다양한 대응전략을 선택하면서 농업생산의 지속과 일상생활을 유지한다고 볼 수 있다. 이는 농촌에서 가족이란 생산의 기본단위이자 일상생활의 기본단위가 되기 때문이다.

전통적 요소를 갖고 있는 농촌가족의 특징을 오인숙(1989)은 가족노동력에 대한 의존이 높은 농업으로 인해 농촌가족은 가구원 수가 많으며 가부장권과 남존여비사상이 강하게 잔존하고, 가족단위 유대가 매우 강하다고 설명한다. 그러나 이동가족의 증가와 이들 이농자의 도시정착으로 농촌의 가족형태는 노부부를 중심으로 핵가족화되는 추세이다. 더욱이 농촌가족의 일부 가족원은 도시에 편입된 1가족 2가구 형태를 띠는 경우가 많은데 이렇게 해체·분리되는 농촌가족은 기존의 농촌가족 기능을 상실하고 새롭게 요구받는 가족기능을 수행하면서 자본주의적 이해에 이용·조정되는 매커니즘이 이미 구조적으로 공고화되었다(김주숙, 1994). 그러나 산업화가 진전되면서 농촌과 도시의 구분은 점점 어렵게 되고 있다. 농사와 상관없이 농촌으로 유입되어 주로 2·3차 산업에 종사하는 젊고 부유한 집단이 있는가하면, 은퇴 후 노년을 보내기 위해 농촌으로 유입되는 사람들이 생겨나기 시작했다. 이들은 농촌에 거주하지만 농촌주민들과는 다른 생활양식과 가치관을 가지고 농촌보다 도시와 더 빈번하게 교류하는 행동양식을 가지고 있으며 농촌가족과 농촌사회의 성격을 변화시키는데 일조하고 있다(정부매, 2005). 이러한 변화는 농촌이라도 전적으로 농업에만 의지할 수 없게 만들었고, 집성촌 형태인 농촌마을의 성격도 희석시켰다(홍동식, 1988).

이러한 가족의 변화는 가족돌봄 책임을 완화하는 탈가족책임화를 동반하고 있다. 돌봄으로 대표되는 가족의 재생산 노동은 상품을 생산하는 노동과 함께 자본주의를 지속가능하게 하는 기본축이기 때문이다. 양옥경(2005)은 탈가족화를 '가족의 복지와 돌봄의 책임이 국가 또는 시장의 참여를 통해 사회화'도리 수 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한국사회는 가족화를 위한 명목적 제도설계는 상대적으로 양호하지만 공적지원을 수반한 가족화는 매우 취약한 실정이다(윤홍식, 2010). 그것은 가족화와 탈가족화 모두 공적 주체보다는 사적 주체가 가족책임의 지배적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것은 한국사회의 성별차이에 근거한 유교적 전통이 그대로 남아있고 성별분리가 재생산되고 있

다는 점에서 여성이 있어야할 자리는 ‘가족’이라는 관념이 지배적인 것에서 기인한다. 가족에 대한 공적자원이 부재한 상황에서 남성 일인 생계부양자 가구가 빈곤에 처할 가능성이 이인 생계부양자 가구보다 더 높을 수밖에 없는 상황은 가족의 안정적 생활을 위한 필수기제로 여성의 노동시장 참여와 가족 돌봄의 희생을 요구받는 ‘전일적 모성신화’의 규범을 만들고 있다(윤홍식, 2010).

농촌가족의 변화 중 하나는 혼인수급의 불균형으로 신부를 수입해야만 하는 농촌총각들의 불가피한 상황으로 인해 보수적인 농촌사회에 국제결혼이라는 새로운 결혼풍속과 다문화가족의 높은 증가를 가져왔다는 것이다. 혼인수급의 불균형은 남녀성비의 불균형현상에서 기인하는 것도 있으나 우리나라 여성들이 농촌지역 남성과의 결혼을 기피하기 때문이다. 이는 농촌지역의 사회·경제적 낙후와 교육·문화시설의 부족, 농업에 대한 부정적인 미래와 불확실성 그리고 노동과 가사의 구분이 불명확한데서 오는 농촌여성의 고충에서 원인을 찾을 수 있다(정행준, 2011).

특히 초고령화 사회인 농촌의 특성은 독거노인이나 노부부만의 가족형태를 크게 증가시키고 있으며 기존의 농촌가족에서 장남이나 장남이외의 아들에 한정적이던 부양책임의 태도에도 큰 변화를 야기시키고 있다(조미영, 2005). 전통적 관습으로 노부모 부양은 의례히 자녀의 책임이었고 특히 장남이 부양책임을 전담하였으나 사회구조와 가치관의 변화로 부양의식과 부양체계가 변화하고 있다. 부양의식에서도 자녀의 공동책임에서 능력있는 자녀가 부양하거나 아들과 딸 모두 부양해야 한다는 방향으로 인식이 변화되고 있다. 그러나 노부모 부양책임자를 가족전원으로 확대시키는 것은 어느 일방에게 책임을 지우지 않는 바람직한 면도 있으나 한편으로 부모부양의 책임을 서로 전가하는 요소로 작용하여 가족갈등을 유발하기도 한다. 권중돈(1996)은 노부모 부양이 가족재정과 경제활동상의 부담으로 작용하고 부양자와 가족전체의 부정적 태도변화로 이어져 가족갈등의 요소임을 예고했다.

이러한 노부모에 대한 부양부담은 고령화된 농촌사회에서 더 심각하다고 할 수밖에 없다. 그러므로 여성의 농촌거주는 도시와 농촌의 문화격차에서 오는 소외감과 자녀교육문제 및 도시에 거주하는 형제를 대신해서 노부모를 부양해야 한다는 부양부담을 안게 되는 것으로 심각한 스트레스의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유광희, 2007). 이는 실제적 거리감으로 인해 부양책임이 줄어든 도시여성에 대한 상대적 박탈감으로 귀농에 따른 여성의 부담으로 가중되고 있다. 특히 전통적인 가부장적인 가치관에 따라 일방적인 인내와 순종을 며느리에게 강요함으로써 원치 않은 귀농을 수행한 여성의 경우 갈등과 대립이 자주 나타날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귀결된다.

농촌가족이 겪어 온 변화 중에서 무엇보다 주목해야 하는 것은 전체가족의 이익을 위해 개인의 희생을 당연한 것으로 간주한 것이다(양순미, 2001). 전통적 가족가치관이 여전한 농촌은 성(gender)에 근거한 역할과 정체성이 강조되며 성별에 따른 차별적 희생을 강요한다. 이러한 과정 속에 여성의 성역할 수행은 여성과 가족의 동등한 관계보다는 여성을 가족이라는 체계 속에 귀속시키는 존재로 국한시켰다(이효선, 2009). 가정의 경계 내에 행동이 제한도니 여성들은 외부로부터 단절되어 하위의 사회적 지위를 가질 수밖에 없다. 이같은 상황은 가족 내 여성들을 남성들에 의해 의존적 존재로 만

들었으며 가족원들의 위계관계를 남성 가장을 정점으로 하는 여성과 남성의 상하 구조로 모양짓게 되었다(박부진, 1994). 그러나 이러한 농촌가족의 전통적인 가부장적 가족 구조는 농촌사회의 변화와 더불어 점점 약화되어 왔다(한국여성개발원, 1993). 농촌의 일손부족과 농촌으로 시집오려는 여성이 줄어들고 있는 상황에서 더 이상 여성을 가정 영역에 묶어두려는 문화적 의도는 없어지게 되었다. 그러나 여성의 영역이 사회의 더 넓은 영역으로 확대되고 여성의 지위가 높아지고 있지만 농촌의 다양한 생산활동과 함께 집안일은 여전히 여성의 영역으로 간주되는 상황은 여성의 지위를 지속적으로 낮은 곳에 머물게 하고 있다(박부진, 1994). 현재까지 농촌여성들의 활동증가에도 불구하고 가정 내에서의 성역할 분담이 전통적인 이분법적 역할 배분의 상태에서 크게 변화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러한 농촌사회와 농촌가족의 상황은 귀농가족의 기혼여성에게 직접적인 영향을 끼치고 있으며 대부분의 여성이 겪어야할 상황으로 그대로 전이됨으로써 이해갈등과 긴장의 촉발요인이다.

3) 여성의 귀농유형

귀농과 관련된 선행연구(서규선·변재면, 2000; 강대구, 2006; 박공주, 2006; 고성준, 2007)에서 귀농유형은 U형, J형, I형으로 구분하여 일반적으로 사용하고 있다. 이러한 귀농유형은 농촌과 도시, 고향과 타향이라는 공간과 구분을 강조한 것이다. 즉, U형은 농촌에서 도시로 다시 고향농촌으로 돌아오는 것을 말하며, J형은 농촌에서 도시로 다시 타향농촌으로 돌아오는 것이며, I형은 농촌생활의 경험없이 도시에서 태어나 학업과 취업생활을 영위하다가 농촌으로 이주하는 것을 의미한다. U형, J형, I형 중에서 우리나라 귀농유형은 U형이 절반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실정이다.

귀농유형은 귀농연구의 초입단계에서 정리된 세 가지 유형을 별 의심없이 그대로 사용하고 있다. 귀농연구가 성별이 고려되지 않은 채 여전히 남성의 입장에서 진행되고 있는 것은 귀농이 가족단위로 이뤄지는 현실을 간과한 것이다. 이러한 상황은 가족단위 귀농의 핵심당사자인 여성관련 이슈를 귀농정책에서 배제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가족단위 귀농현실과 농업의 아내노동력에 대한 필요를 고려한다면 여성의 농촌정착은 귀농가족의 안정적 농촌정착 향배를 결정짓는 중요한 요소가 될 수 있다. 지금까지 암묵적 동의하에 남성을 귀농의 주체로 파악하는 일반적인 귀농유형으로는 여성의 귀농과정을 설명하기에 부족하다.

우리 사회는 젠더로 위계화되어 어디서나 동질적이지 않으며, 여성과 남성은 서로 다른 종류의 활동에 배정되고 따라서 상당히 다른 외형과 패턴의 생활을 영위하고 있다(하딩, 2009). 그러므로 본 연구에서는 여성과 남성의 입장에 따라 유형화한 성지혜(2013)의 귀농유형을 사용하여 분석하기로 한다. 그것은 다르게 구조화된 여성과 남성의 활동 모순에서 오는 불평등을 드러낼 수 있으며 여성의 관계적인 경험이 가진 진실에서 인간행위의 고유한 가치평가를 찾을 수 있기 때문이다. 여성의 입장에서 귀농유형은 기존의 귀농유형을 결정하는 공간구분을 토대로 좀 더 세분하여 여성의 입장에서 ‘연고지’와 ‘무 연고지’로 나누고 다시 부부 중 누구의 연고인가에 따라 ‘아내연고형’,

‘부부연고형’, ‘남편연고형’, ‘무 연고형’으로 나눈다.[5]

여성의 귀농에 있어 부부 중 누구의 고향으로 귀농하느냐는 귀농의 제안과 동기 그리고 상대방을 설득하는 과정에서 가족 내 젠더 역학관계를 가늠할 수 있고, 귀농 후 가부장성이 남아있는 농촌사회에서 여성이 수행해야 할 성역할과 관련하여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특히, 연고지로 귀농한 여성의 경우 연고가 주는 정서적 안정감보다 연고지인 집성촌의 집안 대소사에 대한 책임과 노부모 부양이라는 부담이 가중되어 또 다른 억압이 존재하기도 한다.

3. 연구대상 및 방법

1) 연구대상

농촌여성과 귀농여성을 구별하여 정확히 규정하기란 쉽지 않다. 농촌에서 태어나 농촌에서 자라고 결혼하여 지금까지 농촌에서 살고 있는 자생적 농촌여성은 과연 몇이나 될까. 극소수의 할머니를 제외하면 실제로 전무하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6] 이러한 맥락에서 본다면 현재 농촌의 젊은 여성은 대부분 귀농여성이며 따라서 귀농여성은 무한정이다. 농촌여성과 귀농여성의 구분을 귀농시기와 귀농 후 여성의 일(농업종사 여부)을 고려한다면 더욱 모호해진다. 귀농 9년차인 사례14는 ‘이제 나도 촌사람이지 뭐’라는 말로 자신의 정체성을 귀농여성보다는 농촌여성에 위치시키는 것에서 알 수 있다. 그러므로 연구 진행을 위해 귀농여성의 범위를 제한할 필요가 있다.

우리나라 귀농은 가족단위 귀농이므로 귀농여성을 귀농가족 내 기혼여성으로 설정하였다. 귀농가족은 모두 정부가 추진하는 귀농정책의 일환인 귀농교육을 수료한 경우로 한정하였다. 귀농교육을 수료하였다함은 전원생활을 지향하는 귀촌과 달리 농업을 생업으로 하는 순수 귀농에 더 가깝다. 또한 청도군은 귀농교육을 수료한 가족을 공식적으로 ‘귀농가족’으로 호명하고 있다. 청도군에서 실시한 2009년 귀농교육 제1기에는 80명이 등록하여 67명이 수료하였으며, 2010년 제2기에는 40명이 등록하여 40명이 수료하였다. 1기에 비해 2기 인원이 줄어든 것은 귀농교육 신청인이 줄어든 것이 아니라 귀농교육의 효율성을 제고하여 등록인원을 제한하였기 때문이다.[7]

연구대상은 2009년과 2010년 경상북도 청도군 농업기술센터에서 귀농교육을 수료한

5) 여성의 입장에서 귀농유형 구분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성지혜(2003)의 “귀농한 가족, 귀농하지 않은 여성”, 「농촌사회」, 23(2)를 참고하기 바람.

6) 강대구(2006)는 신규 농업인력 확보가 농업인력 정책의 중요한 과제라 지적하면서 농업인력 유입은 재촌 전업자나 귀농자가 중심일거라 말한다. 여기서 순수 의미의 재촌 전업자는 농촌의 산업한계로 인해 도시근교의 전업자를 제외하고는 극히 소수이며, 농업의 신규창업자는 귀농자가 대부분이다. 즉, 현재 농촌을 지탱하는 농업노동자는 귀농자인 셈이다.

7) 관계자와의 면접 인터뷰에서 청도의 귀농인구가 많이 늘어나고 있지만, 탈농 또한 증가하고 있다고 하였다. 귀농 혹은 귀농교육 후 탈농하는 농가의 자료는 수집되지 않아 정확한 파악은 어렵다고 하면서 탈농을 체감하고 있다고 하였다. 이에 귀농교육 역시 탈농을 방지하는 측면에서 효과적인 영농기술 보급을 위한 교육실시를 위해 교육인원을 제한하고 있다고 하였다.

귀농가족 내 여성 21명이다. 1기 수료는 11명이며, 2기는 9명이다. 또한 여성이 직접 귀농교육을 수료한 경우가 1기 5명, 2기 2명으로 모두 7명이며, 1기의 2명은 부부가 함께 귀농교육에 참여하였다.

연구대상자 중에서 사례11은 남편과 떨어져 대도시에서 거주하고, 사례7은 청도읍에 위치한 아파트에서 아이들과 함께 생활하고 있다. 이들을 제외한 나머지 19명은 모두 면단위 이하에 거주하고 있다. 이들의 나이는 20대 1명, 30대 5명, 40대 13명, 50대 1명, 60대 1명으로 40대가 주를 이룬다. 학력은 중졸 2명, 고졸 13명, 대졸 5명으로 고졸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귀농 후 농업 작물을 살펴보면 논농사보다는 밭농사가 주를 이루는데 대체로 청도군의 특산물이라 할 수 있는 복숭아와 감이 주요 작물이다.

21명의 연구대상자 중에서 2명은 매우 특이한 사례이므로 소개한다. 이들을 연구대상 범위에 포함시켜야할지 고민하였으나 귀농가족 내 기혼여성의 다양한 삶의 경험을 드러내고자 하는 연구 목적과 이 여성들의 삶 역시 귀농의 현상과 관련하여 매우 중요한 의미를 함축하고 있으므로 연구를 위해 연구대상자에 포함시켰다. 먼저 사례11은 남편의 귀농에도 불구하고 자신은 귀농 의사가 전혀 없으며 귀농을 거부하면서 현재 대도시에서 아이들과 함께 생활하고 있다. 처음에 사례11은 농촌에 살고 있지 않으므로 귀농여성이 아니라는 이유를 들어 면접을 거절했다. 그러나 사례11이 남편의 귀농과는 달리 도시생활을 고집하는 이유도 귀농한 가족의 귀농하지 않은 여성의 삶에 천착하고자 하는 본 연구의 목적에 부합하여 중요한 의미를 지니고 있으므로 사례11을 설득하였다. 그러나 사례11은 면담 내내 자신은 남편의 귀농과는 상관없고 농사일에 대해서는 전혀 모르고 또한 알고 싶지 않으니 농사일에 관한 질문은 하지 말 것을 연구자에게 당부했다. 또 다른 한 명인 사례12는 베트남 이주 여성이다. 베트남에서 농사일을 전혀 해 본적이 없던 사례12는 한국에 시집을 왔고 서울 근교에서 잠시 생활하다가 남편의 귀농을 따라 시골로 내려왔다. 처음 전화통화에서는 작은 목소리와 억양 때문인지 한국말이 많이 서툴다는 느낌에 제대로 알아들을 수 없었으나 재차 이루어진 통화와 사례12의 집에서 이루어진 면접에서는 서로 불편함 없이 한국말로 이야기를 나눌 수 있었다. 사례12는 이제 주민등록증이 있는 한국여성이므로 이주여성으로 구별하여 호명되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고 하였다. 갓난아기와 시부모의 병간호와 농촌의 불편한 대중교통으로 외출이 자유롭지 못했던 사례12는 연구자와의 면담을 매우 기뻐하였으며 면담이 이루어진 날에는 갓난아기를 업고 마을 입구까지 마중을 나와 반겼다. 임신과 출산 전에는 남편을 도와 농사일을 했으나 현재는 육아와 가사 그리고 시부모의 병간호를 전담하고 있다. 사례12는 농사일은 힘들고 돈을 벌기 어렵다는 이유로 아이가 자란 후에도 더 이상 농업에 종사할 의사를 갖고 있지 않았다. 사례12는 베트남에서 우리나라의 고등학교와 유사한 디자인학교를 1년 다닌 경험이 있고 한국으로 시집오기 위해 한국어를 배우는 학원을 다녔다고 한다.

귀농여성 중에서 은퇴 후 귀농에 해당되는 경우는 2명이고, 귀농 년차는 짧게는 2년에서 길게는 9년까지 있다. 귀농교육 대상자를 귀농한 지 5년 이내로 한정하고 있으나 앞서 설명한 바와 같이 귀농교육의 시행이 짧아 귀농한 사람은 누구나 신청 가능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귀농 년차가 긴 사람들이 다수 포함되었다. 사례3과 14 그리고 사례21은 귀농 후 귀농교육을 수료하고 현재 농업 이외의 일을 하면서 텃밭정도 가꾸고 있는 경우이다. 그러나 스스로 자신들은 엄연한 귀농가족이라 지칭했으며 귀농사업자금을 신청하여 운영하고 있다.

아내와 남편의 귀농 전후 직업을 살펴보면 남편의 귀농 전 직업은 생산직과 자영업이 대부분이었다. 귀농 후 남편의 경우는 18명이 현재 농업을 주업으로 갖고 있거나 농업보조자 역할을 수행하고 있고, 1명은 농업에 종사할 의사를 갖고 준비 중에 있으며 나머지 2명은 농업에 종사하고 있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여성의 경우는 귀농 전에는 대부분 주부이며 간혹 남편과 함께 자영업에 종사하거나 비정규 시간제 아르바이트의 일을 하였던 것을 알 수 있다. 귀농 후 여성들은 농사일을 하기 보다는 농업 이외의 새로운 직업을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남성과 달리 농업에 종사하는 여성은 6명이고, 나머지 15명은 현재 농업에 종사하고 있지 않으며 향후에도 농업종사 의지를 갖고 있지 않았다. 이렇듯 하나의 귀농가족임에도 불구하고 아내와 남편은 서로 다른 형태로 농촌에 정착하고 있는 경우가 많으므로 그 과정에서 여성과 남성은 서로 다른 경험을 가질 수밖에 없는 상황에 있다.

(표1) 연구대상 귀농여성의 일반적 특징

번호	나이	학력	귀농 년차	귀농 제안	귀농 교육	가족 관계	귀농 전 직업		귀농 후 직업(작물)	
							아내	남편	아내	남편
1	45	고졸	9년	아내	여성	아들1	슈퍼	슈퍼	농업 (감말랭이)	야채장사 농업 (감)
2	57	중졸	3년	아내	여성	자녀독립	주부	공무원	농업 (감말랭이)	농업 (감말랭이)
3	45	고졸	4년	남편	여성	아들2	주부	유통업	주부	유통업 농산물판매
4	39	고졸	4년	남편	여성	아들2	식당	방앗간	농업 (딸기,축산)	농업 (딸기,축산)
5	42	고졸	3년	아내	남성	아들1	제과점	제과점	할인점 판매직	농업 (논,밭)
6	44	대졸	7년	남편	남성	아들1,딸1 시부모	주부	사무직	학습지 교사	농업 (복숭아, 논,밭)
7	44	고졸	5년	남편	남성	아들1,딸1	주부	사무직	한의원 경리	농업 (복숭아,식초)
8	43	고졸	6년	남편	남성	아들2	주부	생산직	농업 (버섯)	농업 (버섯)
9	43	고졸	8년	남편	남성	아들1,딸1	주부	생산직	버섯공장	농업 (축산,밭)
10	41	고졸	3년	남편	남성	아들2,딸1	주부	생산직	미용실	농업 (논,밭)
11	44	고졸	3년	남편	남성	아들2,딸1	경리직	카센터	경리직	농업 (블루베리)
12	28	베트남 (고졸)	5년	남편	남성	아들1,딸1 시부모	무직	생산직	주부	농업 (논,밭)
13	37	고졸	7년	남편	남성	아들1,딸1	주부	생산직	미용실	농업 (감,복숭아)

번호	나이	학력	귀농 년차	귀농 제안	귀농 교육	가족 관계	귀농 전 직업		귀농 후 직업(작물)	
							아내	남편	아내	남편
14	44	대졸	9년	남편	남성	딸2	주부	건축 자재상	건축 자재상	건축 자재상
15	35	고졸	4년	아내	여성	아들1,딸1 시부모	주부	영업직	정수기 코디	농업 (감)
16	35	고졸	2년	남편	남성	딸1	주부	생선 판매	약국경리	농업 (벼,감)
17	41	대졸	8년	남편	남성	아들1,딸2	공부방	사무직	목욕탕	건물관리 (농업 예정)
18	42	대졸	3년	남편	남성	아들2	경리직	공무원	경리직	농업 (복숭아,감)
19	61	중졸	6년	남편	부부	자녀독립	주부	자영업	농업 (감물)	농업 (감,감물)
20	44	고졸	5년	아내	남성	아들1,딸1 시부모	주부	영업직	농업 (복숭아)	농업 (복숭아)
21	37	대졸	3년	남편	부부	아들2	주부	목수	전원주택 분양	전원주택 사업 및 농업

2) 연구방법

가족단위 귀농은 여성으로 하여금 자신의 의지와는 별개로 가족이라는 이름하에 농촌이주를 수행하도록 한다. 귀농으로 인한 여성의 삶의 변화는 개개인의 다양한 사고와 행위만큼이나 복잡하다. 여성도 남성과 마찬가지로 귀농에 순응하거나 오히려 적극적인가 하면 귀농에 저항하여 끝내 귀농하지 않은 여성 등 다양하다. 귀농에 대한 기대와 실망은 여성과 자신을 둘러싼 가족의 내밀한 이야기로 그 속에는 다양한 개인의 자원과 욕구가 경합하고 있다. 귀농여성을 둘러싼 이러한 중층적 구조는 여성의 삶의 맥락에서 그 의미를 찾을 때 비로소 이해가 가능할 것이다.

이 연구는 귀농지 선택이 여성에게 어떠한 의미인가를 바탕으로 귀농과정의 경험과 여성의 농촌적응 형태를 살펴보는 것이 목적이다. 귀농의 경험에서 여성이 체험하는 일상적인 삶이 연구의 출발이다. 여성의 삶에 근거한 연구의 출발은 기존의 남성 중심적인 사회의 편파성과 왜곡을 줄이고 강한 객관성을 실현할 수 있기 때문이다(하딩, 2009). 질적연구는 행위자의 관점에서 현상을 이해하는 방법이면서 일상생활에 근거하여 어떠한 사실을 당연시하지 않고 비판적으로 검토하는 것이다(Gilgun & Daly & Handel, 1992; Taylor & Bogdan, 1998). 그것은 연구대상이 지니고 있는 모든 것을 가치있는 연구자료로 보며 일반화에 따른 가치중립성보다는 의미를 찾아가는 방법이다. 의미는 해석에 따라 조금씩 달라진다는 점에서 주관적이라 할 수 있다. 과거에 대한 부분적 진실을 담고 있음에도 거기에는 과거의 사실만이 아니라 그것을 구체적인 인간이 '어떻게' 그리고 '왜' 그렇게 경험하고 인식했는가도 담겨 있다. 인간은 저마다의 이야기로 살아가고 있고, 이야기를 풀어내는 활동을 통해 자신을 성찰하고, 또한 이를 기반으로 타인과 소통한다. 개인의 이야기들은 바로 그 주관적인 성격 덕분에 더 가치를 인정받는 것이다(윤택림, 2004).

개인의 경험과 기억에 대한 내용을 구술로 재현, 증언하는 구술사는 연구자 자신이 해석하고자 하는 연구대상의 경험, 견해, 감정 그리고 지식들에 대하여 다룬다. 구술사는 개인의 주관적 경험과 인식을 적극적으로 담아냄으로써 그 강점을 발휘할 수 있기에, 질적 연구는 주관적일수록 가치가 있다는 역설이 성립될 수 있다(윤택림·함한희, 2006). 이러한 증언들은 필연적으로 현재의 사건들에 영향을 받으며 이야기를 재구성한 것이다. 연구자는 화자가 어떤 사건을 포착하고 어떤 사건을 배제하는지를 간파함으로써 화자가 자신의 삶을 어떻게 해석하는가를 알 수 있다. 사회적으로 중요한 사건 또는 역사적 사건이라 할지라도 개인의 생애과정에서 별다른 의미가 없거나 생애 전환의 전기가 되지 않는다면 개인의 이야기에서 배제될 수 있다(윤택림, 2004).

그러므로 귀농여성의 경험세계를 살피고자 심층면접을 통한 질적 연구방법을 선택하였다. 심층면접을 통해 자료를 수집하는 질적 연구방법은 여성의 귀농경험에서 비롯된 문제와 관련하여 보다 깊은 관계적 과정을 탐색하는데 유리하다. 심층면접은 귀농여성의 일상의 삶에서부터 출발하여 귀농과정에서 경험한 것들을 따라간다. 일상성의 탐색은 여성들이 창조하는 패턴과 여성들이 창조하는 의미를 받아들이고, 그것들로부터 배우는 것을 가능하게 해 준다. 지배적인 지위에 있는 남성보다 억압된 지위에 있는 여성들의 삶에 의한 이해는 '강한 객관성'으로 덜 왜곡되고 덜 편파적일 수 있다(하딩, 2009). 이것은 기존자료의 다양성으로 이어져 또 다른 장점이 될 수 있다. 한쪽의 관점은 다른 쪽 관점이 도치된 양상을 취할 수밖에 없다(Hartsock, 1999). 그러므로 남성중심적인 귀농연구에서 귀농여성이 제기하는 전통적 관습과 편견으로부터 해방의 출구는 페미니스트 관점의 해석적 진취성으로 진실의 가능성을 한층 열어줄 수 있다. 귀농연구에서 특히 여성주의적 관점이 요구되는 것은 특별한 의미를 지닌 개인적인 것을 드러내는 것에서 전체적인 공간을 뒤따르는 방식을 추적할 수 있기 때문에 유용하다.

귀농가족의 이해와 농촌적응은 귀농여성의 삶에 대한 이해가 우선되어야 한다. 귀농여성의 경험세계에서 나온 개인의 미시적이고 일상적인 삶을 분석하는 것은 귀농과 관련된 연구 자료의 축적과 귀농과정의 강한 객관적 자료를 제시할 수 있을 것이다. 이로써 농업이 처한 현실과 농촌사회의 변화를 짚어볼 수 있으며 서로 다른 형태의 삶을 살고 있는 다양한 귀농여성에 대한 이해를 도울 것이다.

4. 귀농유형별 여성의 농촌적응 유연성

귀농 적응과정에 대해 기존의 연구는 주로 재배기술이나 운영자금, 토지구입, 노동력 확보, 판매기술, 경영 기술, 농기계 활용 등을 중심으로 조사 연구되었다. 그러나 이러한 영농기술과 관련된 조사 연구로는 여성의 귀농을 설명하기에 적합하지 않다. 왜냐하면 대부분의 여성은 가족의 귀농과 달리 귀농하지 않은 상태로 머물면서 농촌에 적응하기 때문이다. 이 장에서는 귀농유형에 따른 전반적인 여성의 농촌적응과정을 살펴

보기로 한다. 우선 유형에 따른 귀농교육 참여 여부와 농촌적응에 필요한 각종 정보를 어떠한 통로를 거쳐 수집하고 있는지 살펴본다. 그리고 귀농여성의 자녀교육에 대한 인식을 살펴보고 농촌의 교육 실태를 짚어본다. 또한 지방자치단체에게 제공하는 각종 문화혜택에 대해 귀농여성의 접근방식과 이용여부를 살펴본다.

1) 귀농교육과 정보수집

여기서는 유형에 따른 여성의 귀농교육 참여 여부를 살펴보고 여성들은 농촌 적응에 필요한 각종 정보를 어떠한 방법으로 수집하고 있는지 살펴보기로 한다.

① 아내연고형

"나는 친정 동네이니 아는 사람도 많고, 남편은 시골생활이 사실 적성에 맞지도 않고…… 지금 감 말랭이 사업도 내 이름으로 사업신청하고 운영하고 있어. 남편은 여기 살아도 여기를 잘 몰라. 자기 일이 있고…… 연고가 없는 사람이 들어오면 아마 힘들 거야 촌은 워낙 보수적이고 폐쇄적이거든. 그리고 새로운 시책이 나오면 홍보창구가 필요하다고 봐. 공무원들은 절대 나서서 도와주지 않아. 공무원은 일을 벌이기 싫어하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알고 덤벼야 그나마 해주는 거야…… 촌에는 아는 사람이 다 해 먹을 수 있는 곳이다."(사례1)

"귀농에 관한 정보 같은 것은 전혀 없었어요. 사실 처음에 귀농하고는 거리가 있었죠. 그냥 건강이 좀 좋아지도록 공기 좋은 곳에서 살자는 생각이었어요. 촌에 오고 몇 년 있다가 우연히 아는 사람을 통해 귀농교육을 신청하게 되었어요."(사례2)

"집이 팔리는 바람에 갑자기 오게 됐어요…… 농지원부가 있어야 해택을 받을 수 있다고 해서 땅도 좀 사고 그랬어요…… 연금과 의료보험료 해택이 있어요. 처음 우리는 친정 마을 근처에 감식초공장을 하려 했어요. 그런데 제대로 알아 볼 때가 마땅찮아요. 군에 가면 면에서 알아보라 하고, 면에 가면 군에서 알아보라 하고…… 촌은 아직 보수적이고 친인척이나 인맥이 없으면 안돼요. 농촌 생활이나 귀농과 관련된 정보 같은 것은 주로 촌에 살고 있는 친척이나 친구들한테 물어봐요."(사례3)

남편의 연고가 아닌 자신의 고향으로 귀농하였기에 이 유형의 여성들은 자신의 연고를 적극 활용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귀농교육 참여를 살펴보면 한결같이 여성이 교육에 참여한 것을 알 수 있다. 그리고 자신의 연고를 기반으로 정부가 추진하는 귀농 관련 사업을 신청하였고 두 사례는 청도군의 핵심 품목인 감말랭이 사업을 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여성들은 공무원들과 자주 접할 수밖에 없는데 여성들은 대체로 공무원들의 안일한 태도에 대해 높은 불만을 나타냈다. 정부의 시책이 일반 농민들에게까지 전달되기가 쉽지 않은데 이는 '공무원들이 자기들 손에서 해결해버리거나, 아는 사람에게

혜택을 주거나, 없던 일로 해 버리는' 경우가 더러 있기 때문이라 한다. 그러므로 정부의 새로운 시책에 대한 정책 홍보창구가 필요하다고 하였다. 도한 귀농가족의 농촌적응에 도움을 줄 수 있는 '귀농지도사' 제도가 마련되어야 한다고 제안하였으며 특히 노인층이 다수인 농촌에서 이제는 공무원들도 찾아가는 서비스가 필요한 시점이라 지적하였다.

농민을 우선하는 농촌의 정책이 실질적으로 농민들에게 혜택이 돌아가지 않는 경우도 발생하고 있다. 사례3의 경우 농지원부는 있으나 타인에게 임대하였고 자신은 현재 텃밭 이외의 농사를 짓고 있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농지원부를 갖고 있기 때문에 농민에게 돌아가는 세제혜택을 받는가하면, 사례 2는 은퇴 후 귀농으로 현재 농업에 종사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농지원부가 없기 때문에 농민에게 돌아가는 세제혜택을 전혀 받지 못하고 있는 경우이다. 이러한 현상은 정부 시책과 사업을 추진하는 현장사이에 상호연계가 미흡하기 때문에 비롯된다고 할 수 있다. 이 유형의 여성들은 자신의 연고를 적극 활용하며 농촌생활에 필요한 정보역시 연고를 통해 얻고 있음을 알 수 있다.

② 부부연고형

"귀농정보 제공이나 상담은 꾸준히 필요해요. 귀농한 사람을 끝까지 책임지고 상담해주고 도와주는 그런 뭐가 필요해요. 귀농교육을 받아봤지만, 그런 교육은 대체로 남자들이 받아야 하는 것들이 많아요. 여자들에게 필요한 교육은 그다지 많지 않아요. 남자들은 아무래도 자유롭게 나다니기 때문에 많은 것을 듣고 하지만, 여자들은 어떤 행정적인 일이나 지원 가능한 것들을 전혀 알 길이 없어요. 그런 것들을 일목요연하게 알 수 있는 길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여자들과 관련된 정보를 언제 어디서든지 쉽게 알아볼 수 있는 그런 것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제가 그래도 촌에 좀 더 오래 살고 농사도 짓고 있고 해서 귀농 1기 여자부회장을 맡고 있는데, 같이 교육 받은 여자 분들이 나한테 이것저것 물어보는데 사실 나도 몰라요. 그런 궁금한 것들을 어디서 물어봐야 하는지도 몰라요. 서로서로 주고받는 정보가 전부라고 보면 되요. 문제는 그런 정보들이 정확하지 않다는 거고 그래서 더 헷갈리는 거죠."(사례4)

"결혼하기 전에 군청에서 근무했는데, 그때 알던 사람들이 아직 많이 있어요…… 그리고 궁금한 것이 있으면 친정이나 친구들한테 알아보던가 해요. 그런데 그냥 이렇게 사는데 알아볼게 뭐 있나요? 군에서 하는 행사나 그런 것 있으면 읍에 사니까 현수막 같은 게 있어 보고 알아요."(사례7)

사례4는 이 유형의 여성 중에서 유일하게 귀농교육에 참여하였고, 귀농 1기 부회장이며, 사례 여성 중에서 유일한 여성영농후계자이다. 이러한 배경의 사례4는 다른 여성과 달리 농업이나 농촌사회 그리고 농업정책에 대해 남다른 관심과 열정을 보였다. 사례4는 귀농인을 위한 정확한 정보제공과 꾸준한 상담활동의 필요성을 지적하였다. 그러나 역설적이게도 사례4에게 귀농교육은 큰 도움이 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그것은 귀농교육 프로그램이 각종 작물에 대한 기초지식을 바탕으로 한 영농위주의 교육이었기에 귀

농인이 선택한 작물과 차이가 있었으며, 영농에 대한 관심보다는 농촌 적응이 시급했던 여성의 요구에도 미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므로 귀농교육 프로그램이 다양화되어 농작물 재배기술에서 귀농인의 선택이 가능할 수 있어야 하며 여성의 농촌적응에 필요한 프로그램이 추가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사례4는 농촌의 모든 시책은 교육과 연결되는 관계로 적절한 시기에 교육을 받아야만 지원 사업 선정에서 우위를 점할 수 있기 때문에 '농사를 지으려면 어쩔 수 없이 교육을' 받아야 한다고 하였다. 그것은 농민을 위한 교육이 필요에 의한 선택이 아니라 시책에 의해 강제로 추진되고 있어 교육의 효율화를 담보하기 어렵게 만들고 있다.

이 유형의 여성들은 남편의 연고는 물론 자신의 연고임에도 남성과는 다른 환경에 있다고 할 수 있다. 즉, '자유롭게 나 다니는' 귀농남성에 비해 귀농여성들은 '어디서 물어봐야 하는지도' 모르는 현실이며 정확하지 않은 정보교환으로 '더 헷갈리는' 상황에 노출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므로 귀농여성이 궁금한 것을 언제든지 질문할 수 있는 '정보제공창구'가 꼭 필요하나는 사례4의 요구에 공감할 수 있다고 하겠다. 농업에 종사하는 사례 4를 제외한 세 명의 여성은 귀농교육이나 농업에 전혀 관심을 갖고 있지 않았으며 농업정책이나 지원책의 변화에도 무관심으로 일관했다. 그리고 농촌 생활에 필요한 정보는 귀농지가 자신의 연고지에 해당하므로 친정이나 친구 등 자신의 연고를 통해 수집하면서 이에 대한 불편을 느끼고 있지 않았다.

③ 남편연고형

"남편이 알아서 하기 때문에 나는 잘 몰라요. 궁금한 것도 별로 없지만, 내가 어딜 가서 알아보겠어요? 전부 모르는 사람뿐인데……." (사례9)

"우리 집 애가 셋인데, 어느 날 동네 형님이 일주일에 하루 정도 무료로 아기를 돌봐주는 뭔가 있다고 군청이나 면사무소에 알아보하고 했어요. 아는 사람한테 물어보니 그런 제도가 있다고 했어요. 그래서 신청을 했어요. 사람들이 정보를 잘 몰라요. 누가 그렇다 카더라 하는 말은 듣는데, 구체적으로 어떻다는 건 다들 잘 몰라요. 내가 작년부터 미용실을 하고 있으니 사람들이 나한테 물어보는데, 내가 뭘 알겠어요."(사례10)

"일 년 내내 면사무소 갈 일이 뭐 있나요? 남편이 다 알아서 해요. 살아가면서 별로 궁금한 게 없어요."(사례13)

"제대로 된 정보를 어디서 들을 수 있는지 알지 못해요…… 귀농교육은 저와 친하게 지내는 애기 엄마가 우리보다 먼저 귀농해서 살고 있어요. 그 엄마가 그런 교육이 있어 자기는 신천하다고 나더러 할 생각 없느냐고 했어요. 나도 뭔가 도움이 될까 해서 제가 신청했는데, 귀농을 하면 군에서 월 해준다는 말은 많은데 알 수 있는 방법이 없고 해서…… 사람도 사귀고 정보도 얻지 않을까 해서 했는데, 별 도움은 안 되고 있어요."(사례15)

“귀농준비도 없이 무작정 왔으니 힘들었지요…… 남편은 그저 어른들이 살고 있는 고향이라 내려오기만 하면 어찌 되는 줄 알았나 봐요. 남편도 나도 어디가서 뭘 물어봐야 하는 건지도 잘 모르고, 그래서 남편은 뭐든 형님한테 물어봐요…… 여자들도 서로 사귈 수 있는 기회가 있으면 정보도 교환할 수 있는데 그런 게 전혀 없어요. 그냥 세월 따라 자연스럽게 한 사람씩 알아가고 모르는 것도 세월 따라 하나씩 알게 되는 그런 곳이 촌 인 것 같아요.”(사례16)

이 유형의 여성 11명 중에서는 사례15 혼자만이 귀농교육에 참여 하였다. 사례15는 먼저 귀농한 지인을 통해 귀농교육을 접하게 되었고 ‘뭔가 도움이 될까 해서’ 신청하게 되었다고 한다. 그러나 귀농교육은 다른 사람들과 교류의 장이었다는 것 외에는 농업에 종사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다른 직접적인 도움은 되지 않았다고 한다. 또한 사례15는 귀농한 후에 작은 아이를 낳았으나 정보 부족으로 인해 청도군의 출생 관련 지원혜택을 받을 수 없었다고 말하면서 그러한 제도의 홍보가 당사자에게까지 전달되지 않음을 분개하였다. 사례15의 경우 ‘남편연고형’의 다른 여성과는 달리 공공기관의 행정적 절차와 정부시책에 대해 높은 관심을 보였는데 이는 현재 농업에 종사하거나 귀농교육을 받은 여성에게서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이라 할 수 있다. 이에 반해 사례10은 농가도우미 지원사업의 혜택을 받고 있었다. 사례10 역시 공적기관의 홍보에 의한 정보수집이 아니라 미용실에 찾아오시는 ‘동네 형님’을 통해서 그러한 사업내용을 들을 수 있었다고 한다. 이 두 사례를 제외한 나머지 여성들의 대부분은 농촌 적은에 필요한 자신의 정체성을 농촌 여성에 귀속시키지 않고 일정한 거리를 유지하고 있다는 것에서 원인을 찾을 수 있다. 이는 귀농하였으나 농업에 종사하지 않기 때문에 주변적 위치에 스스로를 가둠으로써 정보의 부족에도 적극적인 자세를 보일 수 없는 상황이라 할 수 있다.

이러한 정보수집에 대한 소극적인 자세는 남편의 고향이지만 자신에게는 무연고인 낯선 환경과 함께 시댁이라는 추가적이 시선이 여성의 외부활동을 제약하기 때문으로 해석된다. 그러므로 이들은 서로의 입소문을 통해 전달되는 ‘누가 그렇다 카더라’라는 부정확한 정보에 의존하거나 전적으로 남편에게 의지하면서 남편을 통한 제한된 정보만을 접하고 있을 뿐이다. 이 유형의 남편들은 ‘아내연고형’의 여성들과 유사한 환경에서 자신들의 연고를 기반으로 폭넓은 교류를 가지고 있었다. 농업에 있어서도 적극적인 자세로 각종 교육을 통해 ‘부농의 꿈’을 실현할 수 있다는 자신감과 희망을 갖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이에 반해 여성은 그런 남편에 대해 반신반의하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이는 농촌사회의 무성한 소문과 이를 확인할 길이 없는 여성의 불안에서 기인한다고 생각된다. 이처럼 귀농여성들이 무지의 땅에서 ‘세월 따라 자연스럽게’ 익혀가도록 내버려 둘 것이 아니라 여성의 농촌적응에 필요한 다각적인 방법이 모색되어야 할 것이다.

④ 무 연고형

“남편과 함께 귀농교육을 받았어요. 크게 할 일도 없고 시간 내기도 좋고 또 뭘 배울

수 있는 것도 좋잖아요. 남편과 같이 교육 받으러 다니는 것이 나들이 같이 즐거웠어요."(사례19)

"귀농교육은 저는 잘 모르겠고 복숭아 아카데미는 큰 도움이 되고 있어요. 복숭아 재배 기술을 가르쳐주고 그리고 일단 농사에 희망을 갖게 만들어요. 젊은 층의 귀농인이 많아지려면 귀농정보제공과 귀농한 사람을 대상으로 상담이 꾸준히 이뤄져야 해요. 다들 제대로 모르는 사람들뿐이에요."(사례20)

"남편이 인터넷으로 귀농을 알아 봤나 봐요. 이것저것 알아보고…… 남편과 함께 귀농교육을 받았는데, 사실 도움이 되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남편만 교육을 받으려다가 나도 별 하는 일도 없고, 또 여가가 귀농교육을 받으면 무슨 혜택이 있다고 해서 받았는데 그걸로 혜택을 본 거는 지금까지는 없어요. 그래도 새로운 사람을 사귈 수 있어서 좋아요."(사례21)

부부가 함께 귀농교육을 수료한 경우는 '무 연고형'에서만 찾을 수 있다. 사례20은 귀농교육에 참가하지 않았으나 현재 연구대상자 중에서는 유일하게 부부가 함께 농업기술센터에서 운영하는 '복숭아아카데미' 과정에 참여하고 있다. 사례20에게 '복숭아아카데미'는 영농기술뿐 아니라 복숭아 아카데미에 나가지 않으면 '뭘 어디서 물어'볼 수 없는 것도 물어볼 수 있는 생활전반에 걸친 정보수집의 수단으로 이용되기도 한다. 사례21의 경우는 '여자가 교육을 받으면 무슨 혜택이 있다고 해서' 남편과 함께 귀농교육을 받았으나 현재 농업을 주업으로 하지 않기 때문에 귀농교육만으로 혜택을 본 것은 없다고 한다. 사례21의 부부는 회원수가 2천명이 넘는 '전원주택이야기'라는 귀농관련 인터넷카페를 운영하고 있으면서 주말농장 체험행사를 추진하는 등 귀농인은 물론 귀농희망자를 대상으로 상담역할도 하고 있다고 한다.

사례19 역시 부부가 함께 귀농교육을 수료한 경우인데 은퇴 후 여유로운 농촌생활에서 귀농교육은 '남편과의 나들이'로 해석한다. 사례19의 남편이 청도군 귀농 1기 회장직을 맡고 있기 때문에 사례19는 귀농한 사람들과의 교류가 빈번한 편이었다. 사례19는 귀농가족의 정착에는 '무조건 여자들이 집에서 잘해야 한다'는 생각을 갖고 있었다. 이는 귀농가족 내 여성의 역할에 대한 중요보다는 성 역할에 대한 강조로서 귀농 실패의 원인을 여성에게 전가하고 있는 성 불평등한 현실을 간접적으로 보여준다고 할 수 있다. 다른 유형에서는 남편이나 아내 중 어느 한쪽의 연고가 있었지만 이 유형은 부부 모두 연고가 없으므로 다른 유형에 비해 인터넷이나 공적기관을 통한 정보수집이 대부분이었다. 이들은 적극적으로 귀농정보를 찾고, 귀농관련 행사에 참여하면서 귀농교육의 중요성에 대해서도 공감하고 있다.

귀농유형에 따라 귀농교육의 수료여부를 살펴보면 (표2)와 같다. '아내연고형'은 여성이, '부부연고형'과 '남편연고형'은 남편이, '무 연고형'은 부부가 함께 귀농교육을 받는 경향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2) 귀농유형별 귀농교육 참가 및 정보수집 통로

(단위: 명)

귀농유형	인원	귀농교육			농촌생활 정보수집 주요 통로			
		아내	남편	부부	관공서	인터넷	귀농선배	시댁, 친구
아내연고형	3	3	-	-	-	-	-	3
부부연고형	4	1	3	-	-	-	1	3
남편연고형	11	1	10	-	-	-	-	11
무 연고형	3	-	1	2	2	1	-	-
합계	21	5	14	2	2	1	1	17

‘아내연고형’의 여성이 모두 귀농교육에 참여한 것은 이 유형의 남편들이 농업외 직업을 병행하면서 아내의 농업보조역할에 머물러 있는 것과 연관이 있으나 귀농지가 여성의 연고이므로 여성 스스로 이를 적극 활용하고 있기 때문으로 해석된다. ‘남편연고형’의 경우 귀농교육 참여가 여성보다 훨씬 높은 것은 ‘아내연고형’과 대비되어 설명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부부연고형’의 경우 남편의 연고이자 여성의 연고임에도 불구하고 여성의 귀농교육 참여가 낮은 것은 원하지 않은 귀농에 대한 여성의 원론적 불만과 농업에 종사할 의사가 전혀 없기 때문에 농업에 대한 무관심한 것이 그 이유라 할 수 있다. 또한 ‘부부연고형’의 경우 여성의 연고는 여성의 귀농적응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기도 하는데 이는 농촌사회에 팽배한 ‘바깥’과 ‘안’에 대한 인식이 여성에게 딸보다는 며느리의 입장을 우선하도록 요구하기 때문이다. 그것은 곧 여성의 대외적 활동을 차단하는 기제로 작용한다. 부부가 함께 귀농교육을 수료한 ‘무 연고형’의 경우는 연고에 따른 지지기반이 전혀 없기 때문에 농촌사회의 적응에 부부 모두 적극적으로 임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자신의 연고를 정보수집의 주 통로로 이용하는 다른 유형에 비해 이들은 부부 모두 연고가 없으므로 농촌생활에 필요한 정보수집에서도 관공서나 인터넷을 주로 활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전체적으로 귀농적응에 필요한 정보는 주변사람들을 통해 얻고 있었는데 이는 강대구(2006)의 연구에서 영농문제해결과 관련하여 관련기관이나 전문가의 상담 또는 교육에 의한 것이기보다는 마을사람들에 의한 상담이나 지도가 훨씬 높게 나타난 것과 유사한 결과라 할 수 있다.

귀농교육에 참여한 7명의 여성들은 귀농교육으로 인해 인적교류를 넓힐 수 있었다는 것을 제외하면 자신의 귀농적응에 별다른 도움이 되지 않았다고 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귀농교육을 받았거나 농업에 직접 참여한 여성들은 농업정책이나 영농기술교육 등 농업과 관련하여 한결같이 높은 관심을 보였다. 그것은 교육을 통해 농업의 실상을 파악함으로써 농촌사회가 안고 있는 문제점에 대한 여성들의 깊은 고민을 반영한다고 하겠다. 이에 반해 귀농교육을 받지 않았거나 현재 농업에 참여하지 않은 여성들은 귀농 후 관련기관의 출입을 한 번도 하지 않은 경우가 재부분이며 이들은 농촌에 살고 있지만 농촌과 농업에 대해 줄곧 무관심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러므로 농업은 물론이고 농촌생활에 대한 각종 정보 수집에서 소극적인 자세를 보이고 그에 대한 정보 제한으로 귀농가족의 여성 고립이 심화될 수밖에 없는 상황에 이른다고 할 수 있다.

그러므로 귀농인의 안정적 정착을 위해서는 귀농가족에 대한 꾸준한 상담활동이 우선되어야 하고, 농촌생활에 필요한 정보를 정확하게 제공받을 수 있는 시스템이 요구되며 정부의 시책에 대한 홍보창구가 필요하다고 하겠다.

2) 자녀교육과 문화생활

귀농인의 농촌 적응에 중요한 요인으로 문화생활을 들 수 있다(강대구: 2006; 박공주: 2006; 임혜영: 1999). 원하지 않은 귀농을 수행한 여성의 경우에는 농촌에서의 자녀교육과 문화생활은 특히 중요한 요인이다. 그것은 여성의 귀농에 대한 주변사람들의 반대이유인 낙후된 농촌시설과 부족한 문화생활과 관련성이 있다고 할 수 있겠다. 이와 함께 마을과 떨어져 신축되는 귀농가족의 주택이 여성의 농촌 적응에 미치는 영향도 함께 알아보기로 한다.

① 아내연고형

"우리가 친정집에서 살다보니 우리 손님하고 친정집 손님하고 암튼 손님이 많이 와. 그래서 내 생활이 거의 없어. 그래도 친정이니까 견디지, 시댁 같았으면 아마 못 견딜 거야…… 남편도 그런 것 어떨 때는 불편해 하고 있어. 그래서 남편 눈치를 보고 있지. 문화생활 같은 건 도시보다 시간을 더 낳이 투자해야 한다는 거야. 먹고 살기도 어려운데 문화생활은 무슨…… 뭐 생필품이라던가 그런 것을 사는 건 좀 불편하지만, 그래도 촌은 맘 편하게 살 수 있는 것 같아."(사례1)

"신토불이를 먹을 수 있어 좋다고 며느리가 말해요. 농촌이라 하지만 농촌이라는 생각이 잘 안들어요. 촌에는 자가용만 있으면 되는 것 같아요. 우리 동네는 버스가 하루에 두 번 들어왔다 나가거든요. 그리고 잘 찾아보면 청도는 은근히 문화혜택을 많이 누릴 수 있어요. 사람들이 많지 않으니 뭘 하든 기다릴 필요가 없는 곳이 촌이잖아요."(사례2)

"작은 아들은 우리 동네에 또래 친구라고는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늘 혼자 있어야 해요. 친구들이 한두 명이라도 있으면 좋겠는데…… 작은 애 생각하면 도시로 다시 나가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애가 점점 더 소심해지고 내성적으로 변하는 것 같아요…… 대구와 가깝고 공기도 좋은 건 좋은데, 너무 외로워요. 적막하고 지겨울 때가 있어요. 촌에는 7시만 되면 마트 문도 다 닫아 버려요. 문화혜택이라곤 하나도 없어요. 뭐라 딱 꼬집어 말할 수는 없는데 그냥 여기가 불편해요."(사례3)

귀농가족이 귀농지에 주택을 신축할 경우 대체로 마을의 중심에서 떨어진 곳을 선호하는 경향이 있다. 그것은 주변의 자연환경을 우선 고려했기 때문이지만 기존의 택지보다 준농지를 구입하여 용도변경을 할 경우 비용이 절감되기 때문이기도 한다. 사례3 역기 마을과는 동떨어진 들판에 주택을 신축하였다. 주변의 경치는 아름다우나 단점이 있다면 봄부터 가을까지 집안에 불을 켜기 곤란하다는 것이다. 사례3의 이야기처럼 아

무리 방충망을 둘러놓아도 불을 켜고 창문을 열어놓으면 벌레들이 뚫고 들어와 집이 순식간에 벌레천국이 되버린다는 것이다. 이것은 벌레에 익숙하지 않은 귀농가족이 공통으로 겪는 것으로 가사노동을 담당하는 여성의 농촌적응에 있어 장애요인이라 할 수 있다.

또한 사례3이 말한 것처럼 마을에 자녀 또래가 한 명도 없다는 것은 농촌사회 젊은 층의 부재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것으로 비단 사례 3의 경우에만 해당되는 것은 아니라고 할 수 있다. 청도군의 출생률이 2004년 402명에서 2008년에는 190명으로 현저히 줄어든 것에 비해 사망률은 2004년 628명에서 2008년에는 585명으로 큰 차이를 보이고 있지 않다(청도군, 2010). 사망률의 변화가 거의 없는 것은 농촌의 급격한 노령화로 설명될 수 있다. 출생률이 낮은 것은 한국사회 전체의 저출산의 영향이라기보다는 출산 가능한 젊은 층의 부재가 더 큰 원인으로 파악될 수 있다. 그러므로 사례3의 경우는 농촌마을에서 흔히 볼 수 있는 현상이라 할 수 있다.

이 유형의 여성들은 대체도 자신의 문화생활에 그다지 큰 비중을 두지 않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들의 연령이 주로 청소년 자녀를 둔 것에서 한 원인을 찾을 수 있는데 자신의 문화생활보다 자녀교육을 우선시하기 때문이라 할 수 있다. 또한 자신의 연고이지만 남편에게는 무연고이므로 남편에 대한 배려가 자신에게 필요한 문화생활이나 여가활동의 단절을 수반하는 것도 하나의 원인이라 할 수 있다. 사례2는 도시에 비해 농촌이 문화적 혜택을 덜 누린다고 생각하는 것은 농촌에 대한 고정관념에 불과하며 변화되고 있는 농촌을 제대로 볼 줄 모르는 편협한 인식의 결과이며 실제로는 그렇지 않다고 하였다.

② 부부연고형

"문화센터에 에어로빅을 배우러 다닌 적이 한 번 있어요. 알아보니 문화센터에는 시간이 딱 정해져 있어요. 대부분 3월에 시작해서 6월이나 7월에 마치고 또 가을학기에 시작하고 그래요. 우리 같이 농사짓는 사람하고는 맞지 않아요. 농사철이 겹쳐서 몇 번 배우러 가고 나면 또 못 가게 되요. 그것 한 번 배우러 다니다 그만 두고는 아예 알아보지도 않아요. 또 몇 번 하다가 못 할거니까요…… 그런 것은 읍에 사는 노는 아지매(아주머니)들이 편하게 배우러 다니는 곳이에요."(사례4)

"아무래도 시골은 애들 교육이나 문화혜택이 전혀 없다고 보면 되요. 특히 애들 교육은 많이 차이가 나요. 시설도 그렇고 프로그램도 그렇고. 시골에서는 병설유치원이 교육은 거의 없다고 보면 되요. 그저 애들 놀이방이나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도시하고는 비교가 안 되지요…… 여성회관이나 문화센터는 한 번도 이용해 보지 않았어요. 시간도 없고, 일단 교통이 안 좋아요."(사례5)

"도시는 뭐든 선택을 할 수 있다는 거소, 시골은 선택이 불가능하다는 것이 차이에요. 시간 내기가 어려워요. 시어른과 함께 살고 있으니 더 그래요. 여자들이 야밤에 어딜 돌아다니느냐고, 자주 나가면 다른 사람들 입에 오르내려요…… 우리 동네는 버스

가 하루에 두 번 들어왔다 나가요. 그것 못타면 한 시간 넘게 걸어 나가서 차를 타야 해요. 촌에는 여자들이 운전을 할 줄 알고 자기 차가 있어야 해요. 아니면 감옥이에요……”(사례6)

“문화생활은 하나도 없어요. 어른들 알면 싫어하실 거고. 그래서 알아보지도 않았어요. 나는 면허증이 있지만 운전은 할 줄 몰라요. 내가 운전을 할 줄 알면 시댁에 더 자주 가야 할 거예요…… 그래서 사실 운전 배우기가 무서워요.”(사례 7).

농촌과 도시의 차이는 우선 가능한 선택의 차이에서 비롯된다고 할 수 있다. 어린 아이를 가진 부모는 병원을 선택을 할 수 없고, 학생 자녀가 있는 부모는 학원을 선택할 수 없고, 생필품을 사려해도 마트를 선택할 수 없는 곳이 농촌이라 할 수 있다. 그것은 필요한 것들이 대체로 근처에 없거나 있다면 하나이기 때문이다. 선택이 필요하다면 시간과 경비를 투자하여 인근 도시로 나가거나 최소한 읍내까지 나가야 한다. 다음은 교통의 차이라 할 수 있다. 농촌인구의 급격한 감소는 수익성을 고려하는 대중교통의 감소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 그러므로 시내버스나 지하철의 편리한 대중교통에 익숙한 도시출신의 귀농여성이 1시간 넘게 걸어서 목적지에 도착하던가 아니면 하루에 두 번 왕 복하는 대중교통에 의지해 생활해야 하는 불편함은 당연하다고 할 수 있다. 그래서 귀농여성에게 운전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로 이해되고 있다.

이 유형의 여성 중에서 지자체에서 운영하는 여성문화 프로그램 이용자는 사례4 혼자이다. 사례4 외에는 어떤 프로그램이 있는지, 어떻게 이용하는지 전혀 알지 못했다. 간혹 청도군 여성회관의 위치는 물론이고 존재여부 조차 제대로 알지 못하는 경우도 있었다. 농촌여성을 위한 프로그램이 거리의 제한과 한정된 여성만이 활용할 수 있다는 것은 본래의 취지에 부합되지 않다고 본다. 그러므로 이에 대한 공공기관의 홍보와 정보 제공이 운선되어야 할 것이다. 그리고 여성회관의 문화강좌가 현재와 같은 개강시기가 지속된다면 농업에 종사하는 여성은 농번기와 맞물려 더욱 이용하기 어려울 수밖에 없다. 개강시기의 유동성과 교통편 그리고 어린 자녀가 있는 여성에 대한 등 다양화된 프로그램이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③ 남편연고형

“문화센터요? 한 번도 이용해 본 적이 없어요. 여유가 없어요. 먹고살기도 어려운데…… 알아보지도 않았어요. 알아볼만한데도 없고. 또 알고 있다고 해서 못해요. 여자가 나돌아 다니면 깨진다고 시어머니는 사흘이 멀다하고 말씀하시는데…… 촌에는 집 나간 여자들이 더러 많아요…… 젊은 사람이 몇 집 안 되니 금방 눈에 띄고 서로 잘 알잖아요. 그래서 아마 더 그럴지도 몰라요. 그런 것 있잖아요. 내 며느리는 얌전하게 살림 잘 사는 그런 거 동네 자랑하고 싶은 거”(사례9)

“외출은 한 달에 세 번 정도 나가요. 시장도 가고 병원도 가고 청도에 사는 친구도 만나요. 결혼하고 작은 애기가 없을 때는 청도에 한글 공부방에 나갔는데 지금은 애기

가 어려서 못 나가요. 결혼하고 베트남에 한 번 갔다 왔어요. 내가 시부모님 잘 모신다고 은행에서 상을 받았어요. 거기서 경비를 다 내줘서 베트남에 갔다 왔어요. 그래도 남편이 돈 많이 썼어요."(사례12)

"눈 뜨면 들판이나 산뿐이에요. 난 시골생활이 싫어요. 맨날 늙은 할머니들만 보는 것도 질렸어요…… 시골에는 차가 필수에요. 기동력마저 없다면 창살없는 감옥이나 마찬가지에요. 문화센터나 그런 곳은 처음 이사 와서 막 알아보고 몇 번 가봤어요. 그런 곳은 있는 집 여자들이나 편한 여자들이 오는 곳이에요. 그래서 난 안가요. 자존심이 상해요. 촌은 좁아서 누구누구 집하면 딱 답이 나오잖아요. 그리고 누구 집 며느리 자주 나다니더라 하고 소문이 나요. 어른들은 여자들은 그저 집에서 남편하고 자식새끼 챙기며 살길바래요. 외식도 마음대로 못해요. 누구 집 며느리 돈 많이 쓰더라 하고 소문이 나요. 촌에 할머니들은 모였다 하면 남의 이야길 해요. 대체로 누구 집 며느리는 시부모한테 잘 한다더라, 누구 집 며느리는 지가 어른한테 그래가 되나 하면서 남의 일에 핏대 세우며 얘길해요."(사례13)

"시골의 낭만은 도시에 있을 때 낭만이지, 일단 내려와서 현실이 되면 사실은 별로인 것 같아요. 나는 여기가 별로 만족스럽지는 않아요. 여름의 뜨거운 햇볕이 싫구요. 젊은 사람이 별로 없는 것도 싫어요. 옆집, 앞집 모두 할머니들뿐이잖아요. 친구가 없는 것도 싫고…… 우리 나이에 친구를 새로 사귄다는 것도 쉽지 않아요. 그럴 기회도 없구요…… 여성회관이나 문화센터 같은 곳은 한 번도 이용해 보지 않았어요. 나는 촌에 와서 외출을 거의 하지 않아요. 아는 사람이 없으니…… 애들 교육도 문제지요. 가르치고 싶어도 마땅히 배울 데가 없어요. 시골로 내려오고 나서 사실 애들 교육은 반 포기해야 해요. 그나마 딸이라 고만고만하게 해서 대학가고 시집보낼 생각이에요. 만약 아들이었으면 어찌했을지 몰라요……"(사례14)

"문화센터에서 뭘 배운다던가 문화생활 같은 거는 나하고 거리가 먼 얘기죠. 뭘 가르쳐주는지 알아보지도 않았어요. 알았다 해도 나는 못가요…… 친구들이 사는 거 어떠냐고 물으면 나는 감옥생활이라고 했어요. 차가 없을 때는 감옥 중에서도 독방이었어요…… 저 같은 생활은 안 해본 사람은 이해하기 힘들거예요. 지금은 차가 있으니 조금 넓은 감옥이라고 보면 되요……"(사례8)

"촌에서 시어른 옆에 살면 딱히 돈 벌러 가는 게 아니면 여자들이 돌아다니는 것을 싫어해요…… 도시보다 시골이 애들 사교육이 적다는 것은 좋아요. 이건 또 나중에 애들한테 마이너스가 될 수도 있지요……"(사례17)

"아무래도 시골이라 애들 교육이 제일 큰 문제지요. 촌은 일단…… 읍만 해도 괜찮은데 여기는 고를 게 없어요. 그런 면이 많이 불편해요. 학교도 학생 수가 워낙 작아서 경쟁이 안 되고. 가끔 만나는 친구 애들하고 우리 애들 비교해 보면 답답하죠."(사례18)

자신의 의지보다는 어쩔 수 없이 낯선 환경으로 생활의 터전을 옮긴 여성의 적응과정은 어떠할까. 이 유형의 여성에게 농촌에 적응하는 과정이 어떠냐고 묻는다면 이들은 '세월 따라' 적응한다고 한결같이 말할 것이다. '아내연고형'과 '부부연고형'의 여성이 자신의 연고를 활용하여 상대적으로 좀 더 빠르고 쉽게 농촌에 적응한다고 가정한다면, 그리로 '무 연고형' 여성이 적극적으로 농촌적응 의지를 보인다고 가정한다면, '남편연고형' 여성은 무연고와 시댁동네라는 장막 속에 고립된 존재라 할 수 있으며 가부장적인 주변 환경은 장막을 벗어나려는 의지의 표출마저 불가하게 만든다고 할 수 있다.

여성들의 자녀교육에 대해 살펴보면 두 가지 입장이 충돌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학생 수가 적은 것이 경쟁력을 잃어 아이의 발전을 저해한다는 단점이 있는가 하면 오히려 적은 학생 수로 인해 다양한 체험을 할 수 있다는 것이 장점이 되기도 한다. 이들은 대체로 사교육을 시키지 않고 학교 프로그램을 이용하는 경우가 매우 높았다. 그러나 공교육에 대한 신뢰는 높지 않았으며 사교육비가 절약되는 대신 아이의 장래를 불안해하기도 하였다.

여성들의 문화센터 이용은 매우 저조했다. 대부분의 경우 여성회관의 존재 여부를 알지 못했으며 위치 또한 전혀 알지 못했다. '남편연고형'의 여성은 귀농지역의 지리적 조건에 대해 아는 바가 없으므로 연구자가 여성회관이 대략 어디쯤이라 얘기했으나 귀농 3년차인 여성도 제대로 알지 못했다. 만약 귀농여성을 대상으로 청도투어 프로그램을 실시한다면 '남편 연고형'의 여성은 자신의 귀농지에 대해 좀 더 익힐 수 있을 것이며 청도군의 귀농인 안정적 정착의도에도 부합될 것이다.

④ 무 연고형

"여성문화센터는 한 번도 이용해보지 않았어요. 알아 봤지만 시간이 맞지 않아요. 거리도 멀구요. 우리 집은 농사짓는데 농사철과 맞지 않구요. 나와는 다른 사람이 하는 것 같아요. 문화센터 같은 것도 애들하고 같이 할 수 있는 그런 것이 있으면 애들도 친해지고 어른들은 그 시간에 또 다른 뭘 배우면서 서로 알게 되고 좋은 것 같아요."(사례20)

"우리는 아직 애들이 어리기 때문에 애들 교육이 가장 큰 문제에요. 시골은 애들이 별로 없어요. 큰 애가 다니는 초등학교가 폐교가 되는 바람에 다른 학교로 옮기게 됐어요. 촌에는 사교육비는 들지 않아요. 학교에서 이것저것 다 배워주고 있어요. 동네에 또래 친구가 하나도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놀러가는 것도 거의 없어요. 그게 문제에요. 젊은 층이 좀 있어야 하는데…… 저도 차가 없을 때가 있었어요. 하루하루 스트레스였죠. 애들 아이스크림을 한 번 사러 가는 것도 차를 타고 10분은 가야 해요."(사례21)

이 유형의 여성 역시 자녀 교육은 전적으로 공교육에 의존하고 있었다. 사례21의 경우는 아이들이 다니던 초등학교가 폐교되었고 먼 거리까지 통학할 수밖에 없게 되자 통학버스를 제공받을 수 있었다고 한다. 그리고 폐교된 학생을 위해 교육청에서 학생들의 졸업까지 급식비 전체를 지원하고 있다고 하였다. 이 유형 역시 문화강좌를 대체로 이용하지 않고 있었는데 그것은 거리적 제약과 불편한 교통 그리고 어린 자녀를 보

살펴야 하기 때문으로 해석할 수 있다.

귀농여성의 자녀교육에서는 학생자녀를 둔 16명에서 사교육을 전혀 시키고 있지 않은 여성은 7명이다. 사교육을 시키고 있는 여성 중에서 5명은 태권도와 피아노 등 예능분야이며 입시위주의 사교육을 시키는 여성은 3명에 불과했다. 사교육을 시키는 여성 중에서 한 달에 지출되는 사요육비는 가구당 30만원을 넘지 않았다. 이렇듯 사교육열이 도시에 비해 현저히 낮은 것은 '남들이 대부분 하지 않으니 나도 하지 않아도 불안하지 않다'는 것과 읍내까지 나가지 않은 한 시키고 싶어도 마땅히 시킬만한 곳이 없으며 학생 수가 워낙 적어 경쟁의 필요를 느끼고 있지 않기 때문으로 해석할 수 있다. 그러나 사교육비에 대한 부담이 적은 대신에 여성들은 아이들의 불투명한 미래를 불안해하는 경향도 있었다. 자녀의 사교육 이용여부와 여성의 문화센터 이용여부를 살펴보면 (표3)과 같다.

(표3) 귀농유형별 자녀의 사교육 및 문화센터 이용여부

(단위: 명)

귀농유형	인원	사교육 이용여부		문화센터 이용여부	
		유	무	유	무
아내연고형	3	1	1	-	3
부부연고형	4	3	1	1	3
남편연고형	11	5	3	3	7
무 연고형	3	-	2	1	2
합계	21	9	7	5	15

귀농여성의 문화센터 이용을 살펴보면, 대구에 거주하는 1명을 제외한 20명의 여성 중에서 이용경험이 있는 여성은 5명이고 15명은 경험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용경험이 있는 4명의 여성도 지속적인 현상이 아니라 단 1회 이용에 그쳤으며 연구당시 이용중에 있는 여성은 전혀 없었다. 귀농여성들의 문화센터 이용이 특히 더 낮은 원인을 찾는다면 첫째는 시간적 제약일 것이다. 농업에 동사하는 여성은 문화강좌가 농번기에 집중되어 있는 관계로 이용시간에 제한이 있고, 농업 외 직장을 가진 여성은 대부분의 강좌가 낮 시간대에 집중되어 있으므로 이용이 불가능하고 간혹 저녁시간대에 강좌가 개설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자신의 집이 동네 중심과 떨어진 외딴집이기 때문에 아이를 혼자 두고 집을 비울 수 없기 때문이다. 둘째, 거리상의 문제일 것이다. 청도군의 지형은 동서로 길게 뻗은 형상이다. 서쪽 끝에 살고 있는 연구 대상자는 읍내의 문화센터까지 승용차로 30분은 걸린다고 하였다. 동쪽 끝에 살고 있는 여성이라면 이보다 더 많은 시간이 소요된다고 할 수 있다. 도시와 달리 대중교통이 흔하지 않은 농촌이므로 거리상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할 것이다. 그러므로 '기름값이 더 많이 든다'는 여성의 푸념을 무심히 흘려버릴 수만은 없다고 본다. 셋째, 홍보상의 문제일 것이다. '남편 연고형'의 여성은 자신의 무연고이며 남편을 통한 인적교류가 전부라고 할 수 있다. 그것은 시댁과의 연결이 불가피하다는 의미이여 '살림 잘하고 아이 잘 키우는' 며느리를 최고로 인정하는 시어머니가 속한 할머니 집단의 무성한 소문은 이 유형의 여성에게 하나의 족쇄로 작용할 수 있다. 그래서 알고자 하나 '알아볼 곳도 모르고 알려주는 사람도 없다'는

귀농여성들이 세월 따라 농촌에 적응하면서 갈등을 겪고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여성의 정보 접근에 대한 배려는 '남편 연고형'의 여성에게는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하겠다.

이와 유사한 것으로 할머니들이 장악하고 있는 농촌사회의 여전한 가부장성을 들 수 있다. 할머니들은 한결같이 며느리의 잦은 외출을 경계하고 있음은 이미 언급한 바와 같다. '그저 집에서 남편 도와 살림 잘 살고 애들 잘 키우고 시부모에게 잘하는 여자가 제일이다'라는 인식이 뿌리 깊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이 유형의 여성은 시댁은 물론이고 보이지 않은 권력을 소유한 농촌 할머니의 '소문'을 두려워하고 있었다. 여기서 도시생활과 개인주의에 익숙한 젊은 여성은 할머니들과 불화가 생길 수밖에 없다고 하겠다.

그러므로 농촌의 가부장성도 여성의 문화센터 이용을 가로막는 중요한 요인이라 할 수 있다. '여자가 밖으로 나가면 깨진다'는 좋지 않은 인식이 여성의 집 밖 활동을 저해하고 있는 것이다. '딱히 돈 벌러 나가는 것이 아니라면 여자가 나다니는 것을 어른들은 싫어한다'고 말한 사례여성의 이야기에서 보듯 여성의 잦은 외출은 타인의 입에 오르내릴 험담으로, 무성한 소문이 가득한 집성촌의 좁은 농촌사회에서 여성을 힘들게 하고 있는 것이다. 이것은 '무 연고형'을 제외한 여성의 심리에 강하게 작용하며 여성 자신의 문화욕구 충족에 대해 소극적인 자세를 취하게 만드는 계기가 되고 있다. 여성의 귀농에 있어 반대집단의 가장 큰 이유는 농촌의 낙후와 도시생활에서 익숙한 문화생활을 추구하기 어렵다는 것이었다. 그것은 도시인들이 생각하는 농촌에 대한 보편적인 인식이라 할 수 있는데 실제로 사례를 통해 알게 된 농촌 여성의 문화생활은 미비했다고 할 수 있다.

5. 마무리

여성과 남성은 서로 다른 상황과 경험을 통해 주어진 환경에 적응하고 있으므로 귀농가족이라는 하나의 틀 안에서만 접근하기에는 이들의 차이가 매우 크다. 이 연구는 그동안 귀농연구 및 정책 현장에서 소외되었던 귀농가족의 기혼여성이 어떠한 형태로 농촌사회와 관계 맺고 있는지 여성의 경험세계를 통해 조명해보고자 하였다. 그래서 여성이 겪고 있는 구조적이고 현실적인 문제가 또 다른 여성에게 반복되는 상황에 대한 해석과 이에 대한 대안을 찾고자 한 것이다.

여성의 경험을 살피고자 귀농유형을 여성의 입장에서 정리하였다. 대부분의 연구에서 U형의 귀농이 많았던 것은 연고귀농이 갖는 장점으로 낯선 환경에 놓인 개인들과는 달리 익숙한 고향농촌이므로 일차적으로 귀속적인 연고에 의존하여 적응할 수 있다는 점이다. 그러나 여성의 입장에서 귀농은 무 연고가 다수를 차지하였다. 그러므로 여성은 남성과는 판이하게 다른 지지기반의 성격과 농촌생활에 필요한 정보수집이나 시댁과의 근접성 등으로 인해 귀농 후 여성의 삶 전체에 커다란 영향을 미치고 있다. 특히 '남편연고형'이 절대적으로 많았는데 이는 집성촌 형태가 잔재한 농촌 특성상 여성의 귀농은 시부모는 물론이고 더 넓은 범위의 시댁으로 귀농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여성에게 또 다른 억압의 가능성을 열어놓고 있다.

‘살맛나는 농촌’, ‘행복한 농촌’이라는 슬로건 아래 정부는 끊임없이 농촌개발에 역점을 두고 있다. 그러나 농촌개발과 활성화에 초점을 맞춘 귀농정책이 여성에게 외면당하고 있는 것에 대한 깊은 성찰이 필요한 시점이다. 연구자는 귀농정책의 일환으로 실시되고 있는 귀농교육 참여가 여성의 농촌적응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에 대해 살펴보고자 하였다.

그 결과 여성의 귀농교육 참여는 남성에 비해 매우 낮았으며 귀농유형에 따라 다른 양상을 보였다. ‘부부연고형’과 ‘남편연고형’의 여성은 귀농교육 참여가 낮은데 비해 ‘아내연고형’과 ‘무 연고형’에서는 여성의 귀농교육 참여가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특히 ‘무 연고형’의 경우 부부가 함께 귀농교육에 참여하기도 했으며 귀농교육이 여성의 농촌적응에 긍정적인 요소로 작용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귀농유형에 따라 귀농교육의 참여에 차이를 보이는 것은 귀농지 정보수집과 정책의 접근에 따른 통제가 유형에 따라 달리 작동되기 때문이기도 하다. 그러나 가장 큰 이유는 원하지 않은 귀농을 수행한 여성이 귀농에 대해 가지는 원천적인 부정과 이에 대한 무관심의 결과라 할 수 있다. 이것은 귀농가족의 여성임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정체성을 여성농업인에 위치지우지 않음은 물론이고 남편의 귀농과 자신을 동일시하지 않음으로써 자신에게 하나의 독립적인 정체성을 끊임없이 부여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농촌생활에 필요한 각종 정보는 연고를 통해 얻고 있었는데 무연고의 경우 매우 열악한 위치에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무 연고형’의 경우 관공서나 인터넷 등을 이용하면서 적극적인 정보접근에 나서는 반면, 동일한 무연고인 ‘남편연고형’은 그러한 열정을 보이지 않았다. 이는 앞서 언급한 원하지 않은 귀농으로 인해 농촌에 대한 무관심과 부정적 인식, 농촌과 동일시하지 않으려는 것과 동일한 맥락에서 이해될 수 있다. 그래서 ‘남편연고형’의 여성은 ‘모르면 모르는 대로 그저 그렇게 세월이 흐르도록 내버려 두면서’ 세월따라 익혀가는 것으로 저항의 모습을 보이기도 했다. 이러한 반감을 상쇄시키려면 여성의 귀농경험을 드러내고 이들의 문제의식에 귀 기울일 때 비로소 가능할 것이다. 귀농가족의 안정적 정착은 여성의 농촌적응에 달려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므로 농촌에 대한 여성의 긍정적인 인식 변화를 유도할 수 있는 정책 접근이 요구된다.

귀농여성은 대체로 자녀의 사교육을 시키고 있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 이유는 학교 교육의 믿음보다는 농촌의 적은 학생 수로 인해 ‘경쟁’이 치열하지 않은 것과 도시의 특징인 학원 ‘선택’과 달리 농촌은 ‘선택’이 존재하지 않았으며 적은 학생 수로 인해 선택마저 불가능했기 때문이다. 적은 학생 수는 젊은 층의 부재와 노령화라는 농촌현실을 반영하는 것으로 젊은 층의 부재는 젊은 층의 귀농을 방해하는 요인으로 다시 작용하고 있으며 노인부양과 노동력 부족이라는 이중부담은 여성의 귀농 회피요인으로 반복된다.

귀농가족 내 기혼여성의 문화생활 이용을 살펴보면, 농촌거주자 20명 중에서 15명이 각종 문화센터 등의 이용경험이 전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은 여성회관, 문화센터 등의 위치와 프로그램은 물론 존재여부 조차 알지 못하는 경우도 있었다. 관련 사업의 홍보 부족과 여성의 무관심을 원인으로 꼽을 수도 있으나 대부분의 귀농여성들은 농업외 직업에 종사하였기에 프로그램 시간을 맞추기 힘들었으며, 농업종사자는 농사

철과 겹쳐지는 강의로 인해 수강 자체가 힘들기 때문으로 나타났다. 지리적 여건상 시간 소요와 교통비 부담 등이 있으며, 가부장적인 농촌 할머니들의 ‘소문’도 원인으로 드러났다. 여성이 ‘딱히 돈 벌러’ 나가는 것이 아닌 ‘즐기러’ 나가는 것에 대해 농촌사회의 시선은 결코 곱지 않다. 이는 자녀양육과 남편 뒷바라지로 한평생을 보낸 할머니들이 기대하는 농촌사회의 가부장적인 인식의 투사이다. 좁은 지역사회의 ‘시끄러운 소문’으로부터 여성은 결코 자유롭지 못했다.

본 연구의 결과를 바탕으로 귀농정책에서 고려해야 할 부분과 향후 연구 과제 수행을 위해 몇 가지 제언으로 마무리하고자 한다. 첫째, 귀농은 가족구성원 전체의 복잡한 적응과정을 포함한다. 우리나라 귀농지원이 부부를 최소단위로 제한함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여성의 귀농경험에 관심을 기울이지 않았다. 여성의 귀농경험을 인식하는 것은 그동안 추진된 발전과 개발의 주류전략에서 간과될 수밖에 없었던 귀농가족의 삶의 질을 고려할 수 있는 새로운 시각을 제공할 수 있으며 자연과 인간의 상호공존의 이해를 높일 수 있을 것이다. 그러므로 더 많은 귀농여성의 경험세계에 대한 자료를 축적하고 이들의 문제제기에 함께 고민할 수 있어야 한다.

둘째, 정부의 귀농정책은 은퇴 후 귀농이나 자기자본에 기반한 경쟁력 있는 귀농 또는 대안적인 삶을 추구하는 귀농에 대한 지원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그러나 여전히 경제적 어려움이 귀농의 가장 큰 동기임을 간과하지 말아야 할 것이다. 연고지로 귀농한 경우 특히 ‘부부연고형’이나 ‘남편연고형’은 경제적 어려움이 귀농의 가장 큰 동기였다. 이것은 귀농정책과 귀농현장에서 정책대상이 서로 맞물리지 않고 있음을 드러낸다고 할 수 있다. 또한 경제적 조건도 개인에 따라 매우 복합적인 요소를 안고 있으며 여성과 남성에 따라 입장의 차이가 있다고 하겠다. 그러므로 귀농가족을 위한 효과적인 정책 수립을 위해서는 귀농동기의 세밀한 분석이 이루어져야 하며 정부가 추진하는 정책이 여성과 남성에게 미치는 효과를 정확하게 파악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여성정책 분석기관과의 공조체계가 마련될 필요가 있으며 귀농정책에 유용한 성 분석틀의 개발과 적용이 필요하다.

셋째, 여성의 귀농은 대부분 남편의 고향으로 이루어지는 현실에서 지리적, 문화적으로 낯선 환경에 놓인 여성을 위한 정책적 배려가 있어야 할 것이다. 먼저 귀농가족이 농촌 적응에 필요한 각종 정보를 쉽고 빠르게 그리고 정확하게 수집할 수 있도록 제도적 측면에서 보완되어야 한다. 또한 귀농가족과 토착민이 화합할 수 있는 다양한 교류의 장이 마련되어야 한다. 이러한 요구는 남편연고형 여성뿐 아니라 늘어나는 무연고 귀농의 경우로 확장하여 적용할 수 있다.

넷째, 귀농이 가족단위로 이루어져야만 하는가에 대한 의문을 제기하고 싶다. 부부를 최소단위로 하는 가족귀농은 개인단위의 귀농자나 대안가족 등에 대한 정책지원의 원천적 차단임과 동시에 가족의 귀농으로 인해 원하지 않은 귀농을 수행한 개인은 농촌에 적응하지 못한 채 가족의 삶 전체에 악영향을 미치고 있다. 그러므로 가족단위의 귀농을 고집하기보다는 개인차원의 귀농, 개인과 개인이 함께하는 귀농이 긍정적으로 이해될 수 있어야 한다.

[참고문헌]

강대구(2006), “귀농자의 귀농유형별 영농정착과정”, 「농업교육과 인적자원개발」38(2), pp23-53.

권중돈(1996), “치매가족의 부양부담 측정도구 개발”, 「연세사회복지연구」3, pp164-177.

고성준(2007), 「귀농자의 실태와 안정적 정착을 위한 연구」, 전북대학교대학원 석사학위논문.

김기홍(2006), 「한국농촌마을 사회자본의 특성에 관한 연구」, 고려대학교대학원 박사학위논문.

김백수·이정화(2013), “귀농인의 농촌사회 적응에 대한 생태체계적 분석”, 「농촌사회」23(2), 한국농촌사회학회, pp7-48.

김병택(2002), 「한국의 농업정책 : 전개과정과 발전방향」, 한울아카데미, pp53-98.

김주숙(1994), 「한국 농촌의 여성과 가족」, 한울아카데미.

김형용(1989), 「이농과 농촌사회경제구조의 변화에 관한 연구」, 전남대학교대학원 박사학위 논문.

김혜영(2006), “한국가족문화의 제고 : 친밀성의 부재와 허약한 가족관계”, 「보건복지포럼」115, pp117-146.

김홍주(2007), “사회양극화시대, 농촌의 가족문제와 정책방향”, 「가족과문화」19(1), pp117-146.

박공주(2006), 「은퇴 후 귀농인의 농촌 이주준비 및 적응에 관한 연구」, 중앙대학교대학원 박사학위논문.

박부진(1994), 「한국농촌가족의 문화적 의미와 가족관계의 변화에 관한 연구」, 서울대학교대학원 박사학위논문.

서규선·변재면(2000), “U턴 귀농자 장·단기 교육프로그램 개발”, 「한국농촌지도학회지」7(1), pp137-153.

성지혜(2010), “1980년대 청소녀 노동경험 사례연구”, 「여성학논집」27(2), pp43-76.

성지혜(2013), “귀농한 가족, 귀농하지 않은 여성”, 「농촌사회」23(2), 한국농촌사회학회, pp91-138.

양순미(2001), 「농촌가족의 건강성에 관한 연구」, 경희대학교대학원 박사학위논문.

유광희(2007), 「농촌중년여성의 노부모부양에 따른 스트레스 연구」, 조선대학교대학원 석사학위논문.

윤근섭(1993), “산업화 및 도시화에 따른 농촌사회의 변화에 관한 연구 : 전북지역의 발전과 관련하여”, 「농촌사회」3, 한국농촌사회학회, pp9-37.

윤택림(2004), 「질적연구 방법론」, 아르케.

윤택림·함한희(2006), 「구술사 연구방법론」, 아르케.

윤홍식(2010), “한국가족정책의 현실과 전망 : 가족정책, 복지국가를 향한 새로운 전망”, 「한국행정학회」13, pp15-39.

오인숙(1989), 「한국농촌가족의 부부간 권력 및 역할관계에 관한 연구」, 이화여자대학교대학원 석사학위논문.

이순미(2006), 「국가주도 산업화과정의 농촌여성의 일-가족 : 이중체계, 갈등구조, 적응전략」, 전북대학교대학원 석사학위논문.

이재경(2003), 「가족의 이름으로」, 또하나의 문화.

이효선(2009), “한국여성들의 삶을 이해하기 위한 가족패러다임 재구성-여성세대 생애사를 중심으로”, 「여성학논집」26(1), pp135-181.

임혜영(1999), 「귀농자의 적응과 복지에 관한 연구 : 전라남도를 중심으로」, 광주대학교대학원 석사학위논문.

전운성(1997), “강원지역 농업구조의 변화와 특징”, 「강원사회의 이해」, 한울아카데미, pp256-270.

정부매(2005), 「농업생산양식과 농촌사회구성의 재편 : 서울 근교 양평지역을 사례로」, 성신여자대학교대학원 박사학위논문.

정행준(2011), 「농촌지역 다문화가정 아동의 교육환경, 자아존중감, 학교생활적응간의 관계」, 목포대학교대학원 박사학위논문.

조관일(2000), “우리나라 농촌여성의 역할변화에 관한 사회경제적 연구”, 강원대학교대학원 박사학위논문.

조미영(2005), 「여성과 가족」, 유풍출판사.

조일호(2003), 「개방화시대 한국농업의 발전전략」, 충남대학교대학원 박사학위논문.

청도군(2010), 「청도통계연보」, 청도군.

최재율(1995), 「농촌사회학」, 유풍출판사.

하딩, 샌드라(2009), 「누구의 과학이며 누구의 지식인가?: 여성들의 삶에서 생각하기」, 조주현(역), 나남출판사(Harding, Sandra, *Whose Science? Whose Knowledge?: Thinking from Women's Lives*, Ithaca: Conell University Press, 1991).

한국여성개발원(1993), 「농촌가족의 변화와 지속에 관한 연구」, 한국여성개발원.

홍동식(1988), 「농촌사회학의 이해」, 범문사.

Gilgun, Jane. F., Kerry Daly & Gerald Handel(eds.)(1992), *Qualitative Methods in Familye Research,* California: Sage Publications.

Hartsock, Nancy(1999), *Feminist Standpoint Revisited and Other Essays*, Colorado: Westview Press.

Taylor, Steven J. & Robert Bogdan(1998), *Introduction to Qualitative Research Methods*, New York: John Wiley & Sons.

기혼여성의 평생교육참여가 개인 및 가족에 미치는 영향

이정미·이미영·조희금(대구대학교)

Ⅰ. 서론

오늘날 과학 기술의 발달로 지식의 양이 급속히 증가하고 지식활용주기가 짧아지고 있어, 학교교육만으로는 생활에 필요한 지식과 기술을 학습하는 것이 어려워졌다. 급변하는 사회적 요구에 부응하기 위해 더 많은 교육을 원하는 사람과 교육의 혜택을 충분히 받지 못한 사람들에게 다양한 교육기회와 환경을 제공하여, 자기계발의 기회를 제공하고, 사회발전의 토대를 다지는 평생교육이 점차 중요해지고 있다. 평생교육의 참여자 수요가 많아지고 평생학습에 대한 인식이 확산되어짐에 따라 이른바 학습권이라는 권리의식으로 학습의 기회를 보다 적극적으로 활용하려는 양상이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다.

1982년 「사회교육법」에 의해 시작된 사회교육은 1999년 「평생교육법」으로 바뀌면서 평생교육으로 전환하게 되었다. 개인의 요구에 기반을 둔 평생교육이 급속히 신장되어왔고, 2000년 이후 평생교육 인프라가 크게 확대되었다.

한국성인의 평생학습 실태조사에 따르면, 우리나라 성인의 평생교육 참여율은 35.6%로, 성별로 나누어 살펴보면, 여성(39.4%)이 남성(31.8%)보다 높게 나타났으며, 연령대별로 살펴보면 25~34세가 39.3%, 35~44세 35.8%, 45~54세 34.7%, 55~64세에서는 31.5%로 나타났다. 평생교육 참여자 가운데 성인여성의 평생교육참여율과 비중은 매우 높은 것으로 조사되고 있다(교육과학기술부, 2012).

현대사회에서 성인들이 평생교육에 참여하게 된 이유는 성인인구의 증가, 경제적 풍요, 테크놀로지의 변화, 일반조직의 영향 등이 있다(Merriam & Caffarella, 1999: 권두승・조아미, 2001 재인용).

특히 여성이 평생교육에 참여하게 된 것은 가족구조의 변화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 만일 여성의 삶의 터전이 되어온 가족구조의 변화 즉 자녀수의 감소에 따른 가족규모의 축소가 따르지 않았다면, 여성의 평생교육 참여는 보다 완만한 속도로 진행되었을 것이다. 이와 더불어 가사를 간소화 시켜주는 각종 기계가 발명되어 여성들의 가사노동 부담을 감소시켰고 이는 여성이 적극적으로 사회・경제적 활동에 참여할 수 있는 실질적인 계기가 되었다. 여성의 사회참여에 따라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한 여성평생교육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고 있다.

앞으로 기혼여성의 평생교육참여는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이고, 기혼여성의 삶의 변화는 체계적으로 가정생활의 변화를 가져오며, 가정의 변화는 가족원의 태도에 의해서도 영향을 받게 되므로 이는 궁극적으로 가정생활에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다.

평생교육참여자의 성과 분석을 통하여 평생교육 참여가 사회적 자본형성, 인적자본 형성에 효과가 있음을 보고하고 있다(김규태 등, 2010; 김애련, 2004; 이경아, 2008; 최운실 등, 2005). 특히 개인의 평생교육참여에 따른 경제적 효과에 대한 연구는 실업자나 근로자들의 직업능력개발이나 직업훈련에 따른 개인의 노동시장 효과에 대한 연구를 다양하게 분석하고 있다(강순희 · 노홍성, 2000; 구본장 · 장충성, 2002).

최근 평생학습 실태조사를 통해 개인역량강화에 미치는 영향과 사회적 기여에 대한 효과분석이 이루어지고 있다. 김규태 외(2010)는 평생학습 참여자의 개인영역에서의 효과를 형식과 비형식으로 나누어 살펴보았는데, 형식학습참여자의 경우 자기개발 그리고 취업, 이직, 창업에 도움이 되었으며, 특히 비형식교육의 경우 육체적 · 정신적 건강유지와 직무관련 업무능력향상에 도움이 된 것으로 나타났다. 2012년 국가 평생교육통계조사(교육과학기술부, 2012)에서는 형식교육 참여 효과는 개인적 측면에서 교양함양 · 지식습득 등 자기계발에, 직업적 측면에서는 취업, 이직, 창업에 도움이 되었으며, 비형식교육 참여효과는 개인적 측면에서 정신적 건강유지에, 직업적 측면에서는 직무관련 업무능력 향상에 도움이 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그리고 사회적 측면에서 시민의식 증진, 지역사회참여 증가, 사회적 상호작용에서는 형식교육 참여자나 비형식교육 참여자 참여효과가 비슷하게 나타났다고 밝히고 있다.

평생학습이 삶에 대한 만족도를 향상시키고, 건강개선에 도움이 되는 행동 등을 할 수 있게 함으로써 개인의 건강개선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았다. 즉 개인의 식습관 개선, 음주 및 흡연 정도 감소 등에 영향을 미쳐 간접적으로 국민 보건 증진에 기여하고 있다(권재현 · 윤선영, 2009). 이처럼 다양한 평생학습에 대한 연구는 학자나 상황에 따라 특정한 분야에 초점을 두고 다루어진 경향이 있다.

기혼여성의 평생교육참여가 확대되고 중요해지면서 평생교육 참여가 성과를 가져올 것이라는 막연한 기대가 있지만, 평생학습 참여가 가정생활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는 미비하였다. 즉 기혼여성의 평생교육 참여는 시간적·재정적 투자가 요구되고 가족의 삶에서 본인의 자기계발 및 가족적 속성과의 관련변수 속에서 개인의 변화가 가족의 체계 안에서 상호작용 과정에 대한 고찰이 요구된다.

그러므로 본 연구는 평생교육에 참여하는 기혼여성을 대상으로 기혼여성의 평생교육참여와 가족지원이 개인 및 가족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살펴보고자 한다.

Ⅱ. 이론적 배경 및 선행연구의 고찰

1. 평생교육참여

1) 평생교육의 개념과 평생교육기관현황

평생교육의 개념은 논자에 따라 조금씩 서로 다른 견해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평생교육개념에 관한 학자들의 견해를 먼저 살펴보고 이를 기반으로 통합적인 개념을 제시

하고자 한다.

(1) 평생교육의 개념

평생교육개념은 20세기에 들어, 제1차 세계대전 이후 Lengrand 등의 학자들에 의하여 사용되기 시작했다. Lengrand(1970)는 평생교육을 개인의 출생에서부터 죽을 때까지 전 생애에 걸친 교육의 통합으로 보고, 모든 국민들에게 평생을 통하여 각기 자신이 가진 다방면에 걸친 소질을 계속적으로 발전시키고 사회발전에 충분히 참여할 수 있게 하는 교육이라고 하였다(조남조, 2006 재인용). Dave(1976)는 평생교육을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평생토록 이루어지는 모든 형태의 형식적・비형식적 학습활동이라고 하였다. 장진호(1985)는 평생교육은 개인이 전 생애를 통하여 능동적으로 변화하는 현대적 생활에 슬기롭게 대처하고 창조적으로 개척해 갈 수 있는 지식과 기능을 익히며 다른 사람과 더불어 공동체의 복지를 증진시켜 나가는 인간화교육을 의미한다고 한다.

김종서 외(2000)는 평생교육은 삶의 질 향상의 이념 실현을 위하여 태아에서 무덤에 이르기까지 교육의 수직적 통합과 가정교육, 사회교육, 학교교육의 수평적 통합을 통한 학습사회를 건설함으로써 최대한의 자아실현과 사회발전 능력의 함양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라고 하였으며, 유네스코에서는 평생교육이란 평생을 통한 계속적인 교육을 의미하며 급변하는 현대 사회에 있어서 일정 연령층을 대상으로 하는 학교교육과 그 외의 제반 교육 자원을 효율화함으로써 교육역량의 극대화를 지향하는 총체적 노력이라고 하였다(황종건, 1978).

우리나라 평생교육의 현실적인 준거로 사용되는 평생교육법[1] 상의 개념은 다음과 같다. 즉 법 제2조(정의)에서 "평생교육이란 학교교육을 제외한 모든 형태의 조직적인 교육활동을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학력보완교육, 성인기초・문자해독교육, 직업능력 향상교육, 인문교양교육, 문화예술교육, 시민참여교육 등 6개 평생교육 유형를 명시하고 있다.

평생교육의 정의는 이처럼 다양하게 정의내릴 수 있으나, 본 연구에서 평생교육이라 함은 학교교육을 제외한 모든 형태의 조직적인 교육활동을 말하며, 그 중 형식교육은 초・중・고등학교, 대학과 같이 정규교육과정을 통해 공식적으로 졸업장이나 학위를 취득할 수 있는 교육과정을 말하며. 비형식교육은 공식적인 학위나 졸업장의 취득을 목적으로 하지 않으면서 교육프로그램이나 강좌를 통해 학습 및 훈련에 참여하는 교육을 의미한다(교육과학기술부・한국교육개발원, 2012).

(2) 평생교육기관현황

평생교육기관을 살펴보면 표 1과 같다. 2007년 이후 평생교육기관은 매년 증가 추세에 있다. 2007년 2,221개에서 2012년에는 3,768개로 41.4%가 증가하였다. 평생교육통계조사(2012)에 따르면, 인구 십만명당 기관수는 7.8개, 프로그램수는 178,971개, 학습자수는 17,618,495명이다. 평생교육기관은 서울에 36%가 있으며, 대구는 4.6%, 경북은 4.2%가 있다. 학습자수 분포는 서울 77.2%, 대구 3.9%, 경북 0.9%를 차지하고 있다(교육과학기술부, 2012).

1) 「평생교육법」은 1982년 제정된 「사회교육법」에 대체하여 1999년 제정되었고 2007년 국가수준의 평생학습정책을 주관하기 위해 평생교육진흥원이 만들었다. 또한 평생교육사의 자격이 훨씬 강화되었고, 문해교육 및 인문교양교육 등에 대한 내용이 추가되어 개정되었다.

표 1. 전국 평생교육기관

단위 개, 명(%)

구분	기관수	인구십만명당 기관수	프로그램수	학습자수
전체	3,768(100.0)	7.8	178,971(100.0)	17,618,495(100.0)
서울	1,354(36.0)	13.8	74,496(41.6)	13,606,180(77.2)
부산	215(5.7)	6.3	10,415(5.8)	575,970(3.3)
대구	175(4.6)	7.2	9,257(5.2)	683,718(3.9)
인천	134(3.6)	5.0	6,302(3.5)	276,255(1.6)
광주	106(2.8)	7.2	3,840(2.1)	165,241(0.9)
대전	120(3.2)	8.0	4,960(2.8)	131,285(0.7)
울산	66(1.8)	6.1	4,540(2.5)	127,618(0.7)
경기	713(19.0)	6.3	29,069(16.2)	998,925(5.7)
강원	113(3.0)	7.7	3,456(1.9)	73,270(0.4)
충북	87(2.3)	5.8	2,483(1.4)	128,698(0.7)
충남	111(2.9)	5.5	6,342(3.5)	157,019(0.9)
전북	111(2.9)	6.2	3,931(2.2)	100,381(0.6)
전남	106(2.8)	6.1	5,526(3.1)	142,294(0.8)
경북	157(4.2)	6.0	4,139(2.3)	156,228(0.9)
경남	173(4.6)	5.5	9,640(5.4)	250,888(1.4)
제주	27(0.7)	5.1	845(0.4)	44.525(0.3)

자료: 교육과학기술부, 2012

2. 가족의 지원

가족지원은 지원하는 주체가 가족, 친족 등 개인 혹은 가족적 차원에서 이루어지는 지원으로서 비공식적 지원이라고 볼 수 있다. 가족지원 주체는 배우자나 자녀로 구성 되는 것으로, 한국사회에서는 전통적으로 사회지원망 중에서도 가족지원의 차원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사회의 변화로 인해 가족의 가치관이 과거와는 다르게 변화했다할지라도 가족은 일차적인 집단으로 중요성을 갖는다(이신숙·차용은, 2003). 중요한 관계를 맺고 있는 대상이 제공하는 지지 및 지원은 개인으로 하여금 위기상황을 덜 부정적으로 평가하고 어려운 시기를 지혜롭게 극복할 수 있는 힘을 준다. 사회적 지지는 지지의 출처, 지지 제공자와 수혜자 간 상호작용정도, 관계의 질 등에 따라 그 효과가 달라져서(Thoits, 1983; 강혜원·한경혜, 2005 재인용), 최근 사회적 지지와 관련한 연구에서 기혼자에게 가장 효과적인 사회적 지지를 제공하는 대상으로 배우자를 주목하고 있다. 선행연구들(이인정, 1997; Browman, Riba & Trahan, 1996: 강혜원·한경혜, 2005 재인용)에 의하면 배우자로부터 지지는 갑작스러운 생활상의 변화의 충격을 완화하고 잘 적응할 수 있도록 하는데 다른 어떤 구성원의 지지보다 효과적인 것으로 지적된다. 배우자로부터 지지 받는 경험, 그리고 언제든

배우자로부터 지지를 받을 수 있다는 믿음은 그자체로 이미 건강성을 높이는 독립적인 효과, 즉 '주효과'도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Browman, et. al, 1996; 강혜원·한경혜, 2005 재인용). 기혼여성에 대한 배우자 지원의 하나인 남편의 가사노동 분담은 맞벌이 부부에 있어서 부부관계, 생활만족도에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김경신·김오남, 1996; 송혜림, 2000), 가사노동 분담에 대한 만족도가 높을수록 인지평가가 높으며, 우울을 적게 겪고 스트레스를 적게 경험한다(정현숙, 1997).

기혼여성을 대상으로 한 Scott, Burns, Cooney의 사례연구(1996)에서 자녀가 있는 것이 여성의 학업성취도에 장애가 되지 않으며, 일반적으로 중년 일반학생들이 획득한 성적보다 자녀가 있는 기혼여성이 더 높은 점수를 얻는 것으로 나타났다. 기혼여성에게 있어 자녀는 여성의 학업성취도와 긍정적인 관계를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정영숙 외, 2008). 자녀와의 관계는 우리나라 노년기의 사회적 관계에서 부부관계 외에 중요한 자리를 차지하고 있으며(최성재・장인협, 2008), 자녀와의 관계를 보여주는 지표 중 하나로 자녀와의 동거여부가 있으나 이에 대한 연구 결과는 일관되게 나타나지 않았다(정명숙, 2007). 자녀와의 관계에서 정서적 지원이나 지지(이인정, 2007), 자녀관계의 질(최성재・장인협, 2008)은 삶의 질에 대한 주관적 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권태연, 2009; 한형수, 2008).

기혼여성과 시가, 친가와의 특성은 시가관계는 공식적이고 의례적이며 주로 물질적 지원이 교류되는 반면(김경원, 1989; 이경희, 1988), 친가와는 정서적 지원이 교류되며 비공식적, 사교적 성격을 띈다(유가효, 1984). 또한 친정친척과 친밀감이 높을수록 행복감이 높고 친밀감이 낮을수록 우울감이 높다(박수정, 1992). 비공식적이고 사교적인 목적으로 만나는 친정친척으로 부터 위기감을 해소하는데 각종정보를 들음으로써 기혼여성의 생활이 풍요로워지고, 시가친척으로부터는 위안과 인정을 받고 자신의 문제를 상담함으로써 중년기 기혼여성의 위기감을 감소시키는데 도움을 받을 수 있으며, 도구적 지원을 많이 받을수록 주부의 가사노동분담정도가 낮아지고 긴급할 때 경제적 도움을 받을 수 있어 기혼여성의 생활이 안정되면서 위기감 또한 낮아진다(신기영, 1991). 친정친척인 형제・자매는 주부와 연령이 비슷해서 서로에게 정서적 지원을 제공해 주고(Cicirelli, 1982: 임효영・김경신, 2001 재인용), 이러한 지원은 인생후반기에 여성의 사기와 생활만족도를 증진시켜 준다고 하였다(Arling, 1976: 임효영・김경신, 2001 재인용).

3. 가족에 대한 연구동향

그동안 가족연구가 가정이 가진 문제에 주로 초점을 맞추었던 것에 반해, 건강하고 행복하며 생산적이고 성공적인 개인을 위해 건강한 가족이 얼마나 중요한가에 관심을 가지면서 시작되었다(Olson, 2004: 조희금 외, 2005 재인용). 우리나라 건강가정에 대한 연구도 1990년대에 들어 그때까지 가족의 연구들이 가정문제 등 가족의 부정적인 측면과 병리적 측면에서 주로 초점을 둔 것에 비해, 건강가정의 특성을 밝힘으로써 가족생활의 성공을 원하는 다른 가족원들에게 모델을 제공하고자 하는 의도에서 시작되었다(조희금, 2003). 유례없이 급속하게 진행된 우리나라의 저출산 현상의 지속과 인구구

조의 급격한 변동에 따른 고령화 현상의 중심에 가정이 있다는 인식 역시 사회적 관심을 가정에 돌리는 계기가 되었다. 이에 2000년을 전후하여 건강한 가정에 대한 연구가 증가하였고, 가정건강성 개념을 중심으로 통합되었다(조희금, 2010). 이러한 움직임에 발맞춰 2004년 2월 9일 '건강가정기본법'이 공포되었으며, 2005년 1월부터 시행되었다. 이처럼 건강가정기본법은 우리사회에서 국가의 전반적 가족정책을 명시적으로 제시한 최초의 법률이며, 건강한 가정생활을 유지하지 위한 국민의 권리와 의무 그리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등의 책임을 명백히 하고, 가족원의 복지증진에 이바지할 수 있는 지원정책을 강화하도록 명시한 법으로 의의를 가진다. 또한 이러한 움직임은 더 이상 가정문제를 개인의 영역으로 보는 것이 아닌 국가가 함께 제도적으로 체계적이며 지속적인 지원을 해야 한다는 강한 의지를 표명한 것(장진경 등, 2006)으로 볼 수 있으며 요보호 대상자에게 제공된 지원서비스 중심의 잔여적 복지에서 일반가정을 대상으로 하는 보편적 복지로 복지패러다임이 바뀌는(조희금, 2004) 긍정적인 변화도 자아냈다.

이처럼 건강가정에 대한 관심이 증가함에 따라 가정의 건강성에 대한 연구가 진행되었는데 건강가정기본법 제정 이전인 1990년대 초반부터 건강한 가정개념, 건강가정의 요인 및 건강가정척도, 가정의 건강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등에 관한 연구가 이루어졌고, 건강가정기본법이 제정된 이후에는 건강가정기본사업의 성과를 밝히기 위한 과정으로써 가정의 건경선 평가도구 및 지표마련을 위한 연구들이 진행되었다.

Ⅲ. 연구방법

1. 연구모형

본 연구는 평생교육에 참여하는 기혼여성을 대상으로 그들의 평생교육 참여와 평생교육 참여에 따른 가족지원이 개인 및 가족 변화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해보고자 한다. 이러한 연구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연구모형은 그림1과 같이 설정하였으며, 이에 따른 구체적인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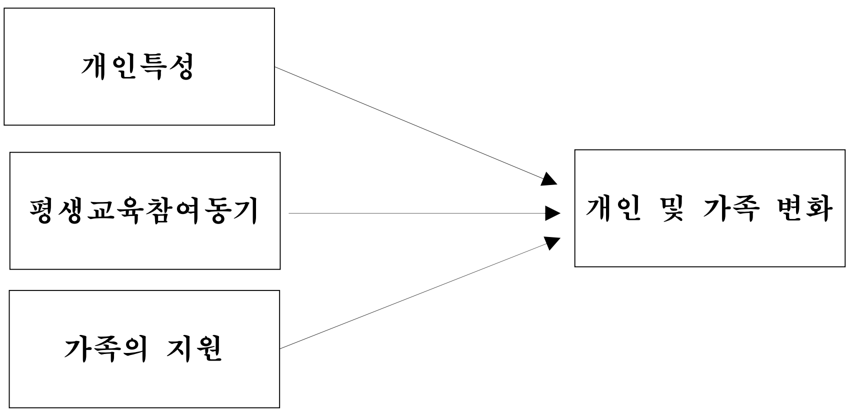


그림 1. 연구모형

<연구문제 1> 기혼여성의 평생교육참여특성은 어떠한가?
<연구문제 2> 기혼여성의 평생교육참여에 따른 가족지원은 어떠한가?
<연구문제 3> 기혼여성의 평생교육참여와 가족지원이 개인 및 가족 변화에 미치는 영향은 어떠한가?

2. 조사대상과 자료수집방법

본 연구에서는 대구·경북 소재의 평생교육기관에서 실시하는 평생교육에 참여하는 기혼여성을 조사대상으로 하였다. 예비조사는 2013년 6월 계명대학교 및 대구대학교 평생교육원 학습에 참여하는 30명을 대상으로 실시하였으며, 예비조사를 통해 수집된 자료를 이용해 측정도구의 타당성을 검증하고, 표현이 어색하거나 조사대상자가 정확하게 이해하지 못하는 문항들은 수정 보완하여 본조사를 실시하였다.

본 조사는 2013년 7-8월 대구·경북지역 형식·비형식 교육기관 340개 기관 중에 약 10%에 해당하는 33개 기관에서 이루어졌으며, 대구시지역 형식교육기관 5곳, 비형식교육기관 12곳, 경북지역 형식교육기관 4곳, 비형식 교육기관 12곳에서 실시되었다. 각 지역의 평생교육기관 담당자 및 원격대학 담당자를 통해서 설문지를 배포하였고, 이메일을 이용하여 조사하기도 하였다. 본 조사를 통해 회수된 설문지는 670부였으며, 이 중 응답내용이 부실한 23부를 제외하여 총 647부를 분석에 사용하였다.

3. 변수정의 및 측정방법

본 연구는 평생교육에 참여하는 기혼여성의 평생교육 참여특성과 가족지원을 파악하고, 평생교육 참여동기 및 가족의 지원이 개인 및 가족 변화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기 위하여 구조화된 설문지를 사용하여 조사하였다. 설문지의 주요 변수정의 및 측정방법은 다음과 같다.

1) 개인 및 가족 변화(종속변수)

개인 및 가족 변화를 측정하는 문항은 평생교육 참여 이후 조사대상자 본인(개인) 및 가족의 변화정도를 알아보기 위한 것으로 삶의 질, 자아존중감, 가족에 대한 사랑, 부부관계, 부모-자녀관계 등 5문항으로 구성하였다. 각 문항은 '1=전혀 향상되지 않았다', '5=매우 향상되었다'의 5점 리커트 척도로 점수가 높을수록 개인 및 가족 변화가 긍정적으로 향상된 것을 의미한다.

2) 독립변수

(1) 개인특성

개인의 일반적 특성은 연령, 직업, 최종학력, 학업공백기, 생활만족도, 총가족수, 자녀수, 개인월평균소득, 가계월평균소득에 대한 문항이 포함되어 있다.

(2) 평생교육 참여특성

① 평생교육 참여동기

참여동기는 총 25개의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각 문항은 5점 리커트 척도로 점수가 높을수록 참여동기가 높은 것을 의미한다.

표 2은 참여동기 척도의 각 문항이 요인구조를 타당하게 반영하고 있는지를 알아보기 위해서 요인분석을 실시한 결과이다. 요인추출방식은 주성분분석 방법을 사용하였으며, 요인구조를 분명히 하기 위하여 직교회전방식(varimax)를 선택하였다. 요인분석 결과 25개 문항은 4개의 요인으로 추출되었고, 4개의 요인은 전체 분산의 56.85%를 설명하고 있다. 추출된 요인1은 이직이나 승진에 도움이 되기 위해서, 직업을 얻거나 창업을 하고 싶어서, 학위(졸업장)나 자격증을 취득하고 싶어서, 당면한 문제를 해결하는데 도움을 얻고 싶어서, 주위사람으로부터 인정받고 싶어서, 내가 맡은 일을 효율적으로 해내고 싶어서, 지금까지 배워 온 학교 교육만으로 부족하다고 생각해서, 가정이나 직장이외의 사회활동에 참여하고 싶어서, 다른 사람들의 지시나 요청이 있어서 등의 내용을 포함하는 10문항으로 자기계발동기로 명명하였다. 요인2는 학습을 통한 자아실현을 위해서, 다양한 분야의 새로운 지식을 습득하고 싶어서, 배운다는 것 자체가 좋아서, 취미나 특기를 살려 소질을 개발하고 싶어서, 학습욕구를 충족시키고 싶어서, 배움을 통해서 자신의 정체성을 확립하고 삶의 의미를 깨닫기 위해서, 사회봉사활동을 할 수 있는 사람이 되고 싶어서 등의 내용을 포함하는 8문항으로 자아실현동기로 명명하였다. 요인3은 여럿이 함께 배우는 활동에 참여하고 싶어서, 친구를 사귀고 싶어서, 원만한 대인관계를 증진시키기 위해서, 배움으로서 자녀 학습에 도움이 되고 싶어서 등의 내용을 포함하는 4문항으로 관계지향동기로 명명하였다. 요인4는 일상생활에서 받게 되는 스트레스를 해소하고 싶어서, 지루한 일상생활에서 벗어나 새로운 교육적 환경에 접해 보고 싶어서, 건강을 유지하는 활동을 하고 싶어서 등의 내용을 포함하는 3문항으로 삶의 활력동기로 명명하였다.

평생교육 참여동기는 요인분석 통하여 4개의 유형으로 나누어졌으며, 25문항에 대한 신뢰도 분석결과 Cronbach's α=.890으로 나타나 전체 신뢰도계수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변수에 대한 요인별 Cronbach's α 계수는 자기계발동기는 .813, 자아실현동기는 .833, 관계지향동기는 .819, 삶의활력동기는 .811으로 나타났다.

표 2. 평생교육 참여동기 요인분석결과

문항	요인1 (자기계발 동기)	요인2 (자아실현 동기)	요인3 (관계지향 동기)	요인4 (삶의 활력동기)
승진이나 이직을 하는데 도움이 되기 위해서	.845	.006	-.005	.078
직업을 얻거나 창업을 하고 싶어서	.813	.045	-.022	.026
학위(졸업장)나 자격증을 취득하고 싶어서	.684	.236	.056	-.270
나의 당면한 문제를 해결하는데 도움을 얻고 싶어서	.662	.235	.160	.174
사회활동의 경쟁에서 뒤지고 싶지 않아서	.626	.241	.263	.223

문항	요인1 (자기계발 동기)	요인2 (자아실현 동기)	요인3 (관계지향 동기)	요인4 (삶의 활력동기)
주위사람들로부터 인정받고 싶어서	.578	.192	.259	.073
내가 맡은 일을 보다 더 효율적으로 해 내고 싶어서	.513	.370	.177	-.161
지금까지 배워 온 학교 교육만으로 부족하다고 생각해서	.477	.309	.312	.142
가정이나 직장이외의 사회활동에 참여하고 싶어서	.456	.410	.352	.018
다른 사람들의 지시나 요청이 있어서	.403	-.294	.360	.102
학습을 통한 자아실현을 위해서	.177	.791	-.009	-.009
다양한 분야의 새로운 지식을 습득하고 싶어서	.013	.755	.117	.086
배운다는 것 그 자체가 좋아서	-.082	.685	.087	.238
취미나 특기를 살려 소질을 개방하고 싶어서	.208	.597	.015	.043
학습욕구를 충족시키고 싶어서	.418	.561	.097	.016
더 나은 부모, 배우자, 자녀가 되고 싶어서	.316	.558	.278	-.062
배움을 통해 나 자신의 정체성을 확인하고 삶의 의미를 깨닫기 위해서	.439	.549	.096	.191
사회봉사할 수 있는 사람이 되고 싶어서	.209	.492	.245	-.263
여럿이 모여 함께 배우는 활동에 참여하고 싶어서	.036	.135	.790	.288
친구를 사귀고 싶어서	.117	.084	.789	.242
원만한 대인 관계를 증진시키기 우해서	.196	.149	.777	.205
배움으로서 자녀학습에 도움이 되어서	.377	.327	.524	-.035
일상생활에서 받게 되는 스트레스를 해소하고 싶어서	.061	.019	.275	.835
지루한 일상생활에서 벗어나 새로운 교육적 환경에 접해 보고 싶어서	.175	.179	.110	.797
건강을 유지하는 활동을 하고 싶어서	-.018	-.009	.404	.687
고유값	7.893	2.948	2.166	1.246
분산	31.574	11.794	8.663	4.984
누적분산	31.405	43.199	51.862	56.846
신뢰도	.813	.833	.819	.811
문항수	10	8	4	3

② 평생교육참여특성

평생교육참여특성은 평생교육 참여형태, 교육과정, 교육기관, 교육지출부담, 평생교육비용/편익, 주당참여일,1일 수강시간, 왕복이동시간, 학습준비시간 등으로 구성하였다.

(3) 가족의 지원

가족지원자는 남편, 아들, 딸, 시댁부모, 친정부모, 자매・친구 등으로 나누어 각자의 지원정도를 알아보았다. 또, 지원정도는 호응도와 지원정도로 나누어서 살펴보았다. 호

응도는 가족이 기혼여성의 평생교육참여에 대해 좋아해주고, 긍정적으로 받아들이는 것을 의미한다. 지원정도는 평생교육참여에 대한 응원이나 격려, 기혼여성의 평생교육참여를 위한 가사나 돌봄 노동의 분담하는 가사지원, 평생학습과 관련한 보고서 작성 시 도와주거나 정보를 제공하는 학습지원, 교육비를 지원하거나, 직접적으로 교육비를 지출하지는 않지만, 본인의 개인 용돈을 절약하거나, 용돈을 스스로 벌어서 하는 것 같은 간접적 지원까지 포함하는 금전과 관련한 경제적 지원, 평생교육관련 교통편의를 제공하거나 교육시간에 제대로 갈 수 있도록 시간 편의를 봐 주는 등의 편의제공, 총 5영역의 합으로 보았다.

가족원의 호응도는 '1=전혀 좋아하지 않는다.'에서 5=매우 좋아한다.'의 5점 리커트 척도이며, 지원정도 역시 '1=전혀 지원하지 않는다'에서 '5=아주 많이 지원한다.'까지 5점 리커트 척도로 점수가 높을수록 호응도와 지원이 많은 것을 의미한다.

4. 자료분석방법

수집된 자료는 SPSS ver 18.0프로그램을 이용하여 통계처리 하였으며, 구체적인 분석방법은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에서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을 파악하기 위하여 빈도, 백분율, 평균, 표준편차, 등의 기술통계 분석을 실시하였고, 둘째 평생교육 참여동기 척도는 하위요인을 추출하기 위해 주성분 분석방법을 이용한 요인분석(Factor Analysis)를 실시하였고, 요인의 회전은 Varimax 방법을 사용하였다. 요인에 따른 신뢰도 분석(Reliability Analysis)을 통하여 각 문항들의 내적 일관성(Chronbach-α)을 검정하였다. 셋째,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과 평생교육참여특성, 가족지원 차이를 알아보기 위해 t-test와 ANOVA를 사용하였다. 넷째, 개인특성, 평생교육참여특성, 가족지원이 개인 및 가족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기 위해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Ⅳ. 연구결과

1. 조사대상자의 사회인구학적 실태 및 특성

(1) 조사대상자의 사회인구학적 실태

표 3은 본 연구대상자의 인구사회학적 특성으로 연령, 직업, 학력, 거주지역, 본인의 월평균소득, 가족 월평균소득(본인소득포함) 등을 살펴보았다.

조사대상자인 기혼여성의 연령분포를 살펴보면, 40대가 38.8%로 가장 많았으며, 50대가 35.1%, 30대 이하가 16,1%, 60대 이상이 10.0% 순이었고, 조사대상자의 평균 연령은 49.03세로 나타났다. 직업은 전문관리직 종사자가 22.4%, 사무직 종사자는 5.2%, 판매서비스직 종사자 3.7%, 농림 및 자영업 종사자 6.0%, 생산직 5.1%, 전업주부 54.7%로 나타나서, 전체적으로 보면 경제활동에 참여하는 취업주부는 45.3%로 전업주부는

54.7%로 전업주부가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평생교육 참여 전 최종학력은 고졸이하가 39.9%로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으며, 대학졸업이상 35.7%, 전문대졸 24.4% 순으로 나타났다. 거주지역은 대도시 40.6%, 중소도시 32.5%. 농어촌 26.9%가 거주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인의 월평균 소득은 없음 34.8%, 99만원 이하 12.1%, 100~199만원 24.1%, 200~299만원 11.8%, 300만원 이상 17.2%로 100~199만원 소득이 가장 많았고, 평균개인소득은 132만원으로 개인소득 편차가 컸다.

가족 월평균소득(본인소득 포함)은 300~399만원이 26.3%로 가장 많으며, 600만원 이상 17.6%, 200~299만원 17.5%, 400~499만원 15.6%, 500~599만원 14.8%, 199만원 이하 9.2% 순으로 가계월평균소득은 436만원으로, 2012년 전국가계월평균소득 407만7000원과 비교하면 평균보다 높은 수준이다(통계청, 2012).

자녀수 및 총 가족수을 살펴보면 한자녀가구가 18.9%, 자녀가 2명인 가구가 60.4%, 3명이상 자녀를 둔 가구는 18.4%, 무자녀가정도 2.3% 이였으며, 총 가족수는 4인 가족이 54.3%, 3인 이하가구가 24.9%, 5명이상 20.9%로 평균자녀수는 1.98명이며, 평균 가족수는 3.96명으로 나타났다. 가족생활주기별로 보면 자녀아동기 34.6%, 자녀청소년기 47.8%, 자녀성인기 17.6%로 나타났다.

표 3. 조사대상자의 사회인구학적특성

사회인구학적 특성					
연령	39세 이하	104(16.1)	총가족수	3명 이하	161(24.9)
	40~49세	251(38.8)		4명	351(54.3)
	50~59세	227(35.1)		5명 이상	135(20.9)
	60세 이상	65(10.0)		평균 (명)	3.96
	평균(세)	49.03	가족 월평균 소득(본인 소득포함)	199만원 이하	221(34.8)
경제활동 참여형태	취업주부	293(45.3)		200-299만원	104(16.5)
	전문관리직	145(22.4)		300-399만원	166(26.3)
	사무직	52(5.2)		400-499만원	98(15.6)
	판매서비스직	24(3.7)		500-599만원	93(14.8)
	농림·자영업	39(6.0)		600만원 이상	111(17.6)
	생산직	33(5.1)			
	전업주부	354(54.7)		평균(만원)	435.91
학력	고졸이하	258(39.9)	본인 월평균소득	없음	221(34.8)
	전문대졸	158(24.4)		99만원 이하	77(12.1)
	대졸이상	231(35.7)		100-199만원	153(24.1)
거주지	대도시	263(40.6)		200-299만원	75(11.8)
	중소도시	210(32.5)		300만원 이상	109(17.2)
	농어촌	174(26.9)			
자녀수	없음	15(2.3)		평균(만원)	132.70
	1명	122(18.9)	가족 생활주기	자녀아동기	224(34.6)
	2명	391(60.4)		자녀청소년기	309(47.8)
	3명이상	119(18.4)		자녀성인기	114(17.6)
	평균(명)	3.96			

(2) 조사대상자의 사회인구학적 특성에 따른 개인 및 가족 변화의 차이분석

표 4는 조사대상자의 사회인구학적 특성에 따른 개인 및 가족 변화의 차이분석을 나타낸 것이다. 거주지역, 총자녀수, 가계월소득, 총가족수, 가정생활주기에 따라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도시보다는 농어촌 지역이, 자녀가 없는 집단보다는 있는 집단이, 가계월소득이 299만원이하의 집단보다는 400만원이상 집단이, 총가족수가 3명 이하인 집단보다 4명이상인 집단이, 가정생활주기가 '결혼적응기-자녀아동기' 집단보다는 '자녀독립기-노년기' 집단이 개인 및 가족에 있어서 변화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4. 조사대상자의 사회인구학적 특성에 따른 개인 및 가족 변화의 차이분석

독립변수	구분	평균	표준편차	사후검증 (D)	t/F
거주지역	대도시(263) 중/소도시(210) 농어촌(174)	18.95 19.60 19.43	2.769 3.312 2.900	a ab b	3.056*
연령	30대이하(104) 40대(251) 50대(227) 60대이상(65)	18.73 19.28 19.54 19.35	2.714 2.979 3.030 3.337	-	1.737
최종학력	고졸이하(258) 전문대졸(158) 대졸이상(231)	19.19 19.58 19.21	2.988 2.795 3.143	-	.960
취업유무	전업주부(354) 취업주부(293)	19.36 19.20	2.863 3.158	-	.702
총자녀수	없음(15) 1명(122) 2명(391) 3명이상(119)	14.20 19.16 19.57 19.16	1.656 3.131 2.842 2.931	a b b b	16.80 **
개인 월소득	없음(221) 100만원미만(77) 100-199만원(153) 200-299만원(75) 300만원이상(109)	19.00 19.39 19.44 19.60 19.45	2.660 2.871 3.350 2.950 3.190	-	.929
가계 월소득	200만원미만(58) 200-299만원(104) 300-399만원(166) 400-499만원(98) 500만원이상(204)	18.90 18.59 19.00 19.78 19.81	3.518 3.115 2.699 2.841 2.945	a a ab b b	4.394**
총가족수	3명이하(161) 4명(351) 5명이상(135)	18.71 19.41 19.67	3.451 2.757 2.950	a b b	4.424*
가정생활주기	결혼적응기-자녀아동기 자녀 청소년기 자녀독립기-노년기	18.99 19.28 19.87	2.824 3.077 3.057	a ab b	3.288*

*p<.05, **p<.01, ***p<.001

2. 평생교육 참여특성

(1) 평생교육 참여특성

기혼여성의 평생교육 참여특성을 살펴보기 위해 표 5와 같이, 평생교육 참여형태, 참여프로그램, 주로 이용하는 교육기관, 평생교육 참여시간으로 주당 참여일수와 하루수강시간, 평생교육기관까지 평상시 이용하는 교통편으로 왕복이동시간, 주당 학습준비시간을 알아보았다. 평생교육 참여에 따른 교육비 부담정도 및 평생교육참여 기대효과를 조사하였다.

조사대상자들의 평생교육 참여형태는 형식교육 29.5%, 비형식교육 70.5%가 참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평생교육 프로그램별로 참여환황을 살펴보면 학력보완 27.4%, 성인기초 및 문자해독 3.1%, 직업능력향상 20.2%, 인문교양 13.3%, 문화예술교육 16.1%, 시민참여교육 10.4%, 스포츠・건강교육 7.7%, 기타 1.9%로 나타났다.

주로 이용하는 교육기관은 학교형 교육기관 참여자는 173명(26.7%)로 대학부설평생교육원 13.3%, 방송통신대학1.7%, 사이버대학 11.7%이였으며, 공공기관형 교육기관 이용자는 353명(54.7%)으로 주로 여성회관 16.1%, 평생학습관 10.5%, 사회복지관 8.8%, 도서관 7.3%, 주민자치센터 7.0%, 스포츠 건강교육센터 3.6%, 인력개발기관 1.4%를 이용하고 있었으며, 민간형 교육기관이용자는 57명(8.8%)로 주로 문화센터 7.7%, 학원 1.1%을 이용하고 있으며, 훈련 및 연수형 교육기관 이용자는 41명(6.4%)으로 주로 여성사회교육원 2.8%, 직업훈련기관 1.9%, 연수기관 1.7%을 이용하고 있으며, 시민사회단체형 교육기관 이용자는 10명(1.5%)로 주부대학 1.5%, 기타 참여자가 13명(2.0%)이 참여하고 있었다. 형식교육기관 중 가장 많이 이용하는 기관은 대학부설평생교육원을 이용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비형식교육기관으로는 여성회관을 이용하였다.

주당 평생교육참여일수는 1일 18.5%, 2일 31.1%, 3일 22.4%, 4일 10.2%, 5일 17.8% 참여하고 있으며, 주로2~3일정도 참석자가 많았다. 평생교육기관까지 왕복이동시간은 30분미만 29.4%, 30분-1시간미만 23.2%, 1시간-1시간 30분미만 33.1%, 1시간 30분 이상 14.4%로 평균 52분 이동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평생교육참여자들의 1일 학습준비시간은 30분미만 57.2%, 30분-1시간미만 17.6%, 1시간-1시간30분 10.4%, 1시간 30분 이상 14.8%로 평균학습준비시간은 56.49분을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평생교육 참여자들의 교육비에 대한 부담 정도는 '매우 부담이 된다' 2.3%, '부담이 되는 편이다' 19.6%, '보통이다' 37.6%, '별로 부담이 되지 않는다' 26.9%, '전혀 부담이 되지 않는다' 13.6%로 '보통이다'라고 느끼는 사람이 가장 많았다. 조사대상자는 평생교육참여 기대효과로 평생교육에 들어간 비용과 앞으로 평생교육을 통해 얻을 이득을 비교할 때 '비용에 비해 이득이 아주 작다' 5.4%, 비용에 비해 이득이 조금 적다 8.5%, 비용과 이득이 같다 18.9%, 비용에 비해 이득이 조금 크다 38.2%, 비용에 비해 이득이 매우 크다 29.1%로 평생교육 참여비용에 비해 이득이 크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67.3%였다.

표 5. 조사대상자의 평생교육 참여특성

구분		빈도	백분율(%)
평생교육 참여형태	형식	191	29.5
	비형식	456	70.5
평생교육과정	학력보완	177	27.4
	성인기초 및 문자해독	20	3.1
	직업능력향상	131	20.2
	인문교양	86	13.3
	문화예술교육	104	16.1
	시민참여교육	67	10.4
	스포츠・건강교육	50	7.7
	기타	12	1.9
교육기관	대학부설평생교육원	86	13.3
	방송통신대학	11	1.7
	사이버대학	76	11.7
	주민자치센터	45	7.0
	평생학습관	68	10.5
	문화센터	50	7.7
	사회복지관	57	8.8
	도서관	47	7.3
	직업훈련기관	12	1.9
	여성회관	104	16.1
	연수기관	11	1.7
	인력개발기관	9	1.4
	학원	7	1.1
	여성사회교육원	18	2.8
	주부대학	10	1.5
	스포츠건강교육센터	23	3.6
	기타	13	2.0
주당 참여일수	1일	120	18.5
	2일	201	31.1
	3일	145	22.4
	4일	66	10.2
	5일	115	17.8
	평균(표준편차)	2.78일(1.35)	
하루 수강시간	1시간	76	11.7
	2시간	279	43.1
	3시간	138	21.3
	4시간이상	154	23.9
	평균(시간)	2.96	
왕복이동시간	30분 미만	190	29.4
	30분-1시간 미만	150	23.2
	1시간-1시간30분 미만	214	33.1
	1시간 30분 이상	93	14.4
	평균(분)	50.62	

구분		빈도	백분율(%)
주당 학습준비시간	2시간 미만 2-4시간 미만 4-6시간 미만 6시간 이상	266 175 88 118	41.1 27.0 13.6 18.2
	평균(시간)	3.95	
하루 학습준비시간	30분 미만 30분-1시간 미만 1시간-1시간30분 미만 1시간 30분 이상	370 114 67 96	57.2 17.6 10.4 14.8
	평균(분)	56.49	
경제적 부담정도	매우 부담이 된다 부담이 되는 편이다 보통이다 별로 부담되지 되지 않는다 전혀 부담되지 되지 않는다.	15 127 243 174 88	2.3 19.6 37.6 26.9 13.6
평생교육 기대효과	비용에 비해 이득이 아주 적다 비용에 비해 이득이 조금 적다 비용에 비해 이득이 같다고 생각한다 비용에 비해 이득이 조금 크다고 생각한다 비용에 비해 이득이 매우 크다	35 55 122 247 188	5.4 8.5 18.9 38.2 29.1

(2) 평생교육 참여특성에 따른 개인 및 가족 변화의 차이분석

표 6은 조사대상자의 평생교육 참여 특성에 따른 개인 및 가족 변화의 차이분석결과를 나타낸 것이다. 주당평생교육 참여시간, 학습준비시간, 기대효과에 따라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0시간 이하 집단보다 20.01-30시간 이하 집단이, 학습준비시간이 2-4시간 미만집단보다 4시간 이상집단이, 비용과 이득이 같거나 비용이 크다고 생각하는 집단보다 이득이 많다고 생각하는 집단이 개인 및 가족에 있어서 변화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6. 조사대상자의 평생교육참여 특성에 따른 개인 및 가족변화의 차이분석

독립변수	구분	평균	표준편차	사후검증 (D)	t/F
평생교육 참여형태	형식(191) 비형식(456)	18.94 19.43	2.913 3.026	-	-1.906
주당 평생교육참여 사용시간	10시간 이하 10.01시간-20시간 20.01시간 -30시간 30.01시간 이상	18.97 19.52 19.56 19.56	3.051 2.874 3.090 2.774	a ab b ab	2.861*

독립변수	구분	평균	표준편차	사후검증(D)	t/F
학습준비시간(주)	2시간미만(266)	19.28	3.024	ab	5.009**
	2-4시간미만(175)	18.66	2.712	a	
	4-6시간미만(88)	19.74	3.317	b	
	6시간이상(118)	19.91	2.950	b	
교육비 지출부담	부담됨(142)	18.90	2.884	-	1.941
	보통(243)	19.27	3.227		
	부담되지 않음(262)	19.52	2.825		
기대효과	비용>이득(90)	18.70	2.973	a	5.634**
	비용=이득(122)	18.75	3.267	a	
	비용<이득(435)	19.56	2.893	b	

*p<.05, **p<.01, ***p<.001

3. 가족의 지원

기혼여성의 평생교육참여에 대한 가족지원은 가족원별로 조사하였다. 가족원은 남편, 아들, 딸, 친정부모, 시댁부모, 친구・자매 등을 대상으로 하였으며, 호응도와 지원정도로 나누어 살펴보았다.

1) 가족원의 지원실태

표 7은 가족원별 호응도와 지원정도를 나타낸 것이다. 가족원별 평균점수를 보면 남편이 3.62점으로 가장 많은 지원을 하는 것으로 나났으며, 다음으로 딸과 자매·친구 등으로 3.31점이였으며, 아들이 3.16점인 반면, 친정부모(2.80), 시댁부모(2.38) 등의 부모님의 지원점수는 중감점수인 3점에 못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 조사대상자가 평생교육에 참여하는 것을 약간 부정적으로 생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기혼여성의 평생교육을 가장 많이 지원하는 가족원은 남편인 반면, 가장 부정적으로 생각하고 지원하는 가족원은 시댁부모인 것으로 나타났다.

각 가족원들의 호응도를 살펴보면, 자매·친구 등(4.30)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다음으로 딸(4.03), 남편(3.89), 아들(3.88), 친정부모(3.81), 시댁부모(3.10) 순으로 나타났다. 또, 각 가족원들의 지원정도를 살펴보면, 남편(3.57)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다음으로 딸(3.17), 자매·친구 등(3.11), 아들(3.01), 친정부모(2.60), 시댁부모(2.24) 순이었다.

조사대상자의 평생교육참여에 대한 가족지원을 요약하면 기혼여성의 평생교육참여를 가장 좋아해 주는 사람은 자매나 친구 등의 기타지원자이고, 실질적 지원을 가장 많이 해주는 사람은 배우자인 남편이었다. 한편 시댁부모는 호응도뿐만 아니라 지원정도에서 가장 낮은 점수를 나타내어, 기혼여성이 평생교육에 참여하는 것을 지원하고 있지 않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표 7. 가족구성원에 의한 조사대상자의 평생교육참여에 대한 호응도와 지원정도

단위: 평균(표준편차)

	남편 (611)	아들 (511)	딸 (438)	시댁부모 (412)	친정부모 (458)	자매·친구 등(234)
호응도	3.89 (0.83)	3.88 (0.85)	4.03 (0.91)	3.10 (0.88)	3.81 (0.92)	4.30 (0.63)
지원정도	3.57 (0.78)	3.01 (0.93)	3.17 (0.99)	2.24 (0,90)	2.60 (1.02)	3.11 (0.93)
평균	3.62 (0.74)	3.16 (0.84)	3.31 (0.91)	2.38 (0,82)	2.80 (0.92)	3.31 (0.80)

4. 개인 및 가족의 변화

1) 개인 및 가족 변화

표 8은 개인 및 가족 변화를 살펴본 것이다. 삶의 질, 자아존중감, 가족에 대한 사랑, 부부관계, 부모-자녀관계를 영역별로 살펴보면, 삶의 질 3.94점, 자아존중감 4.07점, 가족에 대한 사랑 3.89점, 부부관계 3.56점, 부모-자녀관계 3.83점으로 나타나, 기혼여성이 평생교육 참여 후 개인 및 가족 변화에 있어서 전반적으로 향상된 것으로 응답하였다. 그 중 가장 많이 향상된 영역은 자아존중감으로 나타났다.

표 8. 개인 및 가족 변화

단위:M(SD)

삶의 질	자아존중감	가족에 대한 사랑	부부관계	부모-자녀관계	계
3.94(0.63)	4.07(0.62)	3.89(0.69)	3.56(1.10)	3.83(0.91)	3.86(0.60)

2) 기혼여성의 평생교육참여 및 가족지원이 개인 및 가족 변화에 미치는 영향

기혼여성의 평생교육참여 및 가족지원이 개인 및 가족 변화에 미치는 영향요인을 살펴보기에 앞서, 각각의 독립변수-개인특성, 평생교육참여특성, 가족지원-와 개인 및 가족 변화 변수들간의 상관관계를 파악하고 다중공선성 문제를 가지고 있는지 파악하기 위해 상관관계를 살펴보았으며, 그 결과 각각의 독립변수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관계를 나타내고 있지만, 다중공선성으로 회귀분석에 왜곡을 주는 높은 상관관계는 보이지 않았다.

조사대상자 개인 및 가족 변화에 미치는 독립변수는 연령, 학력, 총가족수, 기대효과, 가족원의 지원정도, 가족생활주기, 자기계발동기, 자아실현동기, 관계지향동기, 삶의 활력동기 등 총10가지로 구성하였다. 표 10은 10가지의 독립변수가 조사대상자의 개인 및 가족 변화에 미치는 영향요인을 알아보기 위해 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이다.

독립변수들 중 총가족수, 기대효과, 가족원의 지원정도, 자기계발동기, 자아실현동기, 삶의 활

력동기가 개인 및 가족 변화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 자아실현동기(Beta=.379)의 영향력이 가장 컸고, 다음으로 가족원의 지원정도(Beta=.271), 자기계발동기(Beta=-.124), 기대효과(Beta=.107), 총가족수(Beta=.094), 삶의 활력동기(Beta=.088) 순으로 개인 및 가족 변화에 영향을 미쳤다. 즉 자아실현동기가 높을수록, 가족원의 지원정도가 높을수록, 자기계발동기가 낮을수록, 기대효과가 클수록, 총가족수가 많을수록, 삶의 활력동기가 강할수록 개인 및 가족 변화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해석 할 수 있다. 그러나 연령, 학력, 가족생활주기, 관계지향동기는 개인 및 가족 변화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9. 평생교육참여특성 및 가족지원이 개인 및 가족관계 변화에 미치는 영향

변수	B	Beta	t값
연령	-.004	-.012	-.215
학력	.128	.048	1.266
총가족수	.294	.094	2.678**
기대효과	.279	.107	3.023**
가족 지원	.220	.271	7.043***
가족생활주기	-.120	-.040	-.755
자기계발동기	-.049	-.124	-2.650**
자아실현동기	.216	.379	8.230***
관계지향동기	-.018	-.022	-.467
삶의활력동기	.087	.088	2.160*
상수	8.242		7.179***
R^2	.248		
Adj. R^2	.235		
F	20.426***		

*p<.05, **p<.01, ***p<.001

Ⅴ. 결론 및 논의

지금까지의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주된 연구결과를 요약정리하고 이에 따른 논의를 전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조사대상자의 사회인구학적 특성에 따른 개인 및 가족 변화의 차이를 살펴본 결과, 거주지역, 총자녀수, 가계월소득, 총가족수, 가정생활주기에 따라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조사대상자의 평생교육 참여 특성에 따른 개인 및 가족 변화의 차이를 살펴본 결과, 주당평생교육 참여시간, 학습준비시간, 기대효과에 따라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조사대상자의 평생교육참여를 가장 좋아해 주는 사람은 자매나 친구 등의 기타

지원자이고, 실질적 지원을 가장 많이 해주는 사람은 배우자인 남편이었다. 한편 시댁 부모는 호응도뿐만 아니라 지원정도에서 가장 낮은 점수를 나타내어, 기혼여성이 평생교육에 참여하는 것을 지원하고 있지 않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넷째, 조사대상자의 평생교육참여 및 가족지원이개인 및 가족 변화에 미치는 영향요인을 분석한 결과, 총가족수, 기대효과, 가족원의 지원정도, 자기계발동기, 자아실현동기, 삶의 활력동기가 개인 및 가족 변화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분석결과를 바탕으로 평생교육에 참여하고 있는 기혼여성들이 개인 및 가족에 있어서 긍정적인 변화를 불러일으키기 위한 제언을 하자면 다음과 같다.

기혼여성들이 평생교육에 참여하는 데에 있어서 가족의 역할을 매우 중요하다. 많은 선행연구들에서도 배우자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하였는데, 본 연구에서도 배우자인 남편의 역할이 중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우선 기혼여성의 평생교육참여에 대한 남편의 인식제고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또 기혼여성이 평생교육에 실질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여러 가지 지원-가사노동이나 자녀양육 등과 관련한 실질적인 지원-이 절실하게 필요하다. 만일 배우자인 남편이 이런 지원을 할 수 없는 경우라면, 다른 가족원들이 대신하는 경우도 생각해 볼 수 있으며, 아니면 사회적으로 도움을 줄 수 있는 방안도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선행연구결과를 통해서 평생교육 참여동기는 개인특성에 따라 달리 나타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평생교육 참여동기가 현재의 상황을 반영하는 것이라면, 평생교육에 참여하는 여성들은 변화와 성장을 요구하는 것으로 성장과 변화하고자 하는 욕구가 충족될 수 있도록 제도적지원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참고문헌]

강순희・노홍성(2000). 직업훈련의 취업 및 임금효과. **노동경제논집, 23**(2), 127-151.

강태중・조순옥(2010). 평생학습의 사회적 성과탐색: 국민보건의 향상, 사회민주화와 인권보장, 사회평등의 진흥을 중심으로. **평생교육학연구, 16**(4), 243-270.

강혜원・한혜경(2005). 부정적 가족 생활사건, 배우자 지지와 정신건강: 성별차이를 중심으로. **대한가정학회지, 43**(8), 55-68.

교육과학기술부(2012). **2012년 평생교육통계조사**

교육과학기술부・한국교육개발원(2012). **2011・2012 평생교육백서**

구본장・장충성(2002). 인적자본과 직무특성이 임금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대전대학교 **사회과학논문집 21**(2), 1-23.

권재현・윤선영(2009). 성인학습자들의 학습태도가 평생학습 참여 및 학습의 사회적 성과에 미치는 영향분석. **평생교육학연구, 15**(3), 85-110.

권태연(2009). 노년기 연소노인, 중고령노인, 초고령노인 집단의 스트레스 요인과 자아존중감이 우울에 미치는 영향-자아존중감 제2요인의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사회복지연구, 49**(1), 164-196.

김남선(2002). 평생교육을 통한 지역사회복지 향상방안. 대구대학교 사회복지연구소 **사회복지연구 제33집**.
김경신・김오남(1996). 맞벌이 부부의 역할기대 및 역할갈등과 결혼만족도, **한국가정관리학회지**, 14(2), 1-18.
김경원(1989). **친족관계망 유대 특성에 관한 연구**. 석사학위논문 서울대학교.
김규태・김재금・김종철・공은배・오지연・장윤정・신진영・박혜숙・김태길(2010). 2010년 한국 성인의 평생학습 실태, 교육과학기술부, 한국교육개발원.
김애련(2004). 대학평생교육원의 성인학습자의 학습성과 인식 연구. **평생교육학연구**, 10(2), 129-165.
김종서・김신일・한숭희・강대중(2000). 평생교육개론. 경기도 파주시: 교육과학사
박수정(1992). **중년기 여성의 적응에 관한 연구**. 석사학위논문 숙명여자대학교.
보건복지가족부(2008). **노인실태조사**
송혜림(2000). 맞벌이 가정에서 남편의 가사노동참여 실태, **생활과학논문집**, 1(1), 103-115
신기영(1991). 중년기 주부의 위기감과 사회관계방 지원에 관한 연구. 석사학위논문 서울대학교.
여성가족부(2010). **가족실태조사**.
유가효(1984). **도시빈민의 사회적 관계망에 관한 연구**. 석사학위논문 서울대학교.
이경아(2008). 평생학습 참여의 사회적 자본 형성 효과에 관한 실증 연구. **평생교육학 연구**, 14(2), 117-146.
이경희(1988). 가족생활주기에 따른 주부의 사회관계망에 관한 연구. 석사학위논문 서울대학교.
이신숙·차용은(2003). 기능손상노인의 우울감과 가족지지, 공적지지 간의 관계, **대한가정학회지**, 41(3), p165-180.
장진경 외(2006). 건강가정지원센터에 대한 전문가 및 실문자의 역할인식 조사연구. **대한가정학회지**. 18(3), 63-90.
장진호(1985). **평생교육과 사회교육**. 서울: 대사출판사.
정광호(2008). 인적자본이 지역사회의 시민활동에 미치는 영향-15세 OECD국가를 중심으로-, **한국행정정보**, 37(3), 117-138
정명숙(2007). 노년기 삶의질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 **노인복지연구**, 37. 249-274.
정영금(2006). 기혼취업여성의 일-가족 균형감와 지원용이도/요구도에 관한 연구, **한국가정관리학회지**, 24(2), 107-118
정영숙・최효선・성지훈(2008). 원격대학 전업/취업 주부 학습자의 인구통계학적 및 교육적 특성, **평생교육학연구**, 14(4), 103-132
정현숙(1997). 맞벌이 가족의 부모역할 긴장과 부부관계, **대한가정학회지**, 35(5), 151-162.
조남조(2006). 여성학습자의 평생교육 참여 실태에 관한 연구. 석사학위논문 대구대학교 교육학과 평생교육전공.
조희금(2003). 가족자원경영측면에서 본 건강가정육성, 제8차 추계학술대회 p 33-56
조희금(2010). 건강한 가정, 우리사회의 미래: 가족정책의 새로운 도약을 위한 진단과 과제, **제7차 가족정책포럼**, 1-57,3월 19일. 서울: 중안건강가정지원센터 7층 교육장.

조희금·박미석(2004). 건강가정기본법의 이념과 체계. 한국가정관리학회지, 22(5), 331-344.

최성재 · 장인협(2008). **노인복지학.** 서울: 서울대학교 출판부

최운실 · 김현철 · 변종임(2005). 평생교육 참여 실태 분석 연구. 한국교육개발원.

한상미(1997). 장애인의 사회관계방과 생활만족도-부천시 장애인을 중심으로. 석사학위논문 가톨릭대학교.

한형수(2008). 노인의 삶의 질의 객관적 지표와 주관적 만족도에 관한 연구. **노인복지연구, 39**, 347-372.

황종건(1978). **한국의 사회교육**. 경기도: 교육과학사

Arling, G.(1976). The Elderly Widow and Her Family, Neighbors and Family. *Journal of Marriage and the Family November 38*, 757-768.: 임효영·김경신(2001). 중년기 기혼여성의 사회적지원망이 생활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대한가정학회지 39**(12), 189-203.재인용

Browman, L. C., Riba, M. L., & Trahan, M. R.(1996). Traumatic Events and MaxiltalWell-Being, *Journal of Marriage and Family, 58*, 908-916. 강혜원 · 한혜경(2005). 부정적 가족 생활사건, 배우자 지지와 정신건강: 성별차이를 중심으로. **대한가정학회지, 43**(8), 55-68. 재인용

Cicirelli, W. G.(1982). *Sibling influence throyght the life-span. In Lamb M. E. & Sutton smith B.*(ed). sibling Relationships: The Nature and significance oer the Life spen. N.J: Lawrence Erlbaum: 임효영·김경신(2001). 중년기 기혼여성의 사회적지원망이 생활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대한가정학회지 39**(12), 189-203.

Dave. R. H.(1976). *Foundations of Lifelong Education, Institution of Education*. Humburg: UNESCO.

Lengrand Paul(1970). *An Introdution to Lifelong Education*. Paris: UNESCO.조남조(2006). 여성학습자의 평생교육 참여 실태에 관한 연구. 석사학위논문 대구대학교 교육학과 평생교육전공. 재인용

Merriam, S. B.and Caffarella, R. S. (1999). *Learning in adultbood*(2nd ed) San Francisco: Jossey-Bass. 권두성·조아미(2001). **성인학습 및 상담** 서울: 교육과학사. 재인용

Olson, D. H.(2004). Marital and family strengths: an international perspective. KIFS, *Korean International Family strengths Conference*, 23-30. 조희금·김경신·정민자·송혜림·이승미·성미애·이현아(2005) **건강가정론.** 서울: 신정. 재인용

Scott, C., Burns, A., & Cooney, G.(1996). Reasons for discontinuing study: the case of mature age female students with children. *Higher Euducation. 31*, 233-253. 정영숙·최효선·성지훈(2008). 원격대학 전업/취업 주부 학습자의 인구통계학적 및 교육적 특성, **평생교육학연구, 14**(4), 103-132 재인용

Thoits, P. A.(1983). *Dimensions of life events that influence psychological distress: An evaluation and synthesis of the literature*. In H.B. Kaplan(Ed.), psychosocial stress, New York: Academic. 강혜원 · 한혜경(2005). 부정적 가족 생활사건, 배우자 지지와 정신건강: 성별차이를 중심으로. **대한가정학회지, 43**(8), 55-68. 재인용

경북지역 여성일자리 창출을 위한 특성 분석

박 은 미(경북여성정책개발원)

I. 서 론

21세기 지식정보화의 환경적 변화와 더불어 저출산과 고령화라는 인구구조의 변화 속에서 여성인력에 대한 투자와 활용은 국가경쟁력 제고를 위한 중요한 과제로 인식되고 있다. 제2차 여성인력개발종합계획(2011~2015)』수립에 따른 여성인력개발 및 활용을 위한 지역특화 프로그램을 기획·구성하여 고학력경력단절여성을 포함한 지역의 유휴여성인력에 대한 여성인력활성화 프로그램 개발이 필요하다. 하물며, 기술혁신의 빠른 진행과 함께 생산시장과 노동시장이 급속하게 변화하여 고학력, 고숙련 인력에 대한 수요가 증가함에도 불구하고 경북지역 여성일자리에 대한 수요와 공급 조사가 미흡한 상황이다. 즉 권역별 성별 취업자 비중에서 북부자원권이 45.2%로 가장 높고, 남부도시권이 42.5%로 그 다음이며, 동부해양권과 서부산업권이 각각 41.0%와 40.9%로 낮게 나타나고 있는 실정이다. 이와 같은 양상은 농업의존성이 가장 높은 북부자원권의 여성취업자의 성별 비중이 가장 높고, 도농복합도시가 많은 남부도시권이 그 다음 순으로 나타난 반면에, 여성취업자 수가 적은 제조업이나 서비스업의 비중이 높은 동부해양권과 서부산업권이 상대적으로 여성취업자 비율이 낮음을 알 수 있다. 경북지역은 대표적으로 농도(農道)라는 지역적 특성대로 '농림어업직' 쏠림현상을 보이고 있는데, 취업여성 3명중 1명은 농림어업직에 종사하고 있어서 남성 농림어업종사자보다 높은 비중을 보여, '농촌인력의 여성화' 현상을 보여 주는 특징이 있다. 따라서 경북지역 여성의 일자리를 확보하고 지원할 수 있는 체제 구축 전략이 필요하며, 경력단절여성이 원하는 양질의 시간제 일자리도 발굴할 필요가 있다. 여성가족부는 채용관 구축을 위한 업무협약 체결에서 여성 시간제 일자리 채용관을 실시하여 채용정보에 대한 검수수준을 강화하고, 양질의 시간제 일자리 개념에 부합하는 일자리 정보만을 선별해서 제공하게 함(여성가족부, 7월 23일). 시간제 일자리는 일·가정 양립 뿐만 아니라 자기개발, 업무성격 등에 따라 근로자의 자발적 수요를 반영할 경우 인력을 효율적이고 탄력적으로 운용할 수 있는 매우 유용한 근로형태 중의 하나이다.

이를 위한 전제로서 경북지역 권역별 여성일자리에 대한 수요와 공급을 분석하고, 각 권역별로 여성일자리의 유형과 특성을 논의해야 할 필요가 있다. 경북지역 권역별 맞춤형 여성일자리 유형화를 통해 여성일자리 수요공급의 미스매칭을 최소화할 수 있는 맞춤형 교육프로그램 개발과 함께 여성취업률 증대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Ⅱ. 이론적 논의

여성경제활동분석에 대한 연구들은 다양한 측면에서 접근되고 있다. 여성노동 및 인력개발의 측면에서는 주로 취업여성의 실태분석과 성에 따른 취업관련 요인분석이나, 비취업 여성을 대상으로 한 욕구조사가 실시되었다. 그리고 이러한 조사를 토대로 여성고용 확대를 위한 정책처방이 제시되어 왔다. 여성경제활동에 관한 대표적인 연구들을 검토해보면, 기혼여성의 취업실태(김태홍, 1993), 성에 다른 취업관련 요인분석(양승주, 1993)과 같이 초기에는 취업기혼여성을 대상으로 조사가 이루어졌다. 이러한 조사결과 여성의 경제활동 분석을 통해 미혼 혹은 결혼 초기에 경제활동 참가율이 증가하다가 급격히 감소한 뒤 중년이후 기혼여성의 참여가 급속히 증가하는 여성의 노동시장 경력단절현상을 나타내는 M자형 형태로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경험적으로 밝혀졌다(김태홍, 1993). 이후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의 활성화에 대한 관심은 기존 취업 여성연구에 더하여 예비노동력으로 파악되는 비취업 기혼여성에 관한 연구들로 확대되었다(강세영, 1996; 김혜연·김순미, 1997). 강세영(1996)은 비취업 여성의 취업조건과 기업의 고용조건을 검토하면서, 여성의 취업확대를 위해서는 보육시설과 서비스 확대, 재취업을 위한 교육기회의 제공, 취업단계에서 취업기관의 취업알선기능 및 정보서비스 제공의 활성화가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하였다. 또한 여성취업확대를 위해서는 기업체의 고용 외에도 다양한 분야에서 자영업을 통한 경제활동방안이 강구되어야 하며, 신축적 근무시간제 운영과 각종 복지제도, 임금수준 향상 등 제도적 뒷받침이 선행되어야 한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다. 기혼여성 인력의 활용을 위해서는 노동시장의 조건이나 기회를 개선하는 정책도 중요하지만 가사의 분담과 자녀양육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사설기관 및 공공시설에 대한 투자가 이루어져야 한다는 점이 강조되었다. 이와 같이 여성경제활동에 관한 연구들은 방법론적 측면에 있어서는 문헌연구 중심의 규범적 접근에서부터 1·2차 자료를 이용한 계량적 분석에 의한 설명적 혹은 처방적 연구에 이르기까지 다양하게 전개되어 왔다.

이러한 여성고용의 실태분석과 영향요인 파악을 위한 연구경향은 최근에도 이어져 여성고용활성화를 위한 인적자원개발과 고용창출에 관한 처방적 연구(전의천·임태성, 2005)나 실증적 연구(안영식·이경구, 2002)로 나타나고 있다. 이들에 의하면, 지역차원의 여성인력 취업의 장애요인으로는 취업알선을 위한 전문상담과 정보제공의 미비와 직업훈련프로그램 활동의 가장 큰 장애요인으로서 경제적 곤란과 육아 및 간병 등 가사문제가 제시되고 있다. 그에 따라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 활성을 위한 정책적 배려의 초점은 탁아시설 서비스 제공, 기혼여성의 취업교육 및 육아후재취업 제도의 도입 등에 둘 필요가 있음을 강조하고 있다. 그리고 지식산업구조의 변화 속에서 여성이 경쟁력을 가지고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고부가가치 직종을 개발하는 노력이 경주되어야 하고, 또한 상시고용의 창출의 현실적 어려움을 감안할 때 자발적으로 비정규직을 원하는 기혼여성 인력을 적절히 활용하기 위한 다양한 고용형태의 도입이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보다 다양한 주제를 다루면서 방법론적으로도 세련된 양태를 보이고 있다. 먼저, 여성경제활동참가율 증가현상 속에서도 한국 여성노동시장의 특징인 경력단절현상에 주

목한 정성미(2006)는 여성의 재취업 및 고용형태의 결정요인에 관한 프로빗 분석을 통해 경력단절이 고용안정성의 취약요소로 작용하여 노동시장 재진입에 있어 불안정한 고용형태 유발하고 있음을 실증적으로 분석하고 있다. 그에 따르면 여성 재취업의 영향요인으로 연령, 영유아기 자녀, 혼인상태, 가구주 여부 등의 인적 특성과 이전 직장의 사업체규모와 임금 요인이 작용하고 있고, 재취업 고용형태 결정요인 분석결과 여성의 고용안정성 보장을 위해서는 연령, 학력, 이전직장 고용형태, 사회보험의 수급여부가 중요한 요인이 된다는 점을 밝히고 있다. 홍현미라(2005)는 인적자본과 인간능력의 이론적 모형을 바탕으로 실직여성의 고용정책개발을 위해 실업기간과 재취업여부를 분리하여 각각 다중회귀분석과 로지스틱회귀분석 방법을 이용하여 영향요인을 검증하였다. 연구결과, 여성실업자의 실직기간에 영향력을 미치는 변수로는 학력수준, 근속기간, 전직고용형태, 이직사유, 건강보험가입여부, 생활지불 능력, 연령 및 연령제곱, 수도권거주여부이며, 재취업에 대해서는 기술수준, 근속기간, 의료지출, 혼인여부가 영향요인으로 확인되었다. 이에 따라 실직여성의 고용정책개발을 위해서는 인적자본관점과 인간능력관점을 통합한 모형이 필요함을 강조한다.

여성고용의 실태와 영향요인에 대한 분석적 연구와 달리 일단의 연구들은 좀 더 다양한 주제를 다룸으로써 연구의 외연을 확장하고 있다. 이를 테면, 여성인적자원의 활용을 위해서는 가족친화적 정책의 필요성을 주장하는 연구(정영금, 2002), 국내외 비교연구를 통해 여성인적자원개발 기관의 현황 분석을 통해 여성인적자원개발의 정책적 과제를 제시한 연구(나영선・고혜선, 2004), 그리고 적극적 고용조치에 따른 기업의 여성인력 활용현황과 영향요인 분석(김향아・성혜진, 2006) 등이 그것이다. 그런데 이와 같이 여성고용 및 인적자원개발 연구의 다양화에도 불구하고 문제는 기존 연구들이 대부분 중앙정부 차원에만 초점을 두고 있어 정책 일선이라 할 지방정부 차원의 여성인적자원개발 문제를 소홀히 다루고 있다는 점이다. 여성 인적자원개발 및 활용이 국가적 과제로 등장하고 있다는 점이나 노동시장의 수요와 공급 측면의 문제해결을 위한 체계적인 정책적 노력이 요청되고 있다는 점에서 여성인적자원개발을 위한 중앙정부차원의 역할이 중요하지만, 지방정부의 역할 또한 간과될 수 없는 불가결의 요소라 할 것임. 그것은 지역이야말로 시민들이 거주하고 생활하는 근거지로서 노동시장의 실태와 욕구를 정확히 알 수 있기 때문이다.

지금까지 중앙정부가 아닌 지방자치단체 수준에서 여성인적자원개발 연구 및 여성인적자원개발 기본계획을 수립한 곳은 경기도가 유일하다(김태홍・나영선・송병국・양인숙, 2002; 김태홍, 양인숙, 2002). 이러한 맥락에서 여성 취업 지원과 고용안정을 위한 지역사회의 역할을 강조한 최영미(2005)의 연구가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할 것이다. 여성인력개발을 위한 유효한 정책설계는 그 지역에 살고 있는 여성의 경제활동 욕구와 장애요인, 노동 취약계층의 실태와 욕구, 그리고 여성 고용 실태 등에 대한 정확한 정보에 근거해야 할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 이런 점에서 본 조사연구는 기존 선행연구들이 소홀히 다루어 온 지역적 차원의 조사연구라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이다. 즉 본 조사연구는 경상북도의 지역실정에 맞는 여성일자리 창출사업에 필요한 기초자료를 제공할 것으로 본다.

Ⅲ. 경북지역 여성취업 현황 분석

1. 여성취업자 현황

2013년 1/2분기 현재 경북지역의 여성취업자 수는 602천명으로 이는 전체 경북지역 취업자의 42.8%로 이는 경북지역 남성취업자 803천명에 비해 14.4%가 적은 수침임. 그렇지만 전국 여성취업자 비율 41.9%보다는 0.9%가 상회하는 수치이다.

2010년 대비 2013년 현재의 여성취업자 비율의 추이를 보면, 전국 여성취업자 비율이 41.2%에서 41.9%로 0.7%가 증가한데 비해 경북지역 여성취업자비율은 41.6%에서 42.8%로 1.2%가 증가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여성 취업자 수와 전체 취업자 중 여성 비율은 증가세에 있으며, 특히 전국 평균에 상회하는 수준으로 변화를 보이고 있다.

〈표 Ⅲ-1〉 경북지역 여성취업자 현황

(단위: 천명)

구분	2010년 4/4분기		2013년 1/2분기		여성비율 증감*
	여성	남성	여성	남성	
전국	9,755 (41.2%)	13,930 (58.8%)	10,518 (41.9%)	14,586 (58.1%)	+0.7%
경북	553 (41.6%)	776 (58.4%)	602 (42.8%)	803 (57.2%)	+1.2%

자료 : KOSIS(국가통계포탈), 지역별고용조사, 2010년 4/4분기, 2013년 1/2분기
주 * : 전체취업자 중 여성취업자 비율의 증감

전반적인 여성취업자의 연령별 분포를 보면, 여성은 남성에 비해 20대 이하 계층에서만 우위에 있고 나머지 모든 연령층에서 상대적으로 열위에 있다. 경북지역의 경우도 동일한 양상을 보이고 있으며, 전국 여성취업자의 분포에 비해 30대 이하의 청년층 여성취업자 비율은 전국 평균보다 낮은 반면에 40대 이상에서는 상대적으로 높은 분포를 보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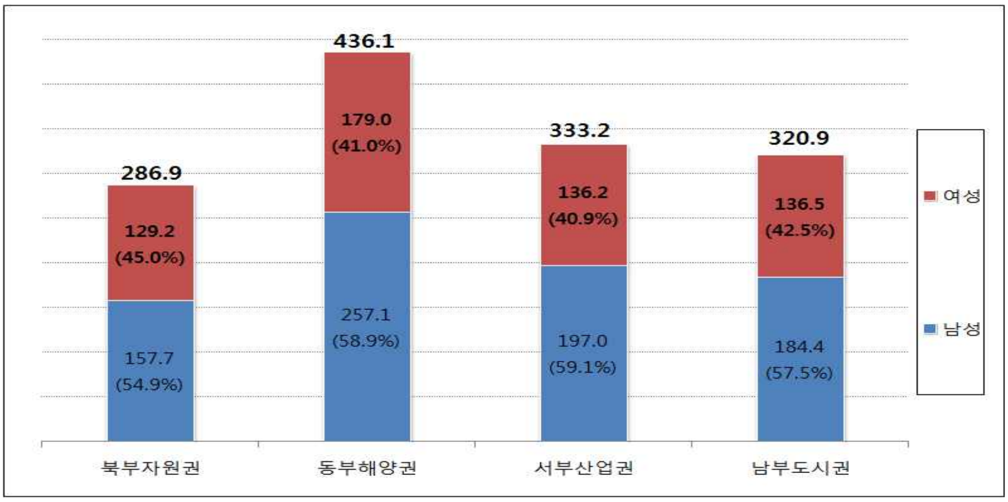
구체적으로 경북지역 여성취업자의 연령별 분포는 20대에서 가장 높았다가 30대에서 가장 낮은 수준으로 급감한 뒤 40대부터 증가세를 보이고 60대 이상 연령층까지 계속 높아지는 V자 형태를 보인다. 이와 같은 양상은 결혼과 육아에 따른 경력 단절이 전국 평균보다 높다는 점과 경북지역의 산업적 특성으로 중장년층 여성의 농업 종사자 수가 많기 때문에 고연령층 여성의 취업자 비율이 높다는 점을 반영하는 결과이다.

또한, 경북지역 여성취업자의 학력별 구성비를 검토하면, 중졸 이하가 39.4%로 가장 높고, 그 다음이 고졸이 32.4%를 차지하고 있으며, 대졸이상은 27.9%로 가장 적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이러한 구성비는 전국 여성취업자의 학력별 구성비와 반대 양상임. 전국 여성취업자 학력별 구성은 대졸(38.6%) > 고졸(37.4%) > 중졸 이하(23.9%)의 순이다. 이와 같은 학력별 구성의 차이는 경북지역 여성 취업자의 경우 학력이 높은 30대 이항계층에서 경력단절현상이 강하게 나타나는 반면에 학력이 낮은 고연령층의 경우 농업 종사자 비중이 높아 취업자 비율이 높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2. 경북지역 권역별 여성취업자 현황

경북지역 여성취업자 현황을 권역별로 검토하면, 여성취업자의 수는 동부해양권 179천명, 남부도시권 136.5천명, 서부산업권 136.2천명, 북부자원권 129.2천명의 순으로 높게 나타나고 있으나 권역별 여성취업자 수는 인구규모가 크게 반영된 것이다. 권역별 성별 취업자 비중에서는 북부자원권이 45.2%로 가장 높고 남부도시권이 42.5%로 그 다음이며, 동부해양권과 서부산업권이 각각 41.0%와 40.9%로 낮게 나타났다. 이와 같은 양상은 여성취업자 비율이 높은 농업이 차지하는 권역별 비중 때문으로 보인다. 즉 농업의존성이 가장 높은 북부자원권의 여성취업자의 성별 비중이 가장 높고 도농복합도시가 많은 남부도시권이 그 다음 순으로 나타난 반면에, 여성취업자 수가 적은 제조업이나 서비스업의 비중이 높은 동부해양권과 서부산업권이 상대적으로 여성취업자 비율이 낮음을 알 수 있다.

(단위 : 천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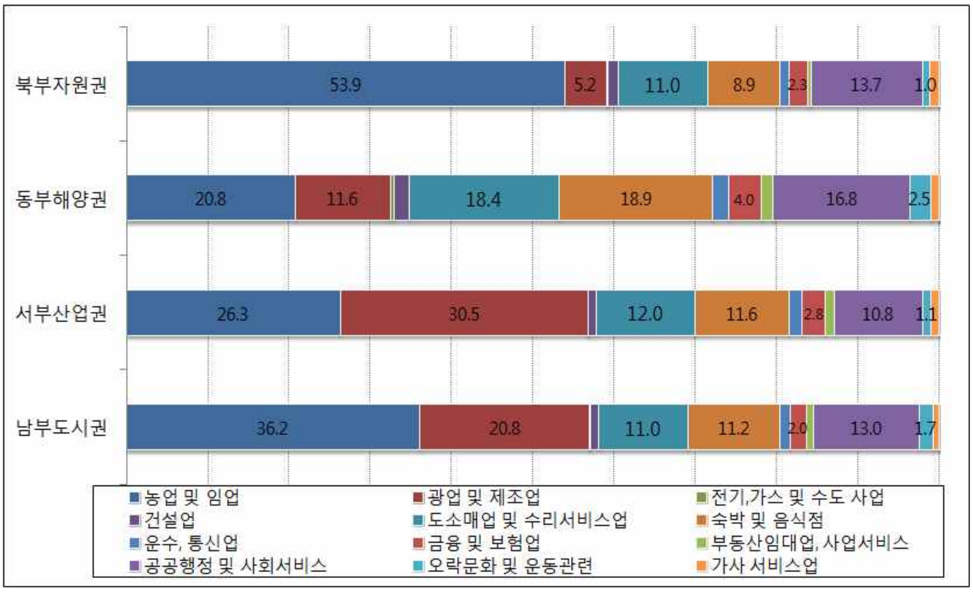


<그림 Ⅲ-1> 경북지역 권역별 여성취업자 현황

자료 : KOSIS(국가통계포탈), 지역별고용조사, 2013년 1/2분기

권역별 여성취업자의 업종별 분포를 살펴보면, 각 권역의 산업적 특성이 그대로 나타났다. 먼저 북부자원의 경우 농업과 임업 종사자 비율이 53.9%로 과반을 상회하고 있고, 그 다음으로 공공행정 및 사회서비스 종사자가 13.7%, 도소매 및 수리서비스업 11.0%, 숙박 및 음식점 8.9%의 순으로 높게 나타났고, 제조업 여성취업자 비율은 5.25%에 불과하다. 동부해양권은 농업 및 임업 20.8%, 숙박 및 음식점 18.9%, 도소매 및 수리서비스업 18.4%, 공공행정 및 사회서비스 16.8%, 제조업 11.6%로 고른 분포를 보인다. 서부산업권은 제조업이 30.5%로 가장 많고, 그 다음이 농업 및 임업 26.3%이며, 도소매 및 수리서비스업 12.0%, 숙박 및 음식점 11.6%, 공공행정 및 사회서비스 10.8%로 나타났다. 남부도시권은 농업 및 임업이 36.2%로 가장 많고, 제조업 20.8%, 공공행정 및 사회서비스 13.0%, 숙박 및 음식점 11.2%, 도소매 및 수리서비스업 11.0%의 순으로 나타났다.

(단위 : 천명)



<그림 Ⅲ-2> 경북지역 권역별 여성취업자의 업종별 분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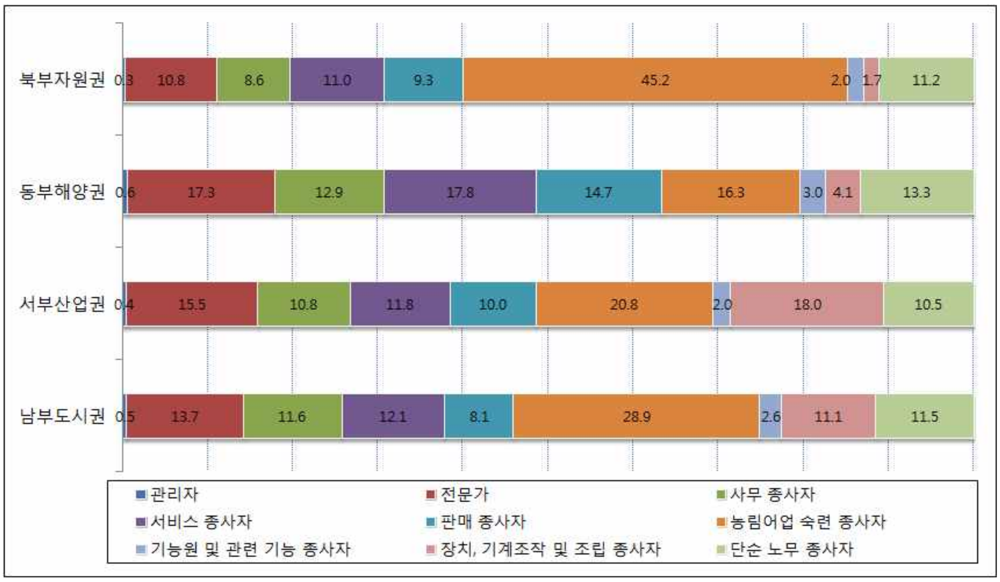
자료 : KOSIS(국가통계포탈), 지역별고용조사, 2013년 1/2분기

경북지역 여성취업자 업종의 권역별 특성을 요약하면 북부자원권은 농업종사자가 절대적으로 높은 비중을 보이고, 남부도시권은 농업종사자 비중이 많지만 상대적으로 제조업 종사자 비중도 높은 전형적인 도농복합적 양상을 보인다. 서부산업권은 제조업 종사자의 비율이 가장 높은데 이는 구미시의 전자산업과 섬유산업과 같은 여성 친화적 제조업 비중이 크기 때문이다. 동부해양권은 포항시의 중공업중심의 산업적 특성으로 인해 제조업 비중에 비해 여성취업자의 제조업 종사자 비율이 낮고 경주시의 문화관광 및 포항시와 영덕군의 해양관광 산업 속성으로 도소매업, 숙박 및 음식점업 등의 종사자 비율이 높다.

드리고 경북지역 권역별 여성취업자 직업 분포의 특성은 앞의 업종별 특성과 비슷한 양상을 보이며, 전반적으로 농림어업 종사자의 비중이 높지만 세부적인 구성비는 권역에 따라 상당한 차이가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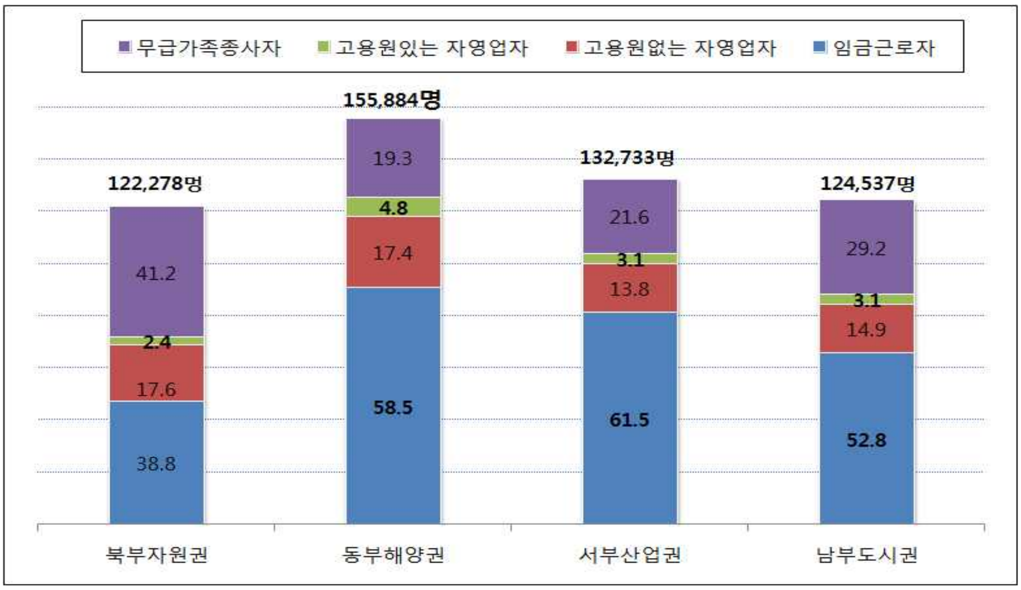
북부자원권의 경우 농림어업 종사자가 45.2%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고 그 다음으로 남부도시권의 경우에도 농림어업 종사자가 28.9%로 높게 나타나고 있다. 그런데 남부도시권은 북부자원권과 달리 제조업 종사자 비중도 11.1%로 높음. 서부산업권과 동부해양권의 경우 농림어업 종사자 비중은 각각 20.8%와 16.3%로 상대적으로 낮은 수치를 보인다. 동부해양권의 경우에는 서비스업 종사자와 전문가 비중이 각각 17.8%와 17.3%로 높게 나타났고, 서부산업권은 장치, 기계조작 및 조립 종사자 비중이 18.0%로 높게 나타나 다른 권역과 차별화된 특성을 보이고 있다. 경북지역 여성취업자의 종사상지위별 분포를 보면 북부자원권과 다른 지역과의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다.

(단위 : %)



<그림 Ⅲ-3> 경북지역 권역별 여성취업자의 직업별 분포
자료 : KOSIS(국가통계포탈), 지역별고용조사, 2013년 1/2분기

(단위 : %)



<그림 Ⅲ-4> 경북지역 권역별 여성취업자의 종사상지위 분포
자료 : KOSIS(국가통계포탈), 지역별고용조사, 2013년 1/2분기

북부자원권의 경우 농림어업에 종사하는 여성취업자의 비중이 높기 때문에 무급종사자 비중도 41.2%로 매우 높았지만, 남부도시권은 29.2%, 서부산업권은 21.6%, 동부해양권은 19.3%의 순으로 나타났다. 북부자원권 외의 권역에서는 모두 임금근로자의 비중이 가장 높음. 여성취업자의 제조업 비중이 높은 서부산업권의 여성취업자 임금근로자

비율이 61.5%로 가장 높고, 서비스업과 숙박음식점 비중이 높은 동부해양권에서는 58.5%이며, 무급종사자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은 남부도시권의 경우 임금근로자 비율은 52.8%로 나타났다. 고용원 없는 자영업자 비중은 북부자원권이 17.6%로 가장 높고 서부산업권이 13.8%로 가장 낮음. 고용인 있는 자영업자의 경우에는 동부해양권이 4.8%로 가장 높고 북부자원권이 2.4%로 가장 낮으며, 이와 같이 고용인 있는 여성 자영업자의 비중은 모든 권역에서 5%로 이하에 머물러 있다.

Ⅳ. 경북지역 여성일자리 특성 분석

1. 여성일자리 특성 분석을 위한 FGI 개요

경북지역 권역별 여성일자리 특성을 분석하기 위해 학계전문가, 유관기관, 기업 CEO 등 총 7명을 대상으로 FGI(초점집단면접)를 실시하였다. 경북지역 권역별로 여성일자리에 대한 수요와 공급 조사를 통해 맞춤형 여성일자리 발굴을 위한 기초자료 마련하고자 한다. 이러한 조사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FGI(초점집단면접)을 실시하기 일주일전에 질문지를 E-Mail로 송부함으로써 면접자들이 면접내용을 충분히 숙지한 후 FGI(초점집단면접)를 참석할 수 있도록 한다.

조사내용은 권역별 맞춤형 여성인력 양성을 위해 북부자원권, 동부해양권, 서부산업권, 남부도시권으로 4개의 영역으로 구분하여 추진한다. 권역별 여성인력을 필요로 하는 직종, 경북지역 전략산업 및 신성장동력산업, 권역별 맞춤형 여성일자리 발굴사업과 관련하여 가장 시급히 지원해야할 타켓 집단, 여성인력이 저조한 분야 등을 질의하였다.

2. 여성인력 양성 필요성 인식 분석

권역별 맞춤형 여성일자리에 확산을 위해 경상북도 종합발전계획(2012-2020)에 따라 4개의 권역으로 구분하여 추진하였다. 권역별 비전과 목표에 따른 여성일자리 창출에 중점을 두고자 한다.

<표 Ⅳ-1> 경북지역 권역별 비전 및 목표

권역	지역	비전 및 목표
북부 자원권	안동시, 영주시, 문경시, 청송군, 영양군, 예천군, 봉화군	• 비전 : 신발전 거점 : 백두-낙동 그린파라다이스 • 목표 : 세계적 문화환경지역, 국토의 신발전거점, 녹색산업기반지역, 고품격 정주도시
동부 해양권	포항시, 경주시, 영덕군, 울진군, 울릉군	• 비전 : 신해양시대 녹색산업 및 해양관광의 중심 • 목표 : 첨단 R&D기반의 녹색산업 거점, 오감체험형역사문화, 해양관광 거점
서부 산업권	김천시, 구미시, 상주시, 군위군, 의성군	• 비전 : 세계로 열린 첨단산업 네트워크 도시 • 목표 : IT융복합산업 글로벌 거점 도약, 녹색산업관광문화 육성, 녹색성장 도시화 선도
남부 도시권	경산시, 영천시, 청도군, 고령군, 성주군, 칠곡군	• 비전 : 차세대 지식기반서비스 연합도시 • 목표 : 수송시스템산업(자동차부품 등) 전략적 육성, 한방/의료산업 기반 구축

경북지역별 여성인력 분포에서 구미, 영천, 포항 등의 중심은 지역산업 여성전문인력 양성이 집중화되고 있으며, 울진, 영덕 등의 해안과의 접근성이 강한 지역들은 어업종에 대한 전문인력이 주를 이루고 있다. 안동, 성주, 청도, 영양 등의 지역들은 지역특산물을 특화시켜 새로운 산업군을 발생시켜 여성인력들에 대한 수요를 높이고 있으나, 나머지 지역들은 단순 농업중심의 인력들이 주를 있다. 이에 권역별 여성인력을 필요로 하는 직종에 심층면접한 결과, 북부자원권은 지역의 특산물을 활용한 직종, 상담직, 이주여성인력 활용한 관광가이드 등이 있다. 동부해양권은 녹색산업 및 해양관관의 중심 도시를 지향하기 위해 운송 및 여가서비스직, 해양 및 관광 관련 직종, 다문화 가정 상담 및 한국어 교육 등이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서부산업권은 참단산업 네트워크 도시를 지향하기 위해 금속 및 비금속 관련 기계 조작, 전기 및 전자 관련 조작, 식품가공 관련 기능직, IT 관련 제조업 종사자, 4대간 관련 시설 종사자 등을 필요로 한 것으로 보인다. 남부도시권은 차세대 지식기반서비스 연합 도시를 지향하기 위해 경영 및 회계 관련 사무직, 제조 관련 단순노무직, 자동차 부품 산업 종사자, 한방 및 의료기기 산업 종사자 등을 필요로 한 것으로 보인다.

〈표 Ⅳ-2〉 경북지역 권역별 여성인력 필요 직종

권역	직종	배경
북부 자원권	식품가공관련 기능직	지역 특산물을 활용한 농식품가공산업 활성화 전망
	경영 및 회계 관련 사무직	농식품산업 성장에 따라 사무직종 수요 증가 기대
	관광가이드(통역 포함)	지역의 풍부한 역사 문화 관련 인프라와 이주여성인력 활용
	지역특산물 가공 판매	경력단절여성, 고령 여성에게 적합한 직종
	다문화가정 상담	고학력 경력단절여성에게 적합한 직종
동부 해양권	운송 및 여가서비스직	동해권의 운송 산업과 레져·스포츠산업 부흥 기대
	해양 및 관광 관련 종사자	여가 시간의 증대로 관광 레저 산업이 활성화될 것으로 예상
	다문화가정 상담 및 한국어 교육	고학력 경력단절여성에게 적합한 직종
	전통음식 스토리텔링	역사문화, 관광도시로써 음식에 대한 역사에 스토리 부여로 인해 고부가 가치 창출
서부 산업권	금속/비금속 관련 기계 조작	구미, 김천을 위주로 금속/기계/전자산업 지속 성장 예상
	전기/전자 관련 기계 조작	
	식품가공관련 기능직	상주, 군위, 의성 지역을 중심으로 농식품 가공산업 활성화 전망
	IT 관련 제조업 종사자	노동시간단축으로 제조업분야에서 시간제 일자리에 대한 수요가 증대될 것으로 예상
	4대강 관련 시설 종사자	주거지와 근거리에 있다는 이점이 있음.
남부 도시권	경영 및 회계 관련 사무직	기업지원, 중소기업 증가에 따라 관련 업종 인력 수요 증가 예상
	제조관련 단순노무직	제조업의 증가에 따른 생산직 여성 수요 예상
	자동차부품 산업 종사자	노동시간단축으로 제조업분야에서 시간제 일자리에 대한 수요가 증대될 것으로 예상
	한방, 의료기기 산업 종사자	경력단절여성, 고령 여성에게 적합한 직종

권역별 맞춤형 여성일자리 발굴사업과 관련하여 가장 시급하게 지원해야 할 대상으로는 경력단절여성으로 분석됨. 그 이유는 유휴 인력의 활용과 저출산·고령화 사회에서 여성 인력이 노동인구로 활동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이들의 재취업 지원이 중요

하다. 특히 여성인력이 저조한 분야는 연구개발 및 기술인력, 서비스 및 영업인력으로 나타났다.

한편, 여성인력 채용에서 고려할 부분에 대해 살펴본 결과, 여성은 풀타임보다는 시간제노동 또는 탄력적인 근무시간을 선호하며, 정규근무시간 외 잔업 및 장기간 출장의 경우 특히 결혼여성들은 가사 및 육아 등의 이유로 인해 업무를 소홀한 것으로 보인다.

3. 권역별 맞춤형 여성일자리 발굴 및 지원정책 분석

권역별 맞춤형 여성일자리 발굴사업과 관련하여 가장 시급하게 지원해야 할 프로그램을 살펴본다. 북부자원권은 문화관광 관련 가이드 및 지역특산물을 활용한 농산물 가공 인력 양성, 동부해양권은 다문화가정 상담 및 한국어 교육, 레저스포츠 서비스전문가 양성과정, 서부산업권은 컴퓨터 프로그램 활용능력 전문교육, 농촌지역 일자리 창출을 위한 농산특산품 소포장화, 남부도시권은 창업 전문 인력 양성교육, 시간선택제 일자리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므로 이에 대비하여 자동차부품 QC와 같은 여성 기능 인력 양성이 필요하다.

<표 Ⅳ-3> 권역별 맞춤형 여성일자리 발굴

권역	교육프로그램	그렇게 생각하시는 이유
북부 자원권	문화 관광관련 가이드(통역 포함)	이주여성 인력을 활용
	식품가공 기능인력 양성교육	지역 특산물을 활용한 농산물 가공 산업 활성화 전망
동부 해양권	다문화 가정 상담 및 한국어 교육	고학력 경력단절여성에게 적합한 직종
	레저스포츠 서비스전문가 양성과정	동해권의 레저·스포츠산업의 발전에 따른 관련 일자리 수요증가가 예상되므로 이에 대한 전문 인력 양성 필요
서부 산업권	컴퓨터 프로그램 활용능력 전문교육	제조업 관련 단순노무직종에 대한 전문성 강화를 위해 컴퓨터 활용능력 교육 필요
	농산특산품 소포장화	농촌지역 특산품의 판매량 확대로 일자리 창출
남부 도시권	창업 전문 인력 양성교육 프로그램	대학이 많은 경산지역을 중심으로 관련 직종 수요증가 예상
	자동차부품 QC	자동차부품 업종이 많고, 향후 시간선택제 일자리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므로 이에 대비하여 여성 기능인력 양성

권역별 맞춤형 여성일자리 발굴과 관련하여 지원해야 할 정책은 여성인력 채용 시 기업에 대한 과감한 지원정책인 국공립 보육시설의 확충, 여성인력 채용 할당제, 시간제 일자리에 대한 인식 변화, 여성 프리랜서 양성을 위한 교육·컨설팅·마케팅을 지원하여 1인 창조기업을 양성, 인턴지원금 제도, 아이돌보미 사업, 직장보육시설 설치, 육아휴직(대체인력 채용) 장려금 등을 지원하여 여성고용 확대에 기여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V. 경북지역 권역별 여성일자리 유형

일반적으로 경북지역의 여성친화적 직종은 크게 행정사무직, 정보통신기술직, 판매서비스직, 교육 및 보육서비스직, 보건 및 복지서비스직의 5개 유형으로 요약될 수 있다. 여성친화적 일자리로서 행정사무직에는 일반 행정사무원 외에, 회계 및 세무사무원, 무역사무원이 있으며, 보험・재무설계사도 대표적인 여성일자리이며, 패션샵마스터도 여기에 포함된다. 정보통신(IT) 기술직에서는 몰마스터, 웹디자이너, 웹마스터, 컴퓨터 프로그래머 등 IT기술직과 자동차부품 검사원, 천정크레인기사이 지역의 유망여성직종으로 꼽히고 있다. 판매서비스직에서는 고객상담원, 공인중개사, 도배기능사, 베이비시터, 호텔 및 숙박업 종사자, 제과제빵사, 조리사 등이 있으며, 그 외에 이미용분야의 전문직으로 피부관리사와 헤어디자이너가 여성친화적 직종이다. 대표적인 여성친화적 일자리 유형으로 인정되는 교육 및 보육서비스직에는 최근 환경변화와 더불어 다양한 전문서비스직이 개발되고 있다. 과학커뮤니케이터, 독서논술지도사, 매너서비스강사, 보육교사, 성교육강사, 요가지도사, 유아영어강사, 체험학습강사 등 고학력 여성에게 유리한 일자리들이 확대되고 있다. 고령화와 복지서비스의 확대 속에서 병원코디네이터, 간병인, 케어복지사 등 보건복지서비스직과 미술치료사, 상담심리사, 직업상담사 등 상담서비스 또한 유망 직종으로 부각되고 있다.

〈표 Ⅴ-1〉 경북지역 직종별 유망 여성일자리

권역	여성일자리 유망 직종
행정사무직	행정사무원, 회계 및 세무사무원, 무역사무원, 보험. 재무설계사, 패션샵마스터
정보통신기술직	몰마스터, 웹디자이너, 웹마스터, 자동차부품검사원, 천정크레인기사, 컴퓨터프로그래머
판매서비스직	고객상담원, 공인중개사, 도배기능사, 베이비시터, 호텔 및 숙박업 종사자, 제과제빵사, 조리사, 피부관리사, 헤어디자이너
교육 및 보육 서비스직	과학커뮤니케이터, 독서논술지도사, 매너서비스강사, 보육교사, 성교육강사, 여성리더십강사, 요가지도사, 유아영어강사, 체험학습강사, 학습지교사, 학원강사, 한국어강사, 클럽활동강사, 아동복지교사, 장애아보조교사, 학교방과후교사
보건 및 복지 서비스직	병원코디네이터, 간병인, 케어복지사, 결혼이민자도우미, 미술치료사, 상담심리사, 직업상담사

전문가들로부터 수렴된 의견은 본 연구에서 분석한 경북지역 권역별 유망산업과 직종분석 및 여성경제활동과 노동시장 특성에 따른 권역별 여성친화적 직종 분석 결과와 거의 부합하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이와 같은 전문가조사결과에 더하여 앞서 정리한 경북지역 전략산업 및 유망산업, 그리고 선도산업 및 지연연고산업의 권역별 분석결과와 경북지역 종합계획의 권역별 발전방안을 토대로 하고, 권역별 여성경제활동과 노동시장의 특성 분석결과를 종합하여 권역별 맞춤형 여성일자리 유형을 개발한다.[1)]

〈표 Ⅴ-2〉 경북지역 권역별 맞춤형 여성일자리 유형

권역	권역별 맞춤형 여성일자리 유형
북부자원권	바이오산업 행정사무직, 전통섬유 제조 및 염색 기술직, 전통섬유 판매서비스직, 생태관광(숲해설사, 숲생태체험해설사), 보건의료 및 복지서비스직
동부해양권	신소재 및 부품 산업 행정사무직, 간호 및 사회복지서비스직, 천정크레인기사, 해양레포츠강사, 해양바이오산업 행정사무직, 자동차부품설계디자인직, 역사문화관광해설사
서부산업권	전자정보기기 행정사무직, 전자정보기기 검사원, 교육서비스직, 태양광산업 품질관리직, 식품가공관련 기능직
남부도시권	기계부품산업 행정사무직, 기계부품 제품검사직, 자동차부품설계디자인직, 천정크레인기사, 한방피부코디네이터(한방화장품), 한방·의료문화관광, 사회복지서비스직(방문요양서비스), 교육 및 보육서비스직

북부자원권의 안동시, 문경시, 예천군, 청송군, 상주시, 영주시, 봉화군, 영양군, 의성군 지역은 1찬 산업 비중이 높고 저학력의 중장년 여성 중심의 경제활동이 높다. 유교문화 및 생태 관광자원이 풍부하지만 제조업 기반은 취약함. 안동시와 영주시의 경우 친환경 삼베와 인견 등 전통 천연섬유를 대상으로 한 염색 및 가공산업이 활성화되어 있다. 이런 점에서 이들 산업적 강점을 활용하면서 고학력 경력단절 여성의 일자리를 창출하는 전략이 요구된다.

이런 점에서 안동지역의 주력산업인 바이오산업(한방생물산업) 분야의 행정사무직, 안동시와 영주시의 선도산업인 천연섬유 분야의 여성일자리로서 행정사무원과 제조 및 판매서비스직 등은 20~50대 미취업 여성과 경력단절 여성에게 유망한 일자리가 될 수 있다.

안동지역의 전통문화콘텐츠와 유교문화자원, 그리고 문경지역의 레저관광자원은 관광 안내인력 및 관련 숙박음식서비스 분야의 여성인력 수요를 확대할 것이다. 또한 백두대간수목원이 입지한 봉화군을 중심으로 한 이 지역의 산림생태 관광자원은 고학력 경력단절여성에게 친화적인 관광 도슨트(Docent) 또는 전문안내인에 대한 수요를 창출할 수 있다. 예컨대 숲해설사와 숲생태해설사는 이 분야의 여성맞춤형 일자리가 될 것이다. 또한 북부자원권의 지속적인 고령인구 증가에 따른 노인복지와 보건의료 등의 종합적인 지역사회서비스 수요확대는 고학력 여성친화적 일자리를 제공할 것이다. 따라서 북부자원권의 맞춤형 여성일자리 유형에는 바이오산업 행정사무직, 전통섬유 제조 및 염색 기술직, 전통섬유 판매서비스직, 생태관광도슨트, 보건의료 및 복지서비스직 등이 개발될 수 있다.

포항시, 경주시, 영덕군, 울진군 등 동부해양권 지역은 포항의 금속소재 특화산업기반과 경주시의 자동차 부품산업 등 제조업이 활성화되어 있고 여기에 최근 에너지산업 기반도 확충되고 있음. 그리고 해양바이오산업도 지속적으로 성장하고 있다. 경주시는 세계적인 역사문화관광지로서 높은 인프라를 보유하고 있고, 영덕과 울진에 이르는 동

1) 이러한 권역별 맞춤형 여성일자리 유형은 경상북도(2011)와 경상북도・경북새일지원본부(2011)에서 제안된 여성일자리 유형 리스트를 기초로 본 연구의 분석결과를 반영하여 재작성한 것임.

해안의 해양관광자원도 중요한 산업기반이다. 한편, 동부해양권은 포항시와 경주시의 도시규모에 비례하여 여성인구가 경북지역에서 가장 많음에도 불구하고, 저조한 여성 경제활동참여율과 고학력 여성비중이 높다.

포항지역의 금속소재산업과 경주지역의 자동차부품산업을 근간으로 한 제조업 분야의 행정사무원에 대한 안정적인 수요가 있으며, 성장일로에 있는 울진지역의 해양바이오산업의 행정사무원도 이 지역의 중요한 여성일자리가 될 것이다. 자동차부품설계디자인직도 제조업 기반의 유력한 여성친화적 일자리로 주목되고 있다. 그리고 포항시와 경주시의 도시규모에 따른 각종 여성친화적 서비스직종의 인력수요도 높아 간호 및 사회복지서비스직이 이 지역의 대표적 여성일자리가 된다. 또한 포항신항만 입지에 따른 물류관련 산업 증대와 관련하여 천정크레인기사도 유망 여성일자리로 주목되고 있다.

경주지역을 중심으로 한 문화관광산업 분야에서는 외국어 문화관광해설사가 새로운 여성일자리로서 평가된다. 특히 여기에는 결혼이주여성을 외국어관광 해설사로 양성하는 등 특성화된 여성일자리 개발이 기대되고 있다. 동해안의 우수한 해수욕장 및 수상레저스포츠 자원 보유와 그에 따른 가족단위 관광객의 증가에 대응한 해양레포츠 강사도 성장잠재력이 큰 여성친화적 일자리이다.

이러한 권역적 특성에 근거하여 동부해양권의 맞춤형 일자리로는 신소재 및 부품 산업 행정사무직, 간호 및 사회복지서비스직, 천정크레인기사, 해양레포츠 강사, 해양바이오산업 행정사무직, 자동차부품설계디자인직, 역사문화관광도슨트 등을 제시할 수 있다.

내륙의 서부산업권에 속한 구미시, 김천시, 상주시는 지역에 따른 산업기반의 차이가 크다. 구미시는 전자부품 및 IT관련 제조업 중심도시로서 젊은 인구가 많고 제조업의 인력수요가 높으며 교육서비스에 대한 수요도 강한 특징을 가진다. 김천시는 구미시의 배후부품지역으로서 제조업 기반이 형성되어 있고 특히 혁신도시 건설에 따른 행정서비스분야가 성장하고 있다. 이러한 지역적 특성에 따라 서부산업권의 여성경제활동 참가율도 매우 높으며, 중등학력과 고학력 여성의 제조업 분야 진출이 높고, 전반적으로 여성노동시장의 수요와 공급도 균형을 이루고 있는 편이다.

이런 점에서 이 지역의 맞춤형 여성일자리는 제조업의 기술/기능직과 교육서비스 수요에 초점을 둘 필요가 있다. 다시 말해 전자정보기기산업의 행정사무원 및 전자정보기기와 태양광산업의 품질검사원 등 지역산업에 근간을 둔 안정적인 여성일자리 관리에 주력하는 한편, 증가하는 도시권 교육서비스직으로서 유·아동 대상 독서지도사와 논술지도사와 같은 교육서비스직은 고학력 여성을 위한 유력한 일자리로 평가된다.

농촌지역인 상주시와 도농복합도시인 김천시의 농특산물 가공산업 분야에 있어 상품가치를 높이는 소포장화 기능직도 여성친화적 일자리로 주목할 만한 가치가 있다.

대구광역시를 에워싸고 있는 남부도시권에는 경산시, 영천시, 칠곡군, 청도군, 성주군, 군위군, 고령군 등 대도시 배후지역으로서 산업기반이 우수한 도시지역과 농촌지역이 공존하고 있다. 그에 따라 제조업과 농업에 종사하는 여성인구가 많고, 여성경제활동도 다른 권역에 비교할 때 중간수준에 있으며, 여성취업인구의 교육수준도 저학력과 중등학력이 주를 이루고 있다.

경산시는 자동차부품제조업이 발달해 있고 학원도시로서 교육서비스에 강점을 가지고 있으며, 영천시는 대경권경제자유구역의 첨단기계부품 생산기지로서 제조업 인프라가 구축되어 있다. 따라서 기계부품산업의 행정사무직과 제품검사직 및 자동차부품설계디자인직이 유망한 여성친화적 일자리로 개발될 수 있다.

대도시 산업단지 배후부품지역으로 칠곡군에는 내륙권물류단지가 입지하여 물류관련 인력수요도 높아 이 지역의 맞춤형 여성일자리로 천정크레인 기사직이 주목되고 있다. 또한 대도시 인근생활권이자 학원도시인 경산시지역과 함께 교육 및 보육서비스직이 유망하며, 최근에는 한방피부코디네이터의 여성 취업과 창업 전망이 긍정적으로 평가되고 있다. 한방 의료관광 산업의 육성 및 활성화에 따라 한방 의료관광 체험지도사 등 전문안내인 또한 유력한 여성일자리로 기대된다. 아울러 초고령화지역인 군위지역에서는 방문요양, 방문간호, 방문목욕 등 재가요양서비스에 대한 수요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따라서 이와 같이 복합적 특성을 가진 남부도시권의 주요 맞춤형 여성일자리에는 기계부품산업 행정사무직, 기계부품 제품검사직, 자동차부품설계디자인직, 천정크레인기사, 한방피부코디네이터(한방화장품), 한방・의료문화관광, 교육 및 보육서비스직, 사회복지서비스직(방문요양서비스) 등을 개발한다.

Ⅵ. 정책적 제언

경북지역 권역별 여성의 일자리를 확보하고 지원할 수 있는 방안과 취업에 용이한 직종의 인력을 육성 및 확대할 필요가 있다. 즉 북부자원권, 서부산업권, 동부해양권, 남부도시권의 여성취업 전략을 섬세하게 분석하여 이들의 특성에 적합한 정책적 지원을 제시해야 한다. 이에 경북지역 여성이 취업에 용이한 직종을 개발하기 위해 권역별 여성인력 교육프로그램을 제시하였다. 무엇보다도 경북지역 권역별 여성인력에 관해 북부자원권은 지역의 특산물을 활용한 직종, 상담직, 동부해양권은 운송 및 여가서비스직, 해양 및 관광 관련 직종, 서부산업권은 전기 및 전자 관련 조작, 식품가공 관련 기능직, IT 관련 제조업 종사자, 남부도시권은 경영 및 회계 관련 사무직, 자동차 부품산업 종사자, 한방 및 의료기기 산업 종사자 등을 필요로 한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여성이 취업하는데 있어서 장애가 되는 요인은 육아 문제, 경력 부족, 일자리 부족인 것으로 분석됨. 이와 같은 장애요인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지속적인 경력 관리와 지역 내 보육시설 확충이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이에 다양한 여성 일자리와 여성 유망 직종 개발이 필요하며, 직업훈련과 기술제공 및 정보 제공, 자녀보육시설 확충이 지원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지식기반산업에서의 직종별 인력수급 불일치 현상을 완화하고, 기업내 여성인력 활용의 질적 개선을 위해서는 해당 전문분야에서 배출된 여성인력들이 노동시장으로 이행될 수 있도록 지원할 필요하며, 여성이 사무직과 서비스・판매직과 같은 일부

직종에 집중되어 있는 성별 직종분리 구조가 여전히 나타나고 있는데,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여성인력이 노동시장내에서 직무능력과 경력을 개발시켜 나갈 수 있도록 직업훈련과 기술을 지원해야 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경북지역 권역별 여성 일자리 개발을 위해 몇가지 정책적 제언을 하고자 한다. 첫째, 경북지역 여성이 희망하는 일자리 유형은 시간제 근무를 원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으므로 양질의 시간제 일자리가 필요하다. 양질의 단시간 일자리 확산을 위해 전문직종의 단시간 근로모델을 개발 및 보급하여 전문인력 양성, 기업의 단시간 근로자 활용 가이드라인이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둘째, 여성의 직업훈련이 취업으로까지 연계할 수 있는 맞춤형 직업훈련프로그램이 필요함. 취업역량 강화와 기업 요구에 적합한 여성인력을 양성하기 위한 교육·상담·취업 등 맞춤형 직업훈련을 통해 안정된 취업지원까지 연계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 .셋째, 여성의 취업 장애요인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지속적인 경력 관리가 필요한 것으로 분석됨. 여성인력들이 고숙련, 고임금의 전문분야로 더 많이 진입하고 지속적인 경력 관리 및 개발을 할 수 있도록 경북 차원에서 경력관리 지원방안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마지막으로 여성의 지속적인 취업을 지원하기 위해서는 경북지역내 보육시설 확충 및 지원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며, 취업모들이 자녀보육문제로 인한 직장생활의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지원하고, 구직을 희망하는 여성들의 보육부담 또한 경감하기 위해 적극적인 시간연장형 보육서비스, 영아 및 장애아 전담보육시설 확충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참고문헌]

경상북도(2012). 경상북도 종합계획(2012~2020).

경상북도.「경북통계연보」. 각 년도.

경상북도.「사업체기초통계조사보고서(시·군편)」. 각 년도.

고용노동부 워크넷: www.work.go.kr

김용원(2013). 경북지역 고용구조 분석을 통한 청년층 고용촉진 방안. 대구경북연구원.

김인선 외(2006).「고학력 경력단절여성의 인적자원 활용방안 연구」, 경기개발연구원.

김인선 외(2006).「고학력 경력단절여성의 인적자원 활용방안 연구」. 경기개발연구원.

김태홍(1993). 여성의 취업실태조사.「여성연구」, 11(4). 한국여성개발원.

김태홍·나영선·송병국·양인숙(2002),「경기 여성인적자원개발 종합계획」, 경기도.

김태홍·양인숙(2002).「권역별 지역별 기업체 인력수요 실태 및 전망과 여성의 취업요구 파악」, 경기도.

김향아·성혜진(2006). 기업의 여성인력 활용현황과 영향요인 : 적극적 고용개선조치 시행에 따른 고용현황 보고 결과 분석.「노동리뷰」, 9월호.

김현진(2005). 고학력 여성 청년층의 노동시장 Sequence 연구.「2005 한국의 고용구조」한국고용정보원.

김혜연·김순미(1997). 비취업 기혼여성의 취업의사와 영향요인 분석.「대한가정학회지」,

35(3).
나영선・고혜원(2004). 국내외 성인 여성 인적자원개발 기관의 현황과 과제.「직업교육연구」, 23(2).
나영선・고혜원(2004). 국내외 성인 여성 인적자원개발 기관의 현황과 과제.「직업교육연구」. 23(2).
남상균(2005). 기혼여성의 경제활동참여 장애요인 분석.「한국의 고용구조」, 한국고용정보원.
남승희(2000). 여성인적자원개발의 정책방향.「직업과 인력개발」, 3(6). 한국직업능력개발원.
박상철(2005). 고령자 노동시장 분석과 고령자 적합 직종의 평가.「2005 한국의 고용구조」, 한국고용정보원.
박성정 외(2005).「중장년층 여성인적자원개발 실태와 정책과제」, 한국여성개발원.
박성정 외(2005).「중장년층 여성인적자원개발 실태와 정책과제」. 한국여성정책연구원.
박은미 외(2010).「여성취업기관 협력모델 구축 및 교육훈련프로그램 개발」. 경상북도.
서울특별시 여성가족재단(2007). 서울시 여성인력개발계획 수립을 위한 공청회.
안영식・이경구(2002). 부산지역 여성인력의 취업활성화 방안.「인적자원관리연구」, 4. 한국인적자원관리학회.
여성가족부(2013). 2013년도 여성인력종합계획(2011-2015).
오은진 외(2006). 지역여성인적자원개발 현황점검 및 발전전략 수립, 여성가족부.
이광동 외(2011). 경북지역특화 여성유망직종발굴 및 교육프로그램개발.
이재훈 외(2011). 대구경북지역 인력수급불일치 현상진단과 해소방안에 대한 연구, 대구경북연구원.
중소기업청(2006),「중소기업 인력실태조사 보고서」.
채창균 외(2001). 여성회관 및 여성인력개발센터 활성화 방안 연구. 여성부.
최강식・정진화(1997).「여성의 잠재인력의 활용방안」. 한국노동연구원.
최영미(2005). 여성의 취업 지원과 고용안정을 위한 지역사회의 역할.「도시와 빈곤」, 72호.
통계청. KOSIS DB: http://www.kosis.kr
한국고용정보원(2010).「KEIS인력수급전망」.
홍현미라(2005). 실직여성 고용정책 개발에 관한 연구: 인적자본관점과 인간능력관점에 대한 비교.「사회복지정책」, 23.
황수경 외(2005).「고학력 경력단절 여성의 재취업을 위한 맞춤형 직업훈련 지원 연구」, 교육인적자원부.